

이남재 씨(정법빠리사 운영책임 도반)
시민사회운동 30년
수행 복지로 세상 맑히는 게 꿈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74호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말라.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보아라.

1년 걸친 동국대 내홍, 해결 실마리 찾나

12월 3일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사태 책임 통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들이 학내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총장 선거부터 이어진 '동국대 사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 이사회는 12월 3일 고양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제297차 이사회 후 법인사무처를 통해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현재 단식과 농성 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박현식 법인사무처 총무부장은 "이날 이사들은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단식과 동조단식 등으로 학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한 학교 운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새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성타, 미산, 지홍, 호성, 심경, 이연택, 김선근, 김기유 이사와 최대식 감사가 참여했다.

이사회가 1년 만에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데는 교내 안팎의 단식 농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15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김건중 동국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오전 10시 경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그 뜻에 동조한 한만수 교수협의회 회장과 교수 2명도 24일째 단식 중이었으며, 교직원 1명도 18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에 동국대 이사 임기 시작을 앞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11월

297차 이사회서 조건부 결의
단식 중단 및 이사 점진 사퇴
비대위 환영 "학교 발전 계기"

26일 이사 포기 선언을 했으며 이사인 미산 스님도 30일 "생명부터 살려야 한다"며 이사직을 사퇴하고 단식에 합류했다. 이날 동국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대흥사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도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동국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학내에서도 문과대 학장 교수 전원이 보직을 사퇴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종단 측에서 12월 1일부터 이틀에 걸쳐 16시간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화쟁원탁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식 투쟁 중이던 학생의 응급 후송과 투신 예고까지, 일촉 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12월 어느날의 동국대 교정 모습이다. 팔정도 광장 내에 단식농성 중인 천막이 눈에 띈다.

이날 이사진들의 사태해결을 위한 사퇴 결의에 농성을 이어온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30일부터 동조단식을 이어온 동국대 총동문회 측은 "조건부지만 서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총동문회 회장단은 학생과 교수들이 더 이상 희생되기 때문에 동문들이 나서 학생과 교수들을 설득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단식에 돌입했던 금강 스님과 법인 스님도 "그동안 단식과 투신선언을 한 두 학생이 극단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수행하던 곳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들의 사퇴에도 총장 거취를 두고 벌어진 동국대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투신 의사를 밝히고 이날 잠적했던 최장훈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사들의 결정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들과 의견을 모아 학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사회가 구성됐으면 한다. 총장 사퇴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공사 모토는 '적절' 결의 후속 조치는 '글쎄'

대중공사 추진위, 1일 100인 대중공사 인식조사 발표

백년대계 모토 87% 긍정
결의사항 이행 53% 부정
기관 신뢰도 교육원 '최고'
종회 · 호계원, 신뢰도 낮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의제와 모토에 대해서는 적절했지만 후속조치 이행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12월 1일 열린 '대중공사를 공사하다' 좌담회에서 '대중공사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에는 100인 위원과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종단 출입기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공사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 모토는 적절했다'는 질문에 87.4%(매우 그렇다:27.4%, 그렇다:60%)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11.1%에 그쳤다.

'대중공사가 종단 토론 문화 형성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79.3%(매우 그렇다:17%, 그렇다:62.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종단 문제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뤘나'는 질문 항목에는 59.4%가 정직하다고 응답했다.

대중공사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이행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응답자 중 74.6%(매우 그렇다:17.7%, 그렇다:56.9%)가 '대중공사 결의사항은 대체로 포괄적이로 추상적'이라는 응답했으며, 53.9%(매우 그렇지 않다:17.7%, 그렇지 않다:36.2%)가 '대중공사 결의사항 후속조치는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 중 66.2%가 결의사항 이행을 객관적으로 점검 · 평가할 제3의 평가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결의사항 이행이 종법적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70.8%의 참가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100인 대중공사의 지속여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중공사는 지속하되 구성, 의제, 진행방법, 모니터링 등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고, '제도권 중심을 벗어나 자율 ·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19.4%가 나왔다.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결의사항 후속조치(38.8%), 참여자 선정과 규모(20.3%), 의제 설정(18.8%) 순으로 나타났다.

종단 기구의 신뢰도도 조사됐다. 교육원의 신뢰도가 69.7%로 가장 높았으나, 반면 중앙종회는 55.7%가 호계원은 70.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앙종회 신뢰도에 대해서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 재가자와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비구 스님들은 60%가 중앙종회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비구니 스님들은 60%, 우바새는 63.5%가, 우바이는 55.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분석을 맡았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100인 대중공사의 취지, 진행 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결의사항 이행, 참가자 구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체적으로 대중공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개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분석하니 비구 스님과 다른 3부중, 비구니 · 우바이, 중앙과 기초 단체 등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현존하는 다양한 인식과 요구의 차이들을 구성 및 의제 설정에서 구조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획특집 |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과제 12면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본격 시행

국회, 2일 소득세법 개정안 결의… 필요 경비 제외 稅 부과

조계종 "法 시행 준비할 것"
개신교계 "시기상조" 반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68년 종교인 과세 입법화 시도 이후 47년만에 성역이 깨지고 개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세금 집행이 이뤄진다.

국회는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스님들이 사찰에서 보시금을 받거나 법문, 의식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가 결의한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정부의 시행 시기를 수정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즉,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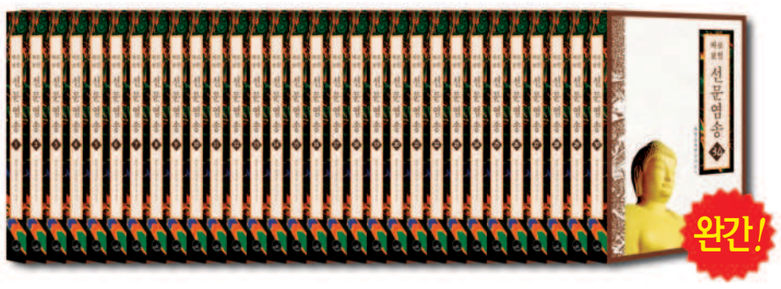
또한, 종교계의 세무 조사 우려를 받아들여 방지책을 법에 명시했다. 조세소위는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 · 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님,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종교인 과세 방안 처리에 대해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종단은 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2018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불교의 특성에 맞는 과세 정책을 요구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신교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2월2일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과세를 강제하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

“출가연령 상한제 폐지해야”

원로회의 소위, 11월 30일 결의… 法 개정 건의

조계종 원로회의가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로 제한한 종법 규정을 폐기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원로회의는 11월30일 서울 워커힐호텔 중식당에서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를 열고 “출가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5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50세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폐지할 것”을 중앙종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혜승, 명선, 원명, 월서, 월탄, 암도, 종하, 성우, 대원 스님이 참가했다.

현행 교육법에 따르면 사미(니)계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자교육원 수학 자격을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만 50세가 넘으면 행자교육원을 입소할 수 없다.

이날 소위원회는 한상균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종단 차원에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종단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종교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자비로써 한 위원장을 보호하되, 정부와 민노총을 잘 설득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원로회의는 11월 3일 소위원회를 열고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승가청규, 수지독송 가능토록 간결해야”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청규 생활화’ 좌담회

“승가청규의 내용은 좋은데 누구나 읽고 암송하긴 어렵다. 불자들이 수지독송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리해서 읽는 이들의 가슴에 남도록 해야 한다”

2012년 백양사 승려 도박사건 이후 3년에 걸쳐 성안된 조계종 승가청규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1월 30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에서 개최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의 생활화와 미래 승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원영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목종 스님(부산 대광명사 주지) ·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혜조 스님(결사본부 사무총장) ·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 이미령 칼럼니스트 · 임완숙 전 교사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제정된 승가청규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청규의 폭 넓은 실천방법으로 인한 모호성과 복잡한 핵심가치 나열 등을 지적했다.

청규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덕문 스님은 “청규가 사문화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면 곤란하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포살형태라든지 정기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살본 등을 만들어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송위한 별도 포살본 제작
“청규 핵심 키워드만 담아야”
사회 참여 · 시대 정신 담아낸
‘미래 승가상 선언’ 필요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활동 중인 목종 스님은 “내용은 공감하지만 누구나 다 읽고 암송할 순 없다. 읽으면서도 이 의미가 저 의미 같아 복잡하다. 핵심적인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는 “청규가 수행 · 생명 · 평화 · 나눔 · 문화 등으로 나뉘어 구분하기가 어렵다. 청규는 간결하고 아름답고 명확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까지 다 풀어서 한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또 의식주에 있어 세부적인 실천방법을 나열해 특정 상황에서 승려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도법 스님은 “청규 논의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실제로 스님들이 겸허하고 진실하게, 또 평화롭게 말하고 생활하는 삶이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행동양식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폭 넓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색이나 언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반 대중의 보편적 상식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 승가상에 대해서는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부처님 정신과 시대상 압축적인 선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병기 교수는 “부처님 당시 시대정신을 돌이키도록 하되 현대사회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처님 정신과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선언하고, 청규에는 청규정신만 다루고 실천은 실천의 장에서 따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11월 30일 ‘승가청규의 생활화’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천태종 예산 165억 원 확정

제99차 정기 종의회서 결의

천태종 201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 감소한 약 165억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는 지난 11월 27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서 제99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총무원 총무부 등 6개 부서와 종단 산하기관 예산안을 심의, 원안 수정 후 의결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의 2016년 일반 예산 총액은 165억 509만 7000원이다.

종의회는 26일 개회 후 총무 · 법제 ·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도 검토 · 심의했다. 한편 제99차 종의회에서는 상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주일 기자

선학원, 분원장 간담회 열고 ‘勢 결집’

부산 · 대전 · 깅원 등 잇달아… “이사회 지지 결의”

선학원이 분원장 회의를 열고 재단 임원진 신뢰를 확인했다. 또한 중진 분원장들은 법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더 이상 조계종이 관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20일 · 27일 · 12월 1일 · 2일 네 차례 걸쳐 중진 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분원장 간담회에서는 △조계종은 ‘종헌’ 제9조 ③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라 △선학원 이사회의 2013. 4. 11 정관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조계종은 2013. 4. 11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고 및 본안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중지하라 △조계종은 선학원 분열을 획책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서명했다.

또한, 향후 조계종이 소송을 걸어올 것에 대비해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네팔 국제포교 ‘START’

11월 27일 현지 반야포교소 본존장엄가지불사 봉행

지진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피해 지역 쌀 6600kg 전달

진각종이 네팔서 반야포교소 본존장엄가지불사를 갖고 본격적인 현지 중생교화와 국제포교 불사에 첫 발을 디뎠다.

진각종은 11월 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반야포교소서 본존장엄가지불사를 봉행하고 불사의 원력으로 심인진리 홍포와 네팔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서원했다.

이날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가지불사한 원력으로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복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서원한다”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반야포교소가 명실상부하게 네팔서 진각종 포교를 할 수 있는 포교 전진기지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각종 네팔 반야포교소는 현지인 출신으로 지난 4월 24일 진각종 국제포교사로 임명된 지모 및 선연화 포교사에 의해 자립과 현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심인진리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진각종이 스리랑카에 이어 네팔 카트만두에 반야포교소를 개설해 본존가지불사를 봉행하고 기존 국제포교와 다르게 현지인을 포교사로 임명해 국제포교에 나선 가장 큰 목적은 심인불교의 세계화다.

진각종은 진각종립 위덕대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수학하고 종무행정을 익힌 네팔인 지모 법사를 네팔 포교 담당 포교사로 임명했다.

진각종은 “지모 포교사는 네팔 현지 문화와 전통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진각종의 새 불교 운동을 전할 인연이 되어 포교사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설한 반야포교소는 3층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0여 명의 네팔인이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진각종이 11월 29일 지진피해 산간 마을 ‘돌라카’를 찾아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 기획실장 겸 사회부장 호당 정사, 반야포교소 지모 포교사 등은 돌리카 주민들에게 30kg 쌀 220 포대, 6천600kg 쌀을 나눠줬다. 또한 진각종은 지진으로 파괴된 ‘트리풀라 선다리’ 학교 건립도 추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각종은 11월 29일 지진피해 산간 마을 ‘돌라카’를 찾아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총장 이대원 교수

3일 297차 이사회서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12월 3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제297차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총장에 이대원 바이오학부 교수(61, 사진)를 선출했다.

이대원 신임총장은 1972년 충남 홍성고를 나와, 1980년 동국대 농업생물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낙생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독일 유학길에 올라 1989년 독일 키엘(Kiel)대학원 생물학 석사, 1993년 동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경주 경실련 정책위원, 2004년 공무원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주발전협의회 이사, 식물생명공학회 평의원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도 여러분께 告합니다. (두번째)

모든 태고종도들이 **종정유시를 봉대**하고 다 같이 **화합동참하여 제14대 중앙종회를 구성**하고, **全宗徒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총무원측에서는 종단의 혼란(混亂)과 분열(分裂)과 불화(不和)를 조장할 생각이십니까?

지난 11월 24일에 하림각에서 자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스님이 중앙종회의원 당선증을 교부하고, 제14대 중앙종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 개원 예정인 중앙종회에서 현재 구속 중인 도산스님의 신임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종단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지난 종정예하의 유시에 의해 해직된 도산스님의 신임 여부를 개원 중앙종회에서 처리하려는 총무원측의 구태의연한 발상에 대다수의 종도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진행한 자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스님은 2015년 6월 1일자로 선거관리위원장직 사표를 제출하였고, 총무원측에서 사표를 수리한 후에 후임도 선출하였으나, 중앙종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무원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석(空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표가 수리되어 제명(除名)된 과거의 인사가 되살아나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었는데도, 오직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들뜬 마음에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이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원측에서는 작금의 종단 비상사태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중앙종회의원으로 제14대 중앙종회를 구성하여 또다시 자신들만의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정말로 엄청난 야욕과 집착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총무원측에서는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不敬) 그리고 폭력과 관련하여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사상초유의 비상사태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내지 연장하려는 데에만 악용할 생각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단의 위상은 추락되고, 존엄이 훼손되고, 승가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총무원측에서는 진정 종단사태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단의 갈등과 불화를 조속히 해소하여 종도 화합과 종단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왜 끝까지 자신들만의 세력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그리고 총무원과 야합하여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세력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종도가 있다면 자중하고, 참회하여 주기 바랍니다.

老衲은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조계종과의 분쟁 당시에 종권수호를 위한 영화사 사태 발생 시 소지공양(燒指供養)을 올렸으며, 선암사 등 종단의 주요사찰 수호와 종권수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974년 총무원 재무부장을 시작으로 중앙사정원장, 총무원장, 대본산 선암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老衲이 태고종공제회와 관련된 피의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분(처분일자 2007년 10월 18일)되었고, 피의사건과 관계없이 老衲이 정성어린 성금 1억원을 납부(2008년 3월 31일)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老衲을 헐뜯고 비방하려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태고종도들이 화합동참하여 종단을 정상화한 이후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14대 중앙종회를 구성함으로써 全종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종도화합과 종단 정상화에 애종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불교태고종 정상화추진위원회
위 원 장 홍 인곡
부위원장 김 법선
부위원장 최 혜운

"〈유심〉은 문 닫지만, 문학은 영원하다"

불교계 詩전문 월간지 〈유심〉 92호로 종간돼



만해선양회 사업 축소가 이유
"성원해준 독자께 죄송할 따름"
신인 및 유심작품상 등도 중단
문인들 "문단에도 큰 타격이다"

만해 스님이 창간한 〈유심〉이 복간된지 15년 만에 종간(終刊)된다. 〈유심〉은 최근 발행된 12월호(통권 92호)에서 "월간 〈유심〉은 12월호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한다"면서 "최근 잡지를 후원하던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종간사를 발표했다. 12월 4일에는 〈유심〉 편집국 자체 종간식을 열기도 했다.

〈유심〉은 "발행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도 고려했으나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을 의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유심〉은 문을 닫지만 문학은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만해 스님이 주도해 창간된 잡지로 이 해 12월까지 총 3권이 발간됐다. 만해 스님이 편집인 및 발행인을 맡았으며 최린, 최남선, 이광종, 권상로 등이 논문과 소설 등을 집필했다.

이런 〈유심〉은 2001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계간지로 복간하며 내노라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글이 실리는 등 국내 최고의 시문학전문지로의 위상을 높였다. 여기에 2003년 유심작품상을 제정한 이후 신인 문인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이후 〈유심〉은 2009년 1월부터 격월간지로 전환됐다.

종간 결정에 대해 홍사성 〈유심〉 주간은 "그동안 불교와 문단을 소통하는 통로였고,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간하게 돼 미안함을 전한다"며 "모든 문학잡지가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발행할 수 있다. 편법발행을 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주간은 "'한국 시단의 동인'은 끝을 보지 못해 아쉽다. 이와 함께 〈유심〉이 진행하고자 했던 기획은 다른 잡지에서라도 완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문단에도 얼마되지 않았던 시 전문 월간지의 종간에 문인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세영 시인(서울대 명예교수)은 "〈유심〉제호 자체가 만해 스님이 창간한 잡지를 복간했던 것이다. 민족시인 만해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유심〉은 한국 문단의 격을 높였던 흔치 않던 교양지였다. 〈유심〉의 종간은 한국문단에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유자효 시인(구상선생기념사업회장)은 "〈유심〉은 시와 시조를 함께 다루며 비평을 실었던 중요한 문예월간지"라면서 "시전문지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심〉마저 종간하니 아쉬움이 크다. 시라는 문학 장르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리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심〉으로 등단해 시인이 된 문인들에게는 자신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유심〉을 통해 시인으로 데뷔한 이학종 〈미디어 붓다〉 대표 기자는 "나에게는 '모지(母誌)'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프다. 시(詩)는 '사찰(寺)에서 나온 말(言)'이다. 이 같은 문학 장르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쉽다"면서 "불교계에 만연한 공짜로 보고 들으려는 문화가 좋은 문학 지 하나를 없앴다. 독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희귀양식 조선불화 일본서 발견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11월 27일 공개



가마쿠라 사찰에서 발견된 선묘관음보살도.
사진제공=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한쪽 다리를 세운 유희좌를 한 독특한 조선시대 관음보살도가 최초로 발견됐다.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은 11월 27일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 사찰에서 발견한 선묘관음보살도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관음보살도는 가로 119.2㎝, 세로 70.9㎝ 크기로 삼베에 붉은색을 칠하고 황토색 선만으로 그린 선묘(線描) 회화다. 채색된 곳은 보살의 머리 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조개껍데기 속에 숨은 진주처럼 커다란 연잎이 보살의 위아래에 배치된 양식으로 연꽃 위에 앉아있는 '유희좌(한쪽 다리를 곧추세운 채 앉아있는 자세) 관음보살'을 묘사했다. 정 관장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도상의 목판화는 충북 단양 구인사 소장본을 비롯해 6, 7개가 있지만 회화 작품으로는 이번 관음보살도가 유일하다.

정 관장은 "관음보살의 풍만한 얼굴, 묘선의 강약, 연꽃의 바림(한쪽을 짙게 칠하고 다른 쪽은 차츰 엷게 칠하는 것) 기법을 보면 16세기 불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관음보살도는 총 4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에 가로와 세로로 각각 접힌 자국이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전후해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불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관장은 또 "새로 발견된 관음보살도는 중국에서 수용된 목판본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해 그린 거의 유일한 사례"라면서 "조선불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밝힌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반대여론 불구 '한 위원장' 품었다

신도들 '수용vs퇴거' 대립 지속
12월 1일 임원총회서 최종 합의
화쟁위, 12.5대회 평화지대 구성



조계종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월 29일 회동을 갖고 12.5궐기대회의 평화적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거를 두고 '수용이냐 퇴거냐' 대립각을 세운 조계사 신도회가 한 위원장을 품어 안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지 17일(12월 3일 현재)이 경과하며, 조계사 일대는 한 위원장을 끌어내라는 시민들이 몰려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행과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 불만도 만만찮은 상황, 신도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히 대립돼 왔다.

조계사 신도회는 12월 1일 신도 160명이 참석한 '한상균 위원장 거취 관련 임원총회'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용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한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언급한 기일인 6일까지 기다리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도회는 "조계사는 하루속히 신도들이 누구나 참배하고 신행하는 청정도량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민주노총 한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대다수 의견에 따라 수용키로 결정했으나, 하루빨리 조계사가 원상회복되길 바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11월 30일 발생한 조계사 신도회 일부 구성원들의 '한 위원장 강제 퇴거 시도'가 발단이 됐다. 조계사 신도회 회장단이라 밝힌 15명은 오후 2시 50분 경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 4층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보름 간 보호해줬으면 됐다. 이제는 나가달라"면서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 했고, 이를 거부하는 한 위원장의 옷이 찢겨지는 등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는 조계사 신도회 내부는 물론 조계사 및 조계종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구성원들이 밖으로 나와 경찰에 "함께 들어가 한 위원장을 체포하자"며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우식 조계사청년회 지도위원장은 이튿날인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살의 사명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내치는 데 있지 않다"면서 "공권력이 조계사에 무단 침탈한 적은 있어도, 마지막 의지처로 조계사에 들어온 중생을 일부 신도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경찰에 넘기려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혼란에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책임을 통감했다. 화쟁위는 1일 '제4차 연석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어제 조계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에 대해 참회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어제 일은 신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다.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내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12.5궐기대회가 평화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월 29일 조계사 및 화쟁위원회를 방문해 "종교계가 12.5궐기대회 평화적 성사를 위해 나선 데 환영하며 공동노력 하겠다"며 동참을 선언했다. 〈차주상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난개발 광풍서 국립공원 자유롭게 하라!"

조계종 환경위 등 11월 30일 '국토청정 발원 천도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와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장 법현 스님 등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심청정 · 국토청정 발원 천도재'를 봉행하고, 보호지역 난개발 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산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휴식을 주는 스승이며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다. 우리 선조들은 '산에 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산을 겸허한 마음으로 대했을을 의미한다"면서 "현대인들이 산을 찾는 이유는 맑은 공기 등을 통한 치유효과를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천도재 참가자들은 법응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이 땅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뭇 생명들이 대자유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천명을 누리게 하라"면서 모든 국립 · 도립공원에 대한 환경훼손행위 금지를 촉구했다.

서울 상도초등학교 김민경(5학년) · 이인준(6학년) 학생은 '대통령 할머니께!'라는 편지를 낭독하면서 정부가 자연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불교생명윤리협회 등은 11월 30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심청정 · 국토청정 발원 천도재'를 개최했다.

강남 생활권 제2종 주거지역 및 2차선에 접한 과천토지 매각!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2의 강남인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

과천시 2020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실태조사 실시!
재산권 행사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개발 탄력 받을듯...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중으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과천 강남벨트화 구상
●과천 "강남벨트 조성" 구상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IC역 또는 3호선 양재역 연결 추진 등 개발제한구역에 신시가지 조성 구상으로 강남을 연계한 One-Set City조성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상태
●과천시-경기도시공사와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주암동,과천동/ 약 800,000㎡)
▶지식정보타운 주택지구 및 지하철역사/ 과천화훼종합센터 추진
▶과천시-경기도시공사, 체계적 지역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매각개요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구 분	공급면적	매각가
A블럭	330㎡	1억 2천만원
B블럭	330㎡	1억 1천만원
C블럭	330㎡	1억원

■ 청약금: 100만원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인접 토지의 경우, 1,500~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 700~800만원)
3.3㎡당 100~120만원
(분양단위 : 330㎡)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등기: 법무사
청약신청 (현장관리자) 02)2058-0132

일 주 문



제12회 활동가 지원금 전달식

동출 설법연구원장 스님은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종로구 수송동 열린선원에서 '제12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 을 진행한다.



중앙시장서 연탄 · 팥죽 나눔

자운 천태종 제천 삼천사 주지 스님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제천중앙시장 일대에서 '연탄 1만장 및 동지팥죽 나누기' 를 실시한다.



제13차 사회봉사의날 행사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2월 12일 '제13차 사회봉사의 날' 을 맞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및 식판세척 봉사를 실시한다.



제12차 집중세미나

고영섭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장은 12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12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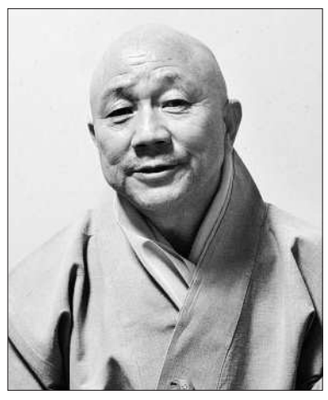


샤카디타 한국지부 송년의밤

조은수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한국지부장은 12월 18일 오후 5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송년의 밤 및 바자회' 를 개최한다.

"장학사업 통해 인재 양성 도모"

해인사 승가대 총동문회 신임회장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현재 56기까지 1000여 명 회원
동문 친목 · 장학 사업 지속 추진
"타의 모범되는 동문회 만들 것"

"해인사 승가대학은 해인사뿐만 아니라 타문중 스님들도 수학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졸업해 불교에서 중추적 역할하는 스님들이 여느 승가대학보다 많습니다. 그런 만큼 동문 스님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도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된 동명 스님(서울 전등사 주지, 사진)은 11월 30일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동명 스님은 지난 11월 23일 해인사 관음전에 열린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스님은 신임 회장으로서 동문 간 화합을 강조했다.

"동문 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동문 스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선후배 스님들을 잘 모시고 동문회장 소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도반 스님, 선후배 스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은 (재)해인동문장학회가 재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맡고 있다. 올해에도 2015년 장학승 49명에게 4,400만 원과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연구비로 500만 원 총 4,9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선배 스님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학들을 잘 양성해 불교계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해인동문장학회를 활성화해 후배 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동명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수행자로서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계종의 많은 문제들은 수행자로서의 덕목을 지키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모범을 보인다면 이 같은 풍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는 18대 회장 선출이외에도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제18대 임원 선출의 건, 동문회 활성화 방안의 건 등이 함께 논의했다.

이날 동문들은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정기적인 성지순례와 기수별 모임 등을 통해 동문회 우의를 증진하고 활성화를 꾀하기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 다나 서비스 MOU



현대불교신문사와 (주)다나는 11월 30일 대외 홍보 및 웹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나는 현대불교신문사 수익형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불교신문은 다나의 대외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주)다나는 지난 8월 15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교계 IT전문업체로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요사찰 홈페이지를 제작 ·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절로' , '법화경' , '법회'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광주본부, 연탄 · 김장나눔



생명나눔 광주본부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하며 뜨거운 정을 선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행복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SK텔레콤, 원효사, 공옥진밥차의 후원으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체 12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광주 북구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동구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세대, 영광 소외계층 독거노인, 백혈병 소아암 환아가족 등 4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사〉 BBS불교방송 인사

△승진 박호창 포교문화국 문화사업부장 △전보 안훈경 경영기획실 마케팅부장, 박치민 부산지방사 교계협력부장 겸직 △장수연 경영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겸 뉴미디어 T/F팀장

〈입적〉 태고종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 12월 1일

12월 3일 청련사서 태고종단葬으로 영결식



한국불교 태고종 청련사 주지 백우당(白牛堂) 재수(再秀)스님이 12월 1일 오전 입적했다. 법랍 57세, 세수 73세.

백우 스님은 1955년 안정사(현 청련사)서 석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58년 덕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75년 국묵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3년 청련사 주지에 취임했고 2012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조사부장, 감찰부장, 사정원 부원장, 총무원 종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양주시 개명산 자락에 청련사를 이전 창건 및 중창 대작불사를 했으며 가람수호와 불법홍포, 도제양성에 앞장서고 대중스님들과 수행정진에 매진해 왔다.

백우 스님은 출가사문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큰 원을 세워 본래면목 찾는 화두 타파와 염불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평소 강조했다. 백우 스님의 영결식은 태고종 종단장(葬)으로 12월 3일 청련사서 봉행됐다. (031)836-0827 **김주일 기자**

본지,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

11월 30일, 제23회 전통문화공연장서 시상식



본지 신성민 차장(오른쪽)이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에서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본지 기획연재 '광복 70년, 불교 70년' 이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을 개최하고, 뉴미디어 · 신문 · 방송 · 특별상 · 불교언론인상 ·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등 각 수상작 및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올해는 현대사회의 환경에 맞도록 시상내역을 재편하고 뉴미디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불교언론문화상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상은 BTN개국20주년 특집 '은밀한 의식, 불복장' 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SBS 물은 생명이다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 과 BBS뉴스 기획보도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불자가 뛴다' 가 특별상을, 강상구 KBS경영위원이 불교언론인상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암사 가람 수호 · 발전에 총력"

태고종 총림 선암사, 30세 주지 호명 스님 당선



선암사는 지난 11월 30일 적묵당서 전산총회를 열고 제 30세 주지 선거를 실시했다. 사진 오른쪽이 당선 소감을 밝히는 호명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총림 선암사 제 30세 주지에 호명스님(서울 염불사 주지)이 선출됐다. 선암사는 지난 11월 30일 적묵당서 전산총회를 열고 제 30세 주지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분한신고를 마친 재적승 유권자 154명 중 113명이 투표에 참가, 호명스님 98표, 명성스님 14표, 무효 1표로 호명스님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호명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9살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잡고 들어와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곳이 바로 선암사"라며 "선암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진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명 스님은 성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64년 선암사서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사업부장, 종무조정실장과 종단사간행위원회 위원, 제 11대 중앙종회의원, 종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특별사면복권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선암사수호대책위원이며 총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창원시불교聯, 시민불교문화상 선정


구주모 성선경 김종원 박종춘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2015년 '제25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언론상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문학상 성선경 경남문인협회 이사 △예술상 김종원 한국문자문명연구회 회장 △행원상 박종춘 신대양 (주)대표이사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8일 오후 6시30분 창원세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시민불교문화상은 수상자 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문화예술 · 언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창원불교계에서 제정한 상이다. **하성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헬조선’ 산다는 청춘에게 3인 멘토 “여실지견하라”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3인 3색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멘토로는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과 윤성식 고려대 교수,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 대표가 참여했다.

대불청, 11월 28일 전주서 3인 3색 토크 콘서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을 지옥에 비유한 ‘헬조선’, ‘수저계급론’과 같은 청년들의 삶을 비관적인 의미를 내포한 신조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2030 청년 대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3人3色 토크콘서트’가 전주에서 열렸다. 강의 시작과 중간에는 ‘포스트하지만’ 밴드의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11월 28일 전주시청강당에서 ‘소통’과 ‘생활’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3명의 강연과 즉문즉답 형태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처님의 부자수업〉 저자 윤성식 고려대 교수와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 장재열 대표,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강사로 나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는 ‘뉴 노멀시대, 1대 99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윤 교수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를 수용소를 예로 들어 “수용된 사람들 중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보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며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현시대를 低 성장, 低 소득, 低 수익률의 경기침체가 반등없이 지속되는 길고 지루한 저정상의 시대인 뉴노멀시대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뉴노멀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층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또 “부처님께서는 농사나 목축, 장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되 절제된 소비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돈에 집착하면 가난한 사람도 무소유가 아니며 부자도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의 삶이다”며 “열심히 돈을 벌되 소비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모든 것의 현상과 실제 현상과 그 본질을 아는 지혜인 ‘여실지견(如實知見)’을 강조했다.

정목 스님 · 윤성식 교수 · 장재일 대표
소통 · 생활 · 힐링 주제로 토크 진행해
‘책임있는 삶’ 강조… 배려심이 중요
참가 학생 “고민 해결 계기됐어요”

윤 교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위빠사나, 명상, 참선 등을 통해 바른 생각과 안목을 길러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두 번째로 무대에 나선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 장재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들을 위해 상담소를 열게 된 계기를 진솔하게 이야기 했다.

그는 “3수 끝에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자신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울증까지 앓아야 했다”고 자신의 청년시절을 회상했다.



토크 콘서트 중간에는 ‘포스트하지만’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토크 콘서트 관객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한 대학생 참가자가 질문을 마치고 웃어보이고 있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청춘상담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과거 절실하게 상담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젊은이들은 고민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고민을 진실되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상담소를 찾고 있다”며 “기성세대들은 단지 젊은이들의 투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설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해결에 나섰다.

스님은 “불교청년들은 불교라는 시각과 사찰이라는 영역에만 매여있어서는 안 된다”며 “온 세상 밖으로 나가 필요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경청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님의 탄생설화 중 아기부처님이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은 것을 비유하며 이 설화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것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일곱 걸음은 육도윤회와 마지막 부처의 세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와 다름이 없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는 아수라 세계와 다름이 없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도 아귀세상이며 자비심 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축생세계와 다름이 없다. 인간세상은 많은 자유를 누리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된다. 책임을 지게 될 때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일곱번째 걸음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덕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한 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며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나와 또 다른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덕행을 쌓을 것을 권했다. “말이나 행동 생각으로 덕행을 쌓아야 한다.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때 번뇌와 고통이 생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고민은 번뇌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순간, 생각 속에서 다른 이를 이해하고 덕행을 쌓음으로써 자기 가슴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강연 후에는 3명의 강사들이 즉석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 청년의 ‘꿈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말에 대해 정목 스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꿈꾸어 보라고 조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저계급론에 대해 윤 교수는 강의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 근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강의를 경청한 정솔(23, 전북대) 학생은 “평소 이런 강의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멘토 3명의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듣게 돼 너무 좋았다. 요즘 고민이 조금 늘고 있는데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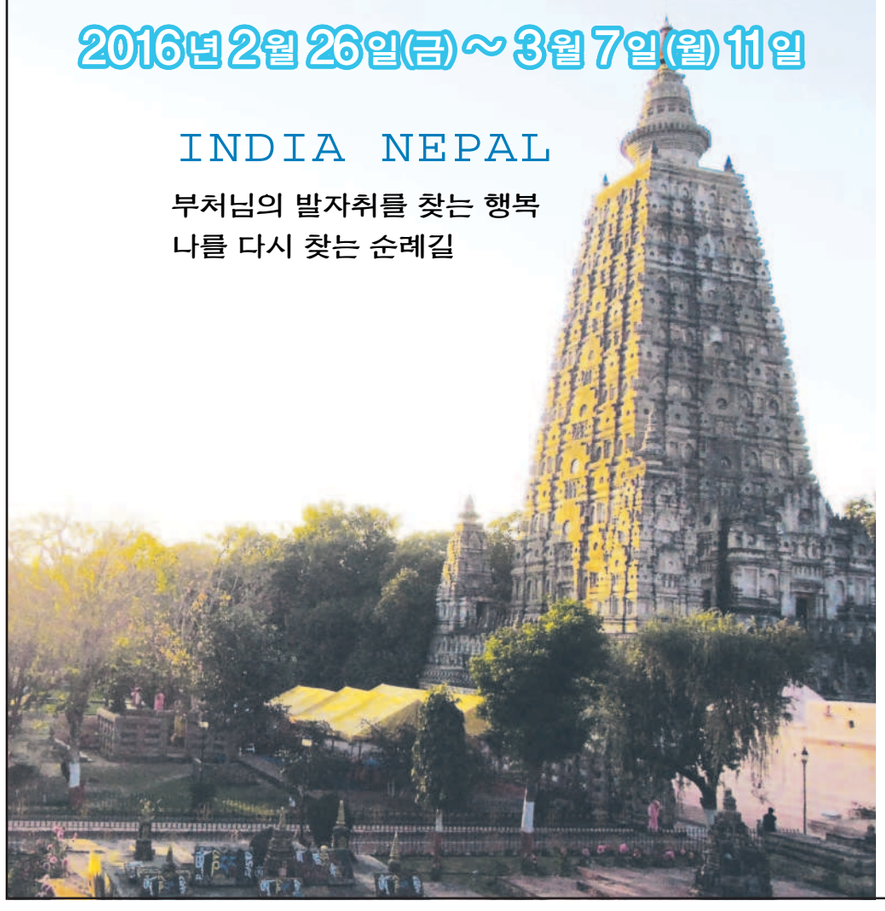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저서 〈추워도 향기를 팔지않는 매화처럼〉 외 다수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시
◇마음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가수, 보건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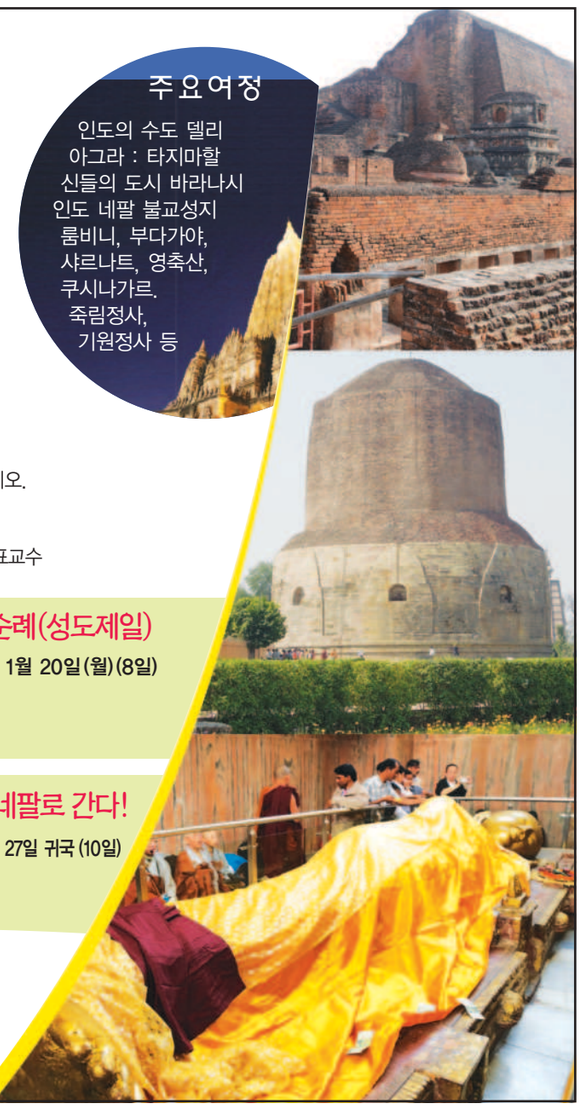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진동에 저절로 흔들이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주요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 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 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 – 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 귀국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성지 – 아그라 – 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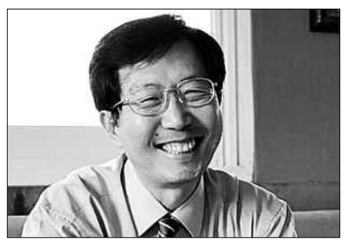
불타 BUDDHA BOHEMIAN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

‘SNS’로 부처님 말씀 실어 나르자!

SNS서 포교하는 사이버전법단 ‘주목’

불법 홍포를 위해 재가자들이 현대인들의 소통 공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에 뛰어든다. 부처님 말씀이 ‘좋아요(Like it)’를 타고 전 세계와 전 세대로 퍼져가는 것이다. ‘좋아요(Like it)’는 SNS 사용자들이 유익하거나 읽고 싶은 게시물에 클릭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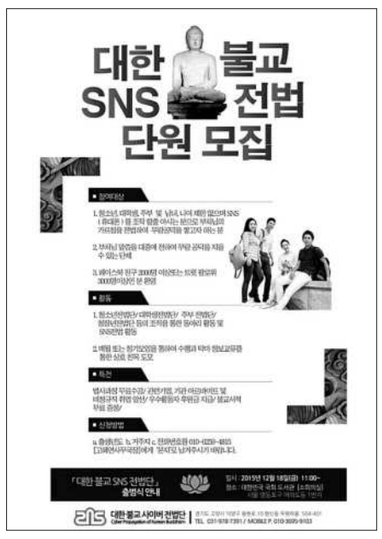
‘대한불교사이버전법단(단장 엄재삼, 이하 사이버전법단)’은 이러한 SNS 상에서 포교와 전법을 이루기 위해 탄생했다. 부처님 가르침 혹은 수행담을 전법단에 나누고, 이를 각각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SNS계정에 부처님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을 한 데 아우르는 시도는 처음이다.


엄재삼 대한불교사이버전법단장

SNS이용 불자 조직화해
불경 · 수행담 등 계정에 공유
월 2회 정기모임서 콘텐츠 개발
12월 18일 국회서 ‘공식 출범’

엄재삼 단장은 출범 취지에 대해 “청년 불자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문화와 대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면서 “지금 불교는 2600년 전 언어로 포교하고 있다. 시대와 사람이 변했으면 불교도 ‘현대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법단 구성원 모두 한 명의 포교사가 되어 자부심과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엄 단장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매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수행과 탁마 등 정보교류와 토론 등 실시한다. 토론 주제는 경전, 수행 등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당면과제 등 다양하다.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각자 SNS에 공유하면서 사이버 전법 콘텐츠를 양산한다.



‘SNS’에 불교 가르침과 수행담 등 공유하며 전법 · 포교하는 ‘대한불교사이버전법단’이 출범한다. 이에 사이버전법단은 단원을 모집 중이다.

특히 한국 불교에 대한 비판 및 견제 기능도 꾀할 계획이다. ‘초(超) 종교 · 초 종파’를 추구하며 순수 재가자들로만 구성한 것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엄 단장은 “비판 · 견제하며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야할 재가단체들의 활동이 예전만큼 활발치 않고, 간혹 비리 등으로 얼룩지는 등 병폐가 있다”면서 “전 세대 불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에선 다각적이며 현실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원칙은 삼보외호지만 불교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비판하며 신(新) 포교 유형을 생산할 것”이라 설명했다.

참여는 청소년,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들은 출생년도와 거주지,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고혜연 사무국장 010-6259-4815)를 보내면 사이버전법단의 일원이 된다.

현재는 150여 명 회원이 △청소년 전법단 △대학생 전법단 △주부 전법단 △청장년전법단 등으로 조직돼 SNS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엄 단장은 “현재 대학생 전법단은 약 30명 정도 있는데 더 많은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재가자들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포교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전법단은 1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신행 · 포교 소식

영어로 배우는 〈대승기신론〉 강좌

금강정진회, 12월 16일 승우당서 개강

지난 5개월 간 영어로 〈능엄경〉을 공부해 온 금강정진회가 이번엔 〈대승기신론〉 강좌에 나선다.

금강정진회(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배광식)는 12월 16일부터 서울 종로구 두산위브파빌리온에 위치한 승우당에서 ‘영어로 읽는 대승기신론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하께다(Hakeda, 1967)와 리처드(Richard, 1907)의 영역본 각 2종 등을 교재로,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진행한다.

강사로는 배광식 (사)참수레 이사장과 한창호 금강정진회장이 나선다. 배광식 이사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이며,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장, 도봉산 광륜사 신도회장, 서울대 교수불자회 회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창호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 재학 중이다. 저서로는 〈꽃과 쓰레기〉 〈셀프 컴패션〉 〈미국과 불교와 만남〉 등 있다.

금강정진회는 “〈대승기신론〉은 대승의 골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서 동양의 대승 불교권에서 중시하는 논서 중 하나”라면서 “대승의 중요한 경전과 논서들을 깊이있게 공부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실천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정진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어로 읽는 능엄경 강좌’를 실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예비 초등생에게 책가방 선물을”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 캠페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저소득가정 예비초등생 지원 캠페인 ‘선재의 선물’이 올 겨울에도 이어진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내년 1월까지 ‘선재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선재의 선물은 후원자 기부금 10만원이 모이면 1명의 아동에게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 도서 등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조손 · 다문화 · 한부모 · 저소득가정 등 총 1천명의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을 우리 아이들의 책가방 무게가 누구는 무겁고, 다른 누구는 가벼워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첫 책가방을 기다리는 아이들 모두 힘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후원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2009~2011년 4천500명의 예비초등생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했으며, 2012년부터 책가방 지원 캠페인을 실시해 2천700명에게 책가방을 지원했다. 후원참여는 아름다운동행홈페이지(http://dreaminus.org) 또는 농협 301-0077-7946-11(예금주:아름다운동행)으로 가능하다.

윤호섭 기자

대방사, 천일기도 및 산사음악회

11월 28일 사천 용각산 경내서… 5백여 명 참석

경남 사천시 용각산 대방사(주지 도안)는 11월 28일 미륵부처님 천일기도 및 찬불 산사 음악회를 '바람과의 동행'이란 주제로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지 도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륵부처님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나 한사람이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세계가 병들 수 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쯤 돌아보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이웃들의 자비로 이뤄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타행을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미륵세계가 도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운 경남 남부지사장

중신회, 청도 임원 연수

11월 27~29일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 논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27~29일 중국 청도에서 2015년 신도회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중앙신도회와 전국 17개 교구신도회, 16개 신도단체 등에서 72명이 참가했다.

임원연수 일행은 첫날 소청도와 1897년 독일 점령 당시 지어진 독일총독 관저 등 역사탐방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청도도량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종단 신도조직 비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전국적으로 교구신도회가 결성된 만큼, 2016년부터는 신도회간 연계사업을 본격 실시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현안에 맞도록 실천하고 구현하는 불자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노덕현 기자



“군불교 미래 위해 헌신할 터”

군종교구, 제47주년 군승의날 행사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27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4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 종회의원 혜자 스님,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 예비역 군승 권기종 법사,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조한규 육군 30사단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각원 허현구 공군 선임군승 법사는 발원문 봉독을 통해 “부루나의 후예로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서원과 정진을 다짐한다. 장병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군승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함께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포교의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27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4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통해 군포교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도안사 주지 혜자 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올해의 군승상’ 시상식이 열려 총무원장상 육군종합행정학교 재각 김재욱 법사, 포교원장상 육군 8군단 범망 정윤성 법사와 공군교육사 진흥 정연호 법사, 군종교구장상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진오 손기준 법사, 해군2함대 법종 성준모 법사, 육군 1기갑여단 지일 스님 등이 상을 받았다.

한편, 군종교구는 지난해부터 ‘군승의 날’ 행사를 외부 연회장을 빌리지 않고, 교구장 정우 스님이 창건한 일산 여래사에서 봉행하고 있다. 대관료 등 절약된 경비는 전방부대 군법당 불사에 지원된다.

한편, 이날 행사 직전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계사로 ‘군승 포살’과 함께 ‘순직 군승 합동추모재’가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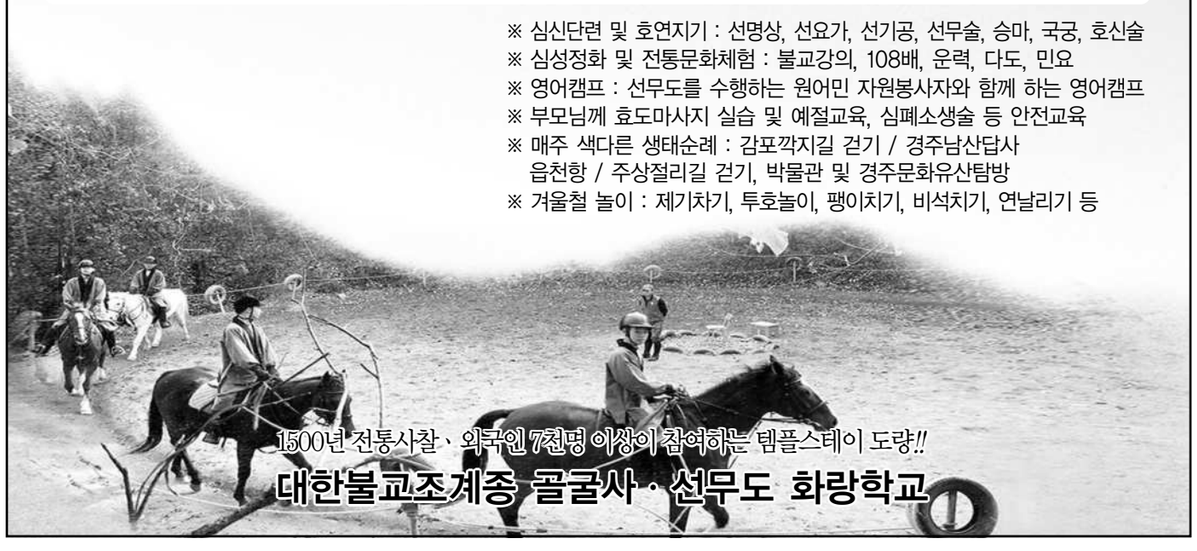
선무도 화랑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마지막 혼이 깃든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8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 언 제 : 2015년 12월 27일 ~ 2016년 1월 23일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 수련회비 : 1주 35만원 / 2주 70만원 / 3주 90만원 / 4주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 : 선명상,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승마, 국궁, 호신술
※ 심성정화 및 전통문화체험 : 불교강의, 108배, 운력, 다도, 민요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겨울철 놀이 :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등



포교 31주년 기념

선무도 지도자 속성과정 입학안내

부처님의 가르침인 ‘아나파나사티 명상(안반수의 · 지관)수행과 불교금강영관 선무도 대금강문 지도자 속성과정을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 35세 이하 고졸이상 건강한 남 · 여 (10명)
■ 교육기간 : 1년(초급), 3년(중급), 5년(고급, 법사)
■ 교육과목 : 불교학, 선무도, 승마, 영어, 전통문화
■ 입학신청 : 방문상담, 전화(054-744-1689), 인터넷(www.golgulsa.com), 이메일(d-kumkang@hanmail.net) 접수

※ 본 교육과정은 등록금 및 숙식비가 전액 무료이나 엄격한 계율과 사찰청규를 지켜야하며 각자의 소임으로 사중 일을 도와야합니다.

2015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골굴사
(재)선무도대금강문 · 선무도대학

“자기자비 통한 노화에 종단연구 필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송년모임 ‘좋은 인연’서
남석인 교수, ‘노인의 삶’ 주제로 발제



“불교철학이 종교적 의미를 떠나 생활과 문화 속에 상식으로 스며들어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자비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노인에게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고독감이 자기자비를 경유해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12월 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2015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모임 ‘좋은 인연’ 1부 세미나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울시내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중 만65세 이상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화와 노인의 삶의 질’을 발제했다. 그는 발제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긍정적 자기자비를 꼽았다.

남 교수는 “자기자비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기연민과는 달리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서 “자기자비의 긍정적 · 부정적 차원이 서로 다르게 고독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은 스스로 고독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감정으로 대변되는 긍정적 자기자비를 챙기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남 교수는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자기자비의 뿌리는 불교의 자비사상이다. 따라서 노인의 고독감이 자기자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한국노인의 궁극적인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도 자기자비 관점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장 희유 스님과 공로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 교수는 노인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력개발원 시범사업 노인재능나눔 △경북 의령군이 시작한 신 공동체사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을 예로 들며 “한국노인의 자기자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부 송년모임은 조계사 풍물패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봉사활동 및 후원활동 공로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날 총 158명에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 종로구청장상 · 노인복지공헌상 등을 수여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오늘은 하루 평균 112명의 자원봉사자와 500여 명의 정기후원자, 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후원자와 봉사자, 유관기관 등 많은 분들에게 1년간의 발자취를 알려 드리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김흥국장학재단, 23명에 1300만원 지원

오는 12일, 제16회 장학금 전달식

불자가수 김흥국 씨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16년째 보시행을 이어간다.

김흥국장학재단(이사장 김흥국)은 12월 12일 오전 12시 서울 대한가수협회 사무실에서 ‘제16회 장학금 전달식’을 연다.

올해 장학금 수혜자는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23명(초등학생 20명 · 원로가수 3명)이다. 지원금액은 총 1300만원으로 초등학생 각 50만원, 원로가수 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교육청 · 초등학교 등의 추천을 통해 모집했으며, 가정형편에 따라 선정했다. 김흥국장학재단은 올해까지 초등학생과 원로가수 포함 총 16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흥국 이사장은 “아이들 학업을 돕기 위해 16년째까지 장학금 전달식을 이어오는 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뒤로할 순 없었다”면서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학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국 이사장은 지난 8월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에 당선됐다. 윤호섭 기자

“복지관 텃밭서 수확한 농작물 경로당에”

은평노인福, 싱싱텃밭 나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가 공모한 사회복지시설 내 싱싱텃밭사업에 선정된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그간 땀 흘린 결실을 맺고, 지역사회에 기쁨을 나눴다.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1월 26일 관내 싱싱텃밭에서 배추 · 무 · 갓 · 상추 · 쪽파 · 시금치 등을 수확해 지역 경로당(수색할머니경로당 · 충암경로당)에 전달했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지난 9월 17일부터 7주간 복지관 내 유휴공간 214㎡(약 65평)에 텃밭을 조성해 원예치유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했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은 전문 원예치료사의 지도 아래 텃밭 관리 구획을 정하고 텃밭 이름, 작물명 등을 적어 푯말을 꽂았다. 이후 어르신들이 직접 텃밭을 관리하며 작물을 수확하는 결실을 맺었고, 작물 일부는 점심식사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전달해 정을 나눴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직접 수확한 작물을 지역경로당에 전달해 온정을 나눴다.

싱싱텃밭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운동프로그램에 5년 동안 참여하다가 관절염이 심해져 운동을 못해 적적했는데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싱싱텃밭에서 어르신들이 청정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수확의 기쁨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과 정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복지법인 연화원 13일 수화사랑음악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연화원(이사장 해성)은 오는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 ‘2015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수화사랑음악회는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수화를 포함한 음악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서로의 편견을 해소해 장애인의 자존감을 형성시키고자 했다.

행사는 1부 축하의 마당(후원의 밤)과 2부 수화사랑음악회로 구성됐다. 1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스님들의 축사 · 격려사, 점자〈묘법연화경〉 시각장애인 불자회 전달식, 자비의 쌀 및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2부 음악회는 △체중관리법 강의(스포츠트레이너 숀리) △이삼 스님 대금연주 △수화사랑합창단 수화공연 △삼진 · 지허 · 능인 · 정행 스님 찬불가 공연 등이 펼쳐진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 백사마을에 솜이불 200채

제2회 생명나눔 정 나누기
마가 스님 · 아웃사이더 동참

장기기증의 대중화 · 생명존중교육 등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달동네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27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솜이불 200채를 전달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행사는 동대부고의 헌혈증 전달식으로 문을 열었다. 박재원 동대부고 교장과 김승원 학생회장 등은 지난 1년간 모은 헌혈증 298장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하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동참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마가 스님과 가수 아웃사이더 · 주병선 씨는 “백사마을 주민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이불을 전달했다. 특히 학인스님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솜이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정성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정성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사마을은 성인 2명이 함께 서있기도 좁은 방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주민의 절반에 달한다. 마을에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아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하는 소외계층이 많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에도 백사마을에 솜이불 150채를 전달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중림복지관, ‘희망마차 식품나눔’

저소득어르신 100명 대상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경)은 서울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11월 27일 이마트가 후원하는 ‘희망마차 식품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희망마차사업은 시민참여 주도를 통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희망온돌사업의 일환이다. 푸드뱅크에 기부된 물품을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날 희망마차에는 이마트 본사직원 20명이 동참해 지역 저소득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물품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인당 7품목씩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했으며,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직접 물품을 포장해 배달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희망마차를 통해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림복지관은 같은 날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임직원들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 지역 저소득 가정 30곳에 김장 300kg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역사 속 불교, 국민 삶에 늘 깊숙이 자리 잡아”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불교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국가 정치와 국민 정서, 문화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때는 국교로 인정받기도 했고, 다른 시대에는 억압을 받으며 다양한 부침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린 ‘한국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에서 ‘한국 역사 속 불교문화의 위상’ 을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이 원장은 “불교는 역사에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면서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이배용 원장은… 1969년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동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1년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한 뒤 2006년 제13대 이화여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사학회장 · 조선시대사학회장 ·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 · 제3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인간은 예로부터 현실의 갈등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삶과 죽음의 갈등, 전쟁과 평화의 갈등, 소유와 욕망에 대한 갈등 등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서 상생과 구원 그리고 위안의 기능이 필요했고 샤머니즘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점차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타인에 의지해서 소망을 갈구하는 것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의지가 점차 발휘됐습니다. 분명한 교리에 근거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바로 불교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전개되고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의 불교 수용과 의미

한국 역사에서 불교는 고구려 제17대 소수림왕 2년(372년), 백제 제15대 침류왕 원년(384년), 신라 제23대 법흥왕 14년(527년)에 공인되었습니다. 불교는 그 시대의 사회적 · 국가적 요청에 의해 공인되었는데 그 배경은 첫째, 명실 공히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분리되는 고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상적 통일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둘째, 정복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불교의 형태로 공인되었습니다. 셋째, 치열한 전쟁의 각축기에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하는 내세 구원의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타율에 의한 구원보다 교리에 의한 자율적 깨달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불교는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고대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불교는 기존의 토착신앙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하면서 전래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외래종교이면서도 이전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찰 후원 영역에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이 배치된 것도 민간신앙과의 습합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새롭고도 다양한 국제문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시대 외국문화의 수용은 사신의 내왕과 더불어 승려의 외국유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삼국은 불교를 통해 당시의 국제문화를 폭넓게 접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문화발전에 품격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불교신앙이라는 공통분모를 삼국민 사이에 형성시킴으로써 동질성을 마련하였던 점입니다. 삼국은 서로 7세기 동안 분열, 대립함으로써 정치 ·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이질적인 것이 많았지만 불교라는 공통의 문화가 있어서 통일 이후의 민족융합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 불교가 담당했던 역사적 공헌은 큽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승려의 역할

삼국시대 승려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식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한자를 알았고 의술이나 토목 등 기술에 능한 이도 있었으며 음악이나 조각, 회화, 서예 등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남다른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라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승려가 많았습니다. 원광법사(555~638)의 세속오계(世俗五戒)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유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이라는 화랑도의 확실한 정체성과 자세를 심어주면서 불교신앙과 현실의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즉 불교의 원리는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해도 가려서 하라는 동기부여를 준 것이죠.

원효(617~686)는 귀족불교인 법성종의 종파를 이루었지만 여러 종파의 대립을 배격했습니다. 어려운 문자를 통한 불교 신앙의 접근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정토신앙을 전파하여 글자를 모르는 민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괴리감을 해소하여 불교를 통한 화합을 이루어냈고요. 원효는 당나라에 유학하지 않았으나 당에서 존경받는 승려였으며 100여종 240여 권의 저술을 남긴 뛰어난 학승이었습니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교학은 한국불교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상(625~702)은 당나라에서 화엄학을 배우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문무왕 16년(676)에는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사상을 전파하여 통일 직후 민족융합이나 사회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의상의 학문과 신앙체계는 신라사회에 두루 전파되어 의상의 10대 제자와 화엄십찰이 유명하죠.

자장은(590~658) 진골 출신으로 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하는 계율종을 확립했습니다. 636년 제자 10여 명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청량산의 문수보살상에 기도하고 가사와 부처의 발우 그리고 사구게(四句偈)를 받았습니다. 자장은 643년 귀국해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고 장륙존상을 건립했습니다.

민간신앙 흡수하며 자연스레 발전
승려, 지식층으로서 여러 분야 활동
조선 억불정책으로 위기 겪었지만
찬란한 문화유산 계승 · 발전돼야

고려의 건국과 선종의 사상적 배경

이후 신라 하대에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은 선종(禪宗)의 유행이었습니다. 선종은 경전에 의하여 그 종파를 구별하는 귀족불교의 교종(敎宗)과는 대조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즉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을 도야해 마음속에 불성을 찾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종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이탈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원리에 명분을 준 것입니다.

선종은 주로 6두품 세력과 지방의 호족들이 주도하여 소위 선문구산(禪門九山)이 각 지역에 성립되었습니다. 선종은 또 호족의 종교로서 성장하여 지방의 일반 백성들의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력을 얻어 고려 건국의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던 사회로 유교는 정치영역을, 불교는 생활과 정신영역을 담당하면서 이원적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고려왕건의 훈요십조를 보면 “우리 국가의 대업은 정녕 여러 부처님의 호위하는 힘에 의지한 것이다. 그런 고로 선(禪), 교(敎)의 사원을 세워 주지를 차견하여 분수케 하고 각기 그 업을 닦게 하라”는 불교를 육성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개경에만 70개에 이르는 사찰이 건립되고 팔관회, 연등회 등 각종 국가적 불교행사가 행해졌습니다.

1170년 무신의 난이 일어난 이후 고려불교는 산간불교화 되면서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무신정권 시대를 전후해서 선종의 9산은 종명을 새로 조계종이라 하고 진흥을 꾀하였습니다. 조계종의 세력을 크게 펼친 승려는 보조국사 지눌이죠. 돈오점수(頓悟漸修)를 내세웠는데 돈오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점수입니다.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불교문화

조선시대의 불교는 정치적 탄압에 의해 위축된 수난의 불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민중들에게는 종교적 위안과 용기를 주면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내세관이 없고 영혼의 구원 기능이 없는 현실 도덕사상이었기 때문에 1천여 년을 이어내려 온 불교의 종교적, 사상적 기능을 하루아침에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태조는 무학대사를 왕사로 삼았고 세종은 궁궐에 내불당을 지어 돌아간 이의 명복을 빌었고, 1446년 한글을 반포한 후 착수한 것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간행입니다. 세조 때는 원각사를 지어 현실고뇌의 위안 기능으로 삼았으며 불경 언해본을 출간했습니다. 왕릉 옆에는 명복을 비는 원찰이 항상 설치되었습니다. 명종 때 문정왕후는 보우를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시켰고 승과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선교 양종을 재정립하고 선종의 불사로는 봉은사를, 교종의 불사로는 봉선사를 삼는 등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다시 승려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산대사 휴정(1520~1604)은 선조의 부름을 받아 전국에 격문을 돌려서 각 처의 승려들이 구국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늙은 승려들은 절을 지키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부처에게 기원토록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통솔하여 전쟁터로 나가 나라를 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에 제자 처영(생몰년 미상)은 지리산에서 궐기해 권율의 휘하에서, 사명당 유정(1544~1610)은 금강사에서 1000여 명의 승군을 모아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유정은 문도 1500명의 의승을 순안 법흥사에 집결시키고 스스로 의승군을 통솔해 명나라 군사와 함께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정은 1593년 1월 평양성 탈환의 혈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그해 3월 서울 근교의 삼각산 전투에서 크게 전공을 세우자 선조는 선교양종판사를 제수했습니다.

인쇄문화의 발전과 종합예술로서의 불교

한국 인쇄문화 발전의 배경에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문자의 보급에 기여했고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승려들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종교의 전파자로서뿐 아니라 종합예술가로 공헌했는데 건축, 조각, 공예 등 모든 예술 창조의 중심에는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목판인쇄물인 8세기 중엽에 간행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입니다. 탑을 만드는 공덕을 강조한 이 경이 미타산과 법장에 의해 당나라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704년경이었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 속에서 발견된 이 인쇄물은 불국사가 창건되던 751년 무렵에 간행되어 탑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현종 대(代) 〈초조대장경판〉을 만들었으나 고종 대(1232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려 다시 대장경을 새긴 것이 ‘재조대장경판’ 이라고 하나 소위 팔만대장경입니다. 1236년부터 조성하여 16년 걸려 125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몽골군의 침입을 불력으로 격퇴하려는 민족적인 염원에서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판각하였으며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8만2천 경판에 8만4천 법문이 수록되었고 글자 총수는 약 5200만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편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우왕 3) 청주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이 그 초인본(初印本)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즉 사람이 눈을 외계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올바로 가지면서 참선하여 도를 깨우친다면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됨을 뜻합니다. 고려 말기 사회적 모순과 혼란을 정화시키려는 불교계의 정풍운동을 인쇄로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등 수많은 사찰에 조성된 석탑, 석등, 불화, 불상, 불교 공예의 종합적 불교예술은 한국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찰 건축들은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후기에 거의 중창불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찬란한 불교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어 세계인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한국인들의 삶과 내면적인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내일의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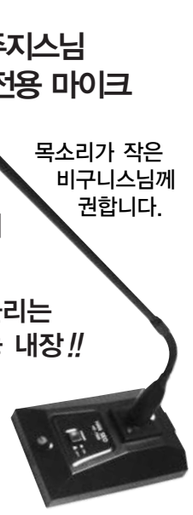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천하대도로 일체종교를 초월 만년말법을 지킬 약사미륵 달마묘법 팔품경으로 당신도 부처될 수 있는 불국정토 평화촌으로 남북통일 세계평화종교통일 만든다. 지구촌 천지개벽과 각종 질병을 넘어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진광도법 이생에 명부를 천부에 올려 수명이 늘어나 도인, 신선, 선녀 일류스승되는 금강진법의 루진통 대법회

진광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최대이슈 원, 방, 각, 해인도법의 잣대를 얻어 하늘땅 각종 종교에 감춰진 마음이 생명의 빛이 업에 쌓여 수행마장, 기도마장, 병마장으로 말과 글, 염불, 목탁, 참선, 각종수행으로는 마음과 생명이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지 못하는 초우주에 감추어진 마음에 문을 귀신도 모르는 진법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빛으로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자성, 즉 견성성불을 남여 노소 학력 나이 관계없이 비구니 보살도 성불 받을 수 있는 초능력으로 하늘에 도법을 부여받아 각종질병과 현재 부리는 신도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빛을보아 도를 통한 도인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인류스승으로 전법사, 포교사, 철학운명사, 건강관리사 자격을 얻어 포교원을 개원하는 일류 스승되는 진광도법 루진통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빛을 보는 도통군자 일류스승 되소서 이경신은 천서없이는 허주에 빙의되는 것이며 부처님께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는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신 천하 대도법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제일 :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해시
■ 해제일 :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세면도구,무박 2일
■ 입제비 : 10만원 (농협 029-02-167866 곽한영)

■ 유불선이 하나로 우주에 빛으로 눈과 두뇌를 열어 영육이 하나로 성불도통하는 묘법팔품경 출간 [값, 삼만오천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 3층 천지공사 유불선 십경신도통회 총본산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용천사 032)502-6625,6619 / 010-9292-3110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부평역하차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 부평시장역하차 1번 출구쪽 승강기 타시고 하이마트에서 시장쪽 횡단보도 건너 재래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아울렛DC 백화점 3층 용천사

"백제 수도 중심 기능, 사찰이 담당"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월 28일 사비도성 내 사찰 재조명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현재 부여)는 백제 부흥을 위해 준비된 계획도시였다. 이런 계획도시 기반에 사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학술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한국고대학회와 함께 11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비도성 내 사찰은 사비나성 내부에 15개소, 사비나성 외에 10개소 등 총 31개소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들 사찰 중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1월 28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사비도성 내 사찰의 발굴 성과가 공개됐다.

'군수리사', 사비도성 내 최초 사찰

탁경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사비도성 내 최초 사찰이 '군수리사'라고 밝혔다. 탁 연구관은 "538년부터 663년까지 130년간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에는 전 시기와는 달리 많은 사찰이 경영됐다"며 "이 많은 사찰 중 군수리사가 가장 빨리 축조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탁 학예연구관은 "현재 유구로는 금당지와 목탑지가 확인됐고, 그 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대를 판정할 수 있는 유물로는 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목탑지 출토 석조여래좌상과 금동여래입상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막새 자료는 수막새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탁 연구관은 "도성의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유물의 제작연대, 영조척 검토, 불탑 검토를 통해 군수리사지가 사비도성 사찰의 시작점에 있는 사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백제 최초 비구니 사찰, '동남리사'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일본과 신라와 후대까지 영향을 준 비구 · 비구니 사찰의 대칭형 구조를 밝혀냈다. 이 연구관은 동남리사지의 기와 조각과 탑 양식을 근거로 동남리사지가 군수리사지와 대칭을 이루는 최초의 비구니 사찰임을 밝혀냈다.

이 연구관은 "출토 기와를 기준으로 567년을 상한으로 6세기 4/4분기를 하한으로 한다. 동남리사지는 군수리사지와 같이 567년 능산리사지 조영 전후부터 577년 왕흥사지 조영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동남리사지에서는 목탑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비구니 사찰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일본과 신라 초기 사찰에서 보이는 비구 사찰과 비구니 사찰의 구조에서 비구니 사찰에는 흔히 불탑이 조영되지 않는다. 이를 미뤄 대칭인 동남리사는 비구니 사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지금까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일본과 신라에서 비구 사찰과 비구니 사찰의 대칭 건립 형식이 드러나지만 정작 백제에서는 발견된 것은 동남리사지가 최초"라고 평했다.

'정림사', 도심 중심시설 연결고리

정자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사비도성 내 정림사지가 사비도성 중심의 회랑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백제시대 정림사는 6세기 후엽 현재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일대가 대단위로 개발되며 공방단지였던 곳이 가람으로 변한 곳"이라며 "사비도성 내 강당 좌우에 회랑과 연결해 정림사가 조성됐고 이후의 백제 사비시기 가람배치의 전형으로서 자리 매김 됐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또 "정림사 목탑 조영, 석탑 축기부 축토 부분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백제 삼원 가람 배치가 시작된 '능사'

김종만 국립공주박물관 관장은 사비도성의 동쪽 나성에 위치한 '능사'를 조명했다. 김 관장은 "능사에서 발견된 유구와 유물을 검토해본 결과 사비시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금동제 고리, 토도류 중 삼각반입형 연화문와당과 복합문이 시문된 토기류 등 새로운 요소는 백제 삼원식 가람배치가 능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능사는 회랑이 나성과 능산리고분군까지 연결됐다. 북단에는 승방보다는 의례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다. 또 3실 구조의 통로부가 백제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한 예"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는 능사가 왕 사후 필요한 모든 제사시설 중 하나로 성왕 재위 시에 본인의 능을 조성하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행과 생활, 복합신행공간 '왕흥사'

정성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예배와 생활 수행공간이 함께 구성된 사찰로 왕흥사를 새롭게 조명했다. 왕흥사지는 현재 사비도성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도기 생산시설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 연구원은 "왕흥사는 기본적으로 예배공간을 중심에 두고 진입통로 공간과 생활수행공간이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돼있는데 이는 시기차를 두고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왕흥사가 사비도성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왕실사찰이라면 사비도성 정비체계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동편에 확인된 가마에서 제작된 기와 생산품들을 보면 왕흥사지의 운영체제가 독립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시대 경판만" vs "조선 · 일제시대도"

불교문화재硏, 11월 30일 '팔만대장경' 세미나서 학계 논쟁

"고려인들이 호국정신으로 만든 팔만대장경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 대장목록에 근거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덧붙인 경판들은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팔만대장경은 후대에도 생생한 신앙대상이었습니다. 완결성을 위해 후대 경판도 당연히 대장경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전체 경판 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문화재청이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그 가치와 의미'에서는 학자들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오른쪽 사진〉

현재 공인된 팔만대장경 경판 수는 1915년 조선총독부 관리 오다 간지로의 조사 통계인 8만1258판으로 1962년 국보 지정이 이 수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10여년간 문화재청과 해인사 등의 조사에서 후대 추가된 경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원판 대신 새로 깎아 넣은 보각판 82판, 1915년 오다 간지로가 만든 보각판 18판, 오다가 만든 보각판을 1937년 다시 복제한 18판 등 118판이 원래 경판에 추가로 보태졌다. 전체 총 수도 94장 많은 8만1352판이다.

기조발표를 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고려 때 대장경목록에 없었는데도, 분류 편의상 일부러 대장경에 집어넣은 대장경 주석서, 고려 승려 균여의 저술 등을 포함한 '보유판' 15종 2739판을 제외해야 하며, 후대 보완해 넣은 중복 경판들도 목록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 한역대장경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뒤이어 발표한 최영호 동아대 교수, 김성수 청주대 교수는 "후대 경판도 신앙물로 대장경이 꾸준히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므로 일제시대 경판까지 대장경 목록에 넣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교수는 "일제시대 보각판의 경우 총독부가 일본 황실의 안녕과 만주국 황제 푸이에 대한 선물 등의 외교 목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별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냈다.

토론에서는 해인사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이 "모든 경판을 대장경으로 알고 수백년 예배해온 불자들의 오랜 신앙 관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선학원 이사장)이 11월 30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서울 정각사에서 제9회 학술상 수상식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법진 스님은 "선리연구원이라 이름한 것도 한국불교선리참구원으로 재단 허가를 받은 것에 연원한다. 당시 설립조사들의 뜻을 계승하고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양현문화재단에서 연구원 설립 처음부터 지금까지 학술상 및 우수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선리연구원 고문을 맡아주신 인환 스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시며 좌장을 맡아주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문 인환 스님은 축사를 통해 "꾸준히 학술상을 후원해주신 양현재단, 뜻있는 분원장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신심을 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9회 학술상 수상 경과보고 후 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술상(양현상)은 '삼론교학에 나타난 방편의 의미'의 조윤경 박사(서강대)가 수상했다. 조 박사에겐 5백만 원의 학술지원금이 함께 주어졌다.

우수상(보각상)은 '스리랑카 불교 영웅 둣타가마니 왕의 무용담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테라와다 불교에서 성전은 용인되는가?'의 김한상 박사(동국대)가, 또 우수상(보성상)엔 '반야경 범자 42문의 반야공성 고찰'의 강대현 박사(위덕대)가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겐 각 3백만 원의 학술지원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흥천사 42수 관음보살상, 현존 3점 국보 가치 충분"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재조명


흥천사 42수 천수관음보살상

서울 흥천사가 소장하고 있는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 당시 도상특징과 신앙경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만한 가치가 높다는 학술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서울 흥천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3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흥천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조선 초기인 1450년대 조성된 것으로 흥천사 불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흥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편년과 역사적 의의' 주제의 기조발제를 맡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42수 관음보살상은 신라 분황사 벽화로 그려진 것이 처음 등장한 예로, 이후 많은 상이 조성됐지만 현존하는 예는 극히 희귀하다"고 42수 관음보살상의 의미를 평가했다.

문 명예교수에 따르면 현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2수 상 및 안국동의 개인소장 상, 기메박물관 소장 상 등 3점 만이 남아있다.

문 명예교수는 "이번 흥천사 불상 만이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원등을 살펴보면 국가장인이 조성해 당시 왕실사원인 흥천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문 명예교수는 또 "이 불상은 1450년 전후 티베트계 명양식 보살상과 가장 흡사해 당시 장신의 늘씬한 양식을 대표하기도 한다.그 희귀성에 귀중할 뿐더러 조선 초기 신앙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사상과 신앙'을 발제한 유근자 동국대 교수는 에서 조선 초 간행된 〈오대진언〉에 수록된 '42수인과 진언'에 주목했다.

유 교수는 "15세기 불교신앙은 진언 수행이 한 축이었다. 조선시대 이르러 42진언과 함께 42수 천수관음 조성이 보편화됐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상원사 문수동자상 속 〈오대진언〉 속 42수인도는 조선 초 천수관음 신앙과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했다.

주수완 고려대 교수는 '흥천사 사십이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조성기법'을,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흥천사의 역사와 건축의 유래'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광주전남불교환경聯 대표 이취임

신임대표 시각 스님… 에코템플 만들기 등 추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1월 28일 광주 수자타에서 '2015정기총회 및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대표로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 사진)의 취임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설운 스님(순천 선암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오후 4시부터 정기총회를 통해 감사보고 · 2015년 사업보고 · 2016년 사업계획 · 신임 상임대표 추인 등을 결의했다. 이어 5시부터 상임대표 이 · 취임식 행사와 회원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취임한 시각 스님은 광주 빛고을 관등회 봉축기획단장을 3년간 이끌고 있으며, 태고종 종회의원, 태고종 광주전남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에 앞서 8년간 상임대표를 역임한 법일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상임대표에서는 물러나지만 공동대표로 뜻을 모으며 불교환경연대가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단체로의 자기역할과 소명을 다해가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회고와 바람을 말했다.

이날 환경연대는 불교의례에 이어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에 200만원 상당의 환경책 160여 권을 전달하고, 관련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총회자료집을 통해 1080회원사업, 회의체계 시스템화, 에코템플 만들기 사업, 환경법회, 탈핵 및 대안에너지 활동사업 등 2016년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실 6탄약창 장영사 수계법회



전북 내 군 법당 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가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 장영사는 11월 29일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단장, 강석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와 위문공연을 펼쳤다.

박상용 대위 외 135명의 새내기 불자들은 도영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십선계를 수지하고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며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도영 스님은 "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다"며 "불교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만 여든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실천행을 강조했다.

스님은 호국 장영사가 나란다 축제에서 개인과 단체 모두 대상을 수상한 것을 치하하고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천사, 기도 수익금 불우이웃에 기탁



순창 강천사가 천일기도를 입재하며 발생한 기도수익금 전액을 지역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11월 27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황숙주 군수에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3백만원과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라면 100상자(2백만원상당)를 기탁했다.

종고 스님은 "지난 9월 강천사에 부임한 후 천일기도를 입재했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기도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천사는 지난 11월 21일 '강천사 예가람 복원불사 기원 천일기도'를 입재하고 매일 네 차례 정진하는 사분정진이 진행중이다. 강천사는 천일기도입재를 계기로 다양한 도량정비를 통해 사격을 일신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석탑 사리 다시 제자리로

금산사, 미륵사지 보수 현장서 사리봉안식



전라북도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국립문화재 연구소, 익산시, 금산사는 12월 3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에서 '불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지난 2009년 1월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보수정비사업 중 발견돼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리장엄이 다시 미륵사지 석탑에 봉안됐다.

전라북도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국립문화재 연구소, 익산시, 금산사는 12월 3일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에서 '불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미륵사지! 새 희망을 염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봉안식에는 사리 13과, 불사리 장엄구 복제품 8건 1,036점, 수리기 1점. 발원문 1점 등 총 11건 1,051점이 봉안됐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주지 성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전회 스님들을 비롯한 스님들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한응재 익산시장 대행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열린 불사리 친견 및 이운 고불식에서는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전회 스님들의 이운의식에 이어 사리친견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자들의 친견을 마친 사리 13과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등 금산사 대중스님들에 의해 사리장엄구에 봉안의식을 마쳤다.

이어 불사리와 사리 장엄구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따라 만장과 각종 번을 앞세우고 익산불교신도회와 포교사들에 의

사리 13과 · 수리기 등 塔 속으로
불교계 등 사부대중 1천명 참석
"평화 · 자비로운 세상되도록" 발원

해 미륵사지 석탑 현장으로 이운됐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백제인들은 미륵사를 세우며 부처와 진리가 하나되는 불국정토를 발원했다"며 "불국정토는 나와 이웃, 왕과 백성, 겨레와 국가가 하나되는 평화로운 세상이자 우리가 개척해야할 희망찬 미래이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 재봉안을 계기로 온 누리에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사리를 다시 봉안하면서 우리는 이 탑이 오래도록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백제인들이 이 탑을 세웠을 때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처음 해체공사를 시작한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는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 중 △금동제 사리 외호(金銅製 舍利 外壺) 1점 △금제 사리 내호(金製 舍利內壺) 1점 △금제 사리 봉영기(金製 舍利奉迎記) 1점 △은제 관식(銀製 冠飾) 2점 △청동합(靑銅盒) 6점 △각종 구슬(금, 진주, 유리, 마노) 9,700여 점 등 총 9,9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전 콘크리트를 제거한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산 중심으로 송광사 위상 재조명해야"

송광사, 3일 순천대서 암자 정비활용 세미나

전란 거치며 폐사 다수
송광사 · 암자 관계 규명해야
'명승종합정비계획" 우선 필요



조계총림 송광사는 12월 3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송광사 산내 암자의 성격과 정비활용'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유명사찰에는 의례 산내암자가 있기 마련이다. 본찰과 더불어 수 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동안 같은 수행도량으로 이어온 암자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뤄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송광사에도 원래 16개의 암자가 있었지만 근래 8개 암자만 있다. 이에 대한 고증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는 12월 3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송광사 산내 암자의 성격과 정비활용'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무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광사에는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발굴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한 학술대회는 △'송광사 산내 암자의 창건과 변천'에 대한 배상현(동서문물연구원 역사연구실장) △'송광사 산내 암자의 현황과 유적 유물'에 대한 최인선(순천대학교 교수) △'송광사 산내 암자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임석규(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 △'송광사 보조암지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에 대한 이수경(민족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과장)의 주제발표와 김명진(경북대학교 강사), 엄기표(단국대학교 교수), 장여동(순천시 학예연구사), 이은석(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의 토론을 진행했다.

배상현 연구실장은 발표문을 통해 "송광사는 16개 암자가 있었다는 구전이 있지만, 유물로는 15개의 암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란의 피해와 복구되지 못한 암자를 봤을 때 더 많은 암자가 존재했을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임석규 연구실장은 "송광사 암자터의 정비와 활용은 개별 암자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전제는 조계산을 중심으로 성립된 한국 불교의 역사와 그 안에서의 송광사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송광사와 암자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명승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종합복지관 농촌 체험프로그램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오던 2015년 지역맞춤형복지프로그램이 11월 김장나누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지역맞춤형복지프로그램은 농촌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감소해가는 농민과 고령화로 인해 정적인 마을에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과 유아의 소통 및 자연친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70명의 주민이 참여한 이번 맞춤형 프로그램은 지역 내 6~7세 유아 82명을 대상으로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형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매월 2회씩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32명), 해리어린이집(32명), 대산동화나라어린이집(20명) 등 6세~7세 유아가 참여하여 마을주민과 1대1, 또는 1대2로 각각 짝이 되어 개별 텃밭 가꾸기, 자연관찰, 고구마, 야채 수확체험, 김장 등 다채로운 농촌체험을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소유한 농지 무료임대와 무료 수확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화엄 장엄의 바다로 초대합니다”

통도사 12월 11일~1월 9일 화엄산림대법회

30여 스님 초대법문 예정
매주 토요일엔 ‘법성게’ 법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 화엄산림대법회가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30일 동안 대강백 스님들의 릴레이 초대 법석으로 이어지는 이번 법회는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월 22일 입재식은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의 법어로 시작해 오후 2시에 전 통도사 강주였던 우진 스님의 ‘화엄경 현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회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 원로의원 월파 스님,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을 비롯해 30여 대강백 스님들의 초대법문이 이어지며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마무리된다.

법회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법성게’라고 불리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다. 법성게 법석은 화엄산림에 동참한 대중들이 법성게를 독송하며 반야용선에 연결된 긴 끈을 잡고 법성도 모양으로 돌며 영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화엄산림 기간 동안 모신 영가 위패와 반야용선은 회향 법회 후 함께 태운다.

통도사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모아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선재동자의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자 한다”며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1971년 12월 경봉 스님(1892~1982)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매년 영남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불기2559(2015)년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문 화엄경 현담	12/11(금)	원명지종스님(통도사 방장) 우진스님(前통도사 강주)
세주묘엄품	12(토)	혜남스님(통도사 율주)
여래현상품/보현삼매품	13(일)	자광스님(前 직지사주지)
세계성취품	14(월)	성우스님 (전계대화상, 불교BTN사장)
화장세계품	15(화)	보선스님(대흥사 회주)
비로자나품	16(수)	경성스님(해인사 율주)
여래명호품/사성제품	17(목)	덕민스님(불국사 학장)
광명각품/보살문명품	18(금)	수진스님 (동명대석좌교수, 해인정사 주지)
정행품/현수품	19(토)	도업스님(동국대 명예 교수)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게찬품	20(일)	현해스님(월정사 회주)
십주품	21(월)	중선스님(수도암 감원)
범행품	22(화)	법산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초발심공덕품/명법품	23(수)	정인스님(승가대 교수)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24(목)	심산스님(홍법사 주지)
십행품/십무진장품	25(금)	혜인스님 (은해사, 약천사 회주)
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게찬품	12/26(토)	도일스님 (前송광사 율원장)
십회향품 1-5	27(일)	보광스님(前해인사강주,주지)
십회향품 6-10	28(월)	해거스님(금강선원 선원장)
십지품	29(화)	각성스님(前통도사 강주)
십정품	30(수)	정우스님 (前통도사 주지, 군종교구장)
십정십통품/십인품품	31(목)	현진스님(통도사 강주)
아승지품/여래수량품	1/1(금)	시명스님 (前해인사 통도사 교무 포교국장)
제보살주처품/불사부의법품	2(토)	원학스님(前봉은사 주지)
여래십신상해품 여래수호공덕품	3(일)	월파스님 (원로의원, 문수사주지)
보행현품	4(월)	법선스님(옥련암감원)
여래출현품	5(화)	화랑스님(동명불원 주지)
이세간품	6(수)	신공스님(창원구룡사 주지)
입법계품 (휴사우바니까지)	7(목)	종광스님(前기림사 주지)
입법계품 (비목구사~바산바연주야신)	8(금)	상우스님 (취운암감원,前부방장)
입법계품 회향법문	9(토)	영배스님(통도사 주지)

“울산지역 군포교 산실로 우뚝 서겠다”

울산 정토사, 11월 29일 ‘2015년 군인 및 경찰 위한 수계법회’


20년 넘게 울산 군포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토사(주지 덕진)가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20년 넘게 군장병 수계법회 진행
정토사 포교사 100여 명 군포교 활동
울산지역 군부대 법당 불사도 이어가

20년 넘게 군포교를 이어온 곳이 있다. 바로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다. 정토사는 매년 연말이면 군장병과 경찰들을 위한 수계식을 개최하고 있다.

11월 29일 정토사는 150여 군장병과 경찰들로 가득찼다. 정토사가 ‘2015년 울산지역 군인 경찰 수계법회 및 격려 위문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참석한 이들은 울산지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육군 7765부대, 공군 8146부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및 경관들이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은 계율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불제자로 살아 갈 것을 서원했다. 법회가 시작되자 대중들은 삼귀의와 함께 반야심경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발원한 그들의 눈빛은 엄숙했다. 연비를 받으며 어색함에 놀라는 것도 잠시 그들을 위해 함께 발원하는 포교사들의 도움 아래 수계 의식을 마쳤다.

정토사 불자들은 정성껏 뷔페를 마련해 이들의 수계를 축하했다. 떡, 과일, 떡볶이, 잡채, 채식 비빔밥 등 정성이 가득한 요리를 본 장병들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위문공연에서는 정토사불교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군포교 담당 문수·보현 팀의 연주, 정토사 난타팀, 장병 장기자랑 대회 등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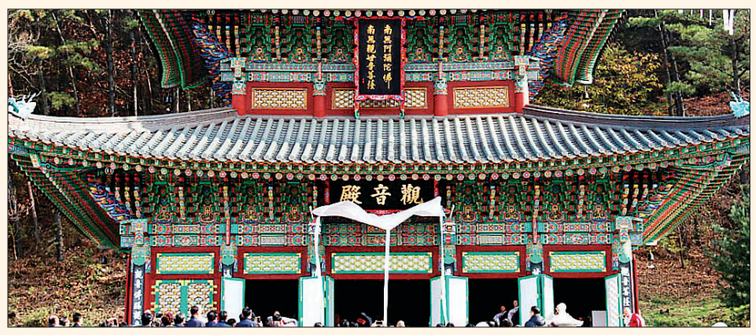
현재 정토사는 군포교를 위해 매년 수계식을 진행해 수계를 받은 장병이 총 26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1995년부터 7765부대 본부 53사단 1270연대를 시작으로 2011년 7765부대 3대대와 2대대에 법당을 불사했다. 아울러 4대대에서는 새 불상을 봉안하고 법회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어 울산에 있는 공군 부대를 비롯해 총 7개의 군부대에 정토사는 법당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당에서 매주 법회와 공연, 공양까지 군포교를 담당하는 문수·보현 포교사팀도 조직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참좋은세상(대표 덕진)이 봉사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활동비 후원은 정토사가 맡는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정토사 외에도 군포교 활동을 위해 힘을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타 종교의 적극적 포교 활동에 비하면 아직 미진한 편이 있다”며 “군포교를 위해 더욱 연합하고 노력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십시일반 불자 성원, 7년 불사를 완성하다

언양 양덕사, 11월 29일 ‘관음전 낙성법요식’


천태종 양덕사는 관음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언양 양덕사(주지 세운)가 관음기도도량으로 거듭났다. 양덕사는 11월 29일 관음전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양덕사는 2009년 12월 10일 관음전 불사를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5월 25일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낙성법회를 거행한 관음전의 불사 기간은 총 7년이다. 전통 목조양식의 중층 건물인 관음전은 50여 평이며 기존 관음전은 지관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원로원장 운덕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및 전국 천태불자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덕사는 관음전 낙성에 도움을 준 김청일 양덕사 신도회장, 이경숙 부회장 외 11명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낙성법요식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일심 정진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니 인연 맺은 모든 이들 불보살님 가피 가득하여라. 오직 하나 불심으로 정각도량 빛내어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양덕사 대중들은 불사에 동참한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고 정진해 장엄한 도량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양덕사 주지 세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도량을 건립하고 불보살님과 조사님들의 존상을 봉안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보호하고 실천해 영원한 안락을 누리기 위함이다”며 “여러 불자님들은 양덕사가 이러한 도량이 되도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성주 길조암 ‘정’ 나누기 김장 나눔 행사



성주 길조암(주지 보현)은 11월 28일 성주 용암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정을 나누는 사랑, 공경, 효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길조암 신도회(회장 류태호) 신도들이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담갔다. 길조암은 2008년부터 용암면 다문화 가족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및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과 연합회 총무 지원 스님 정혜사 청안 스님 천광정사 유산 스님 등 성주사암연합회원 스님 및 김창수 용암면장 이수경 경북도의원, 도정태 군의원, 길조암 신도회 회원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길조암 주지 보현 스님은 “소중한 만남의 인연이 참으로 행복하다”며 “이날까지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고귀한 삶에 조그마한 위안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도 “우리 시대 화두인 부처님의 자비행을 불자들이 몸소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한뮤직 오광현 악단의 공연도 함께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용호종합복지관, 어울림 孝한마당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1월 27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부산지회 가수분과위원회(위원장 노명호)와 함께 복지관에서 ‘어울림 효 한마당’을 개최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부산지회 가수분과위원회의 후원 및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저소득 결식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와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어울림 효 한마당’ 공연으로 진행됐다.

‘어울림 효 한마당’은 식사후원, 생신상차림, 선물제공 등 풍성한 선물 및 공양으로 준비됐으며 지역 내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가요, 민요, 각설이 타령, 국악,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저소득층 연탄 나눔



부산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는 11월 26일 부산의 대표적인 저소득계층 지역인 매축지 마을에서 ‘저소득층 이웃돕기 연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탄 전달식은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측이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구입비 및 후원금 1200만원을 전달하고 모금회가 부산연탄은행에서 2만 장의 연탄을 구입해 다시 스님과 불자들이 연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승가연합회 측에서는 경담 스님을 비롯해 도문 스님, 성문 스님 등 회원 스님들이 참가해 매축지마을 20가구에 각 100장씩 2000장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대중의 言’ 공론화… 종책 반영 ‘숙제’

100인 대중공사 성과와 과제

“오늘의 대중공사는 실속 없는 겉치장이 아니며, 이 자리에 참석한 대중공사 위원들 모두 주인공이자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종단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이에 따른 선입견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요, 이 시대 우리가 풀어가야 할 화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마다 가슴 속에 내재돼 있는 지나친 고정관념을 과감히 걷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월 28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일성(一聲)이다.

종단 현실과 미래를 참가 위원에게 듣는 것으로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11월 25일까지 8개의 의제를 다뤘다. 위원들이 선택한 의제는 종단 현안부터 미래를 위한 사안까지 다양했고 중간에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판결 파문을 다루는 파격도 보였다.

대중 공론의 장을 만들다

무엇보다 100인 대중공사 최대 성과는 수면 아래로 침잠돼 있던 대중들의 목소리를 종단 제도권 안으로 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가겠다는 대중공사의 토론 방식에서 기인한다.

실제 △대중공사를 하는 동안 나이 · 지위 · 승속을 넘어 평등하게 말하고 들을 것 △도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의견은 허심탄회하게 말할 것 △나 혼자 이야기 시간을 독점하지 않을 것 △진행자의 안내를 잘 따를 것 등은 매회 대중공사에게 꼭 지켜야 하는 룰이었다.

대중의 말과 뜻이 반영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5차 대중공사였다.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5차 대중공사에서는 본래 있던 의제를 뒤로 미루고 ‘종단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에 대해 사부대중이 격론을 펼쳤다.

당시 대중공사 참가자들은 전체, 모둠 토론 등 8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재심 결정이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냈다. 또한 “재심호계위원들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재심호계원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재심호계위원들은 모두 사퇴했다.

100인 대중공사에서 이뤄진 일련의 결의사항과 후속 조치도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다수 있었다.

3차 대중공사에서 결의됐던 ‘사찰 재정 투명화’의 후속 조치로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원 이상 사찰(4등급)은 종헌 제124조 및 사찰운영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제 및 후속 조치

차수	일시	의 제	결의사안 및 후속 조치
1차	1월 28일	100인 위원에게 듣다	1년 동안 대중공사서 다룰 8대 의제 결정
2차	2월 24일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종단 내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현재 중앙종무기관 내 업무 추진 중.
3차	3월 25일	사찰 재정 투명화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예산 30억 이상 사찰 예산 공개 결의.
4차	4월 29일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승가청규, 4대 의제 10대 과제 적극 실천. 종단쇄신위서 성안한 승가청규 종단 시행
5차	7월 29일	종단 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	잘못된 판결. 호계원장 사퇴 권고. 종단 과거사 문제 논의. 종단화합과 개혁위한 사부대중위 구성
6차	8월 26일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조성. 대중공사 교구 및 지역 확대
7차	9월 23일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승가공동체 구현. 범계 사안 신속 대응
8차	10월 28일	사찰과 지역공동체	불교적 방식의 사회적 역할 고민. 출재가 사회활동가 양성.
9차	11월 25일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	귀농 · 귀촌인 등 주목. 사찰, 신앙공동체로 다시 되살아 나야

1월 28일 시작… 8대 의제 다뤄

‘서의현 재심’ 논의, 대중 힘 보여

“뒤 아닌 앞에서 말하자” 성과 커

‘말의 성찬’ 안되려면 실효성 중요

14일 회향식… 내년 ‘시즌2’ 예정

위원법 제6조에 의거해 사찰 재정을 공개키로 했다. 공개 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이며 방법은 사찰운영위원회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미이행 사찰에게는 주지 재임 불가를 비롯해 각종 승인업무 보류 · 특별 감사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판결 이후 이뤄진 5차 대중공사를 통해서는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분과 · 1994년 멸빈 처리 분과 · 종단개혁 계승 분과로 나뉘어 현재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4회, 워크숍 3회를 진행했다.

향후 분과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권역별 공청회, 계층별 간담회 등을 계획 중에 있다.

일련의 성과에 대해 대중공사 추진위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는 불교계 토론 문화 증진에 큰 전환점”이라면서 “대중들이 얼마나 소통을 염원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증진시킨 것만으로도 변화의 기틀은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신호승 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는 “‘총무원장은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묵묵히 듣고 있는 모습에서 불교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올해 대중공사에서 의논된 사항이 향후 종단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집행되는가는 향후 대중공사가 불교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이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가 극복해야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들의 적절한 이행이 당면 과제다. 논의 의제들이 다수 추상적이다보니 결의 역시 비슷하게 이뤄져 종책 반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정책적 피로도가 높아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 인원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2차 대중공사 결의의 후속조치인 미래세대위원회의 경우 처음 주무부서는 포교원이었으나 현재는 기획실로 사업이 이첩됐다. 예산 배정이 이뤄졌으나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가 명징하지 않다.

4차 대중공사의 후속조치로는 지난 9월 8일 종단쇄신위 산하 청규제정위가 성안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의 종단적 시행을 밝혔지만, 청규를 어떻게 보급하고 실천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는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대중공사는 대중의 공의를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모아진 공의가 실천되고 실행되기까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대중의 공의를 모아 좋은 결과를 낸 만큼 실행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당면 문제의 후속조치는 신속히 실행돼야 하고, 교리 · 사상적 문제는 결론을 확인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중공사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고 처리돼도 중앙종회 등의 반발이 크다. 대중공사 기구를 종법이나 종령 기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즌2’ 변화하나

100인 대중공사는 오는 12월 14일 회향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즌2’ 선포 등의 계획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 대중들 역시 88.8%가 대중공사의 지속 여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들 중 53%는 ‘대중공사는 지속하되 구성 · 의제 · 진행방법 · 결의사항 모니터링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일감 스님은 “내년 ‘시즌2’는 분기별 추진과 장기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의 토론 방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 교구본사 · 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중공사서 어떤 발언이 오갔나

걸림없는 말들, 변화의 씨앗이 되다

총 9차에 걸쳐 이뤄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참가자들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다. 종단 비판과 상찬 등 너무나 다양했던 참가자들의 말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각도를 5도만 틀어보십시오. 처음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간극은 엄청납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각도를 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전등불 켰다 끄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스님들은 좌복 위에서 죽을 각오로 수행하거나 길 위에서 죽을 각오로 포교를 해야겠다는 서원이 없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며 죽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사라는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 2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인 대중공사는 결사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1차 대중공사 분임토의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법회를 보는 모습이 1960년대 모습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어린이법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어린이 포교는 20년은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에 나가 다시 사찰에 오기 까지의 시간입니다.” 〈2차 대중공사 분임토의서 총무부장 지현 스님〉

“‘조고각하(照顧脚下)’를 쉽게 ‘발밑을 잘 살펴보라’고 알고 있지만, ‘삼불야화’라는 화두로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 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로 종단 불신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뼈아픈 자기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오늘, 나로부터 성찰해 변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종단과 불교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발전적인 공의를 모아달라.” 〈4차 대중공사 여는 말 전국선원수좌회장 철산 스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비롯됐고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판세력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중공의를 모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4차 대중공사 전체 토의서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친소 관계에 따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판결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종단 질서가 무너집니다. 재심 결정은 호계원이 단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공의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책임은 현 행정 수반과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5차 대중공사 전체 토론서 서울 여의도포교원 주지 현진 스님〉

“재가 대중이 불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재가 단체들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접근해 교계 언론에서는 비판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들을 보면 사찰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귀족적 신행 생활을 합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재가는 재가답게 정말 열심히 산다면 불교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6차 대중공사 전체 토론서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

“불교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의처가 돼야 합니다. 현재 불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스님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는 젊은이가 적겠습니까. 사찰에 오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스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6차 대중공사 전체 토론서 오원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28일 열린 1차 대중공사 분임토의에서 의제 선정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심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800원 (100개이상)



삼베 삼재풀이

@700원 (100개이상)



한지 삼재풀이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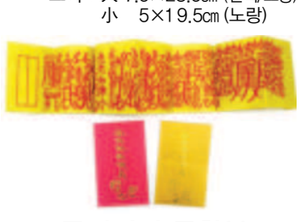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 (흰색/노랑)
小 5×19.5㎝ (노랑)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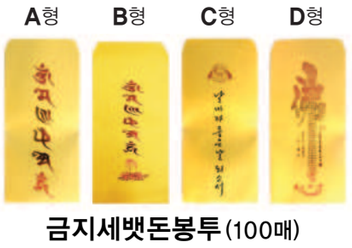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개당)
• 크 기 : 60×7㎝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A형 B형 C형 D형

한 지 봉 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 A : 흰색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B : 흰색 – 참 좋은 인연입니다.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A형 B형 C형 D형

금지세뱃돈봉투(100매)
판매가 A 12,000원 (8×16.5㎝)
B 12,000원 (8×16.5㎝)
C 12,000원 (8×16.5㎝)
D 12,000원 (8×16.5㎝)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0-3554-2988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건축
한국불교
불교건축 70년

1700년 속 70년 변화, 도심 사찰서 시작

한국사에서 '광복'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계기였다. 불교계 역시 종단, 단체, 신행, 복지,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양적 질적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전법의 장인 도량을 세우는 불사 역시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광복 후 70년 동안 불교건축(사찰건축)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이 땅에 절이 세워지고 1700년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도 1700년이 되어간다. 불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373년(소수림왕 3)에 성문사(省門寺)가 세워졌다는 기록과 〈삼국유사(三國遺事)〉에 375년(소수림왕 5)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세 곳의 절은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땅에 절이 세워진 이래 지속적으로 많은 불사가 이어져왔다.

2011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사찰 수는 26,791곳이다. 조선총독부의 1943년 통계 자료가 수록된 〈조선통계연감〉에 따르면 해방 당시 이 땅의 사찰과 포교소 수는 1,466곳이다. 광복 후 사찰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이 땅의 불교건축은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700년을 견딘 위대한 건축

현존하며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땅의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308년(충렬왕 34) 예산에 세워진 수덕사의 대웅전(국보 제49호)이다. 하지만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과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지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봉정사의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은 1972년과 1916년 해체 보수 때 발견된 문서에서 각각 1363(공민왕 12)년의 중수 기록과 1376년(고려 우왕 2)의 중창 기록이 있어 두 불사의 건립 연대는 100~150년 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불교건축의 역사는 700~800년이다. 우리의 불교와 불교건축이 시작된 성문사와 초문사, 이불란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일이겠지만 수덕사 대웅전이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이 남아 있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현대건축물의 수명을 생각하면 다행을 넘어 선조들에게 머리를 숙일 일이다.

새로운 건축의 시작, 도심사찰

해방 이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찰들이 많이 소실됐다. 전쟁이 끝난 후 1960년~1970년대에는 소실된 사찰의 복원불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1970년~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건축은 전기를 맞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전통적인 불사가 대세이기는 했지만 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사찰은 1970년~1980년대 생기기 시작한 도심사찰에서 시작된다.

1972년에 현대적 건축 양식을 도입해 혁신적인 불사라고 평가받은 한마음선원의 대한불교회관이 있었고, 1980년대 들어서 서울에 삼선포교원, 불광사, 구룡사, 능인선원 등 전통방식의 건축이 아닌 현대적 건축물의 도심 사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불교건축은 동국대 대각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등 1990년대로 이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어졌는데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통적인 목조건축이 아닌 현대적인 건물의 사찰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안성 도피안사, 일산 여래사, 담양 정토사, 인제 만해마을, 부산 안국선원, 논산 관동사, 안양 비웅사,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구 전통불교문화원),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국제선센터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건축불사가 이어졌다.

신 불교건축, 주변과의 조화로부터

1983년 3월 1일. 서울 동선동 주택가에 분황사 모전탑을 그대로 확대시킨(300평) 모양의 건축물이 등장했다. 불교건축사에 혁신적인 불사로 기록된 삼선포교원이다. 삼선포교원은 전통 벽돌 '전(塼)' 7만장을 쌓아올려 지었다. 건물 상부에는 신라 석탑을 올려놓아 전탑과 석탑의 합성 건물처럼 보인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 손정호 씨에 의하면 산사와는 달리 주택과 주택 사이에 도량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했다고 했다.

불교건축의 변화는 시대적 요청
분황사 모전탑 옮긴 삼선포교원
콘크리트벽의 도피안사 향적당
신행공간에 문화적 공간 더해

불교의 상징성 곳곳에 살아있고
전통 · 현대 공존하는 신건축 시도

"건물의 외형이 석탑의 형태이고 그 안에 법당을 앉혀야 하는 새로운 불사였습니다. 종교적인 상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형식의 불교건축은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2006년 안양에 세워진 비웅사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지어졌다. 콘크리트와 목재를 함께 사용한 현대적 건축의 비웅사 역시 주변과의 상생, 조화를 고민한 불사로 평가받고 있다.

1700년 재료의 변화 다양화

회색빛 콘크리트에 다홍빛 주련을 걸친, 건축잡지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건물이 산 중턱에 서있다. 2000년 안성에 세워진 도피안사의 향적당이다.

"보편적인 사찰건축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시대에 흔한 재료로, 이 시대에 적정한 절집을 짓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절은 이 시대에 지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절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축가 이일훈 씨는 향적당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었다. 설계를 의뢰했던 송암 스님도 "신라시대에 철근콘크리트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절을 지었을 것"이라며 불교건축물이 시대에 맞게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축가 이일훈 씨에게 향적당 설계를 의뢰했다.

우리 불교건축은 석굴암 등 일부 법당과 석탑, 석등 등 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목조건축물이었다. 1700년 가까이 이어온 건축의 재료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목조 일변도에서 구워낸 벽돌 등 전통을 활용한 재료와 석재와 콘크리트 철근 등 현대건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고도 성장하게 되었고, 현대화됐다. 사찰 건축 양식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돼 세워졌다. 사진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사찰들. 서울 삼선포교원(맨 위), 안양 한마음선원(두 번째 왼쪽),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두 번째 오른쪽), 탄허 기념박물관(세 번째 왼쪽), 목동 국제선센터(세 번째 오른쪽).

법당도 '디자인' 이어야

앞서 말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위대한 건축'으로 불린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세워지고 700년이 지난 2000년 11월 그 명품의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한다. 담양에 세워진 정토사 무량수전이다.

날아오를 것 같은 지붕의 추녀와 기대고 싶은 배흘림기둥은 없다. 하지만 외벽을 장식한 140개의 창호와 최소화된 직선의 베젤이 배흘림기둥과 추녀를 대신한다. 설계를 맡은 김개천 교수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시대인 만큼 법당 건축도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토사 무량수전이 단순히 '디자인'에서 끝나는 건축은 아니다. 법당 외벽 전체를 두르고 있는 140개의 창호를 동시에 열어젖히면 법당은 사라지고 산과 연못이 보인다. 실존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공과 색이 함께 하는 것이다. 설계자인 김 교수는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들어와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고 함께 조응하게 된다"고 했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불교의 '공(空)' 사상을 건축으로 해석한 새로운 사찰건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운 불교건축이 형식이나 재료 등에서 새로움을 시도했지만 1700년의 건축적인 전통과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을 잊은 것은 아니다. 1997년 지어진 서울의 동국대 대각전이나, 2003년 인제 만해마을, 2009년 서울 상도선원과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2010년 서울에 지어진 탄허기념박물관과 국제선센터 등 새롭게 시도된 신 건축 속에는 유구한 세월을 흘러온 전통과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종교적 공간에 문화적 공간을 더하다

2014년 천안에 세워진 황룡사에는 북카페가 있다. 또한 현대식 건물과 전통적인 모습의 대웅전이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현대식 건물에는 3미터에 달하는 긴 석재 처마가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통 기와의 처마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황룡사의 북카페는 문화친화적인 특별한 공간이다. 황룡사는 새로운 사찰건축 중에서도 또 다른 패러다임이다. 설계를 의뢰한 스님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절,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절을 생각했다.

서울의 법련사는 1996년에 상설 미술관(불일미술관)을 지었고, 2000년 일산에 세워진 여래사는 뮤지컬 전용극장이 있으며, 2009년 서울에 세워진 상도선원의 갤러리는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밖에 2009년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2010년 서울의 탄허기념박물관 등도 같은 맥락의 불사로 문화적인 공간이 더해진 현대적 건축물로서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의 모색이 반영된 새로운 건축이다.

변화는 시작됐다

"전통의 문화는 현대의 시간과 공간속에 결부되어 새로운 현대적 가치를 지닐 때 미래의 삶에도 의미와 효율을 지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건축가 김개천 교수는 앞으로의 우리 불교건축에 대해 말하면서 "시대적 기능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며 명분 없는 현대성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건축은 종교적 상징성이 건축의 중심을 이룬다. 상징성의 표현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이다.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불교건축이 지나온 세월에 비해 변화의 모색이 적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다. 하지만, 광복 이후 70, 80년대 경제성장으로 전국에 수많은 불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의 변화가 시작됐다. 1700년을 이어온 불교건축이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불교에겐 1700년의 역사가 있고, 700년 된 단단한 텍스트가 있다. 변화는 시작됐다. 위대한 텍스트 속에서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 변화는 분명 새로운 700년, 새로운 1700년을 위한 위대한 전통, 위대한 건축이 될 것이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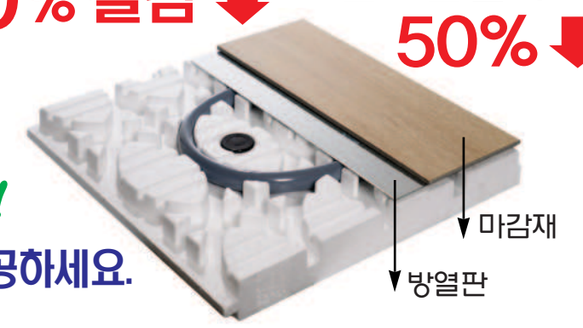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깨달음의 길서 욕망은 도반이자 친구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㉘ 일행에 합류한 저팔계

관음선원 야단법석을 치르고 몇 날 며칠을 부지런히 걸어 도착한 곳, 고(高)씨가 주로 사는 동네 고로장(高老庄)이란다. 그 마을에서도 행세깨나 하는 집, 고태공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큰 우환거리가 있다. 딸만 셋 둔 집안이라 막내딸은 데릴사위를 맞으려 했는데 마침 준수한 신랑감이 나타났더라나?

그래서 얼른 데릴사위로 들였는네 참으로 힘도 좋고 부지런했더라.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모습이 변하더라나?

완전히 돼지 모습으로 변하고 거기에 도술까지 부려대고 우리 귀여운 딸 뒷방에 가둬놓고 얼굴도 못 보게 하니 무섭고 겁나서 살길이 없다네.

간절하게 이 우환을 해결해 달라는 고태공의 부탁에 손오공 가슴을 팡팡~ 두드린다.

이 제천대성 손오공만 믿으시라. 마침 요괴사위 없는 틈에 딸을 구해내고 손오공 딸 모습으로 둔갑하여 요괴사위를 기다린다. 밤이 이슥하니 과연 일진광풍과 함께 요괴사위 등장~

손오공과 요괴사위 쓰담쓰담 오호호홍~~그랬을 턱이~~~~ 없지

이리저리 수단 부려 요괴의 주민등록지 캐내곤 결국 한바탕 드잡이가 붙는다. 알고 보니 요괴의 신분도 범상치 않다. 도술을 배워 신선의 반열에 올라 하늘나라에서 천봉원수라는 직책까지 받았던 귀하신 분. 식욕과 색욕을 통제 못하는 것이 병이라 술 먹고 월궁항아에게 성추행을 벌인 죄로 이 세계로 떨어지신 분.

제천대성으로 날뛰며 분탕질 치던 손오공 과거일도 아는 요괴라 싸우며 정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정체 파악되고 관세음보살 부촉 받고 현장법사 기다리고 있었다는 요괴 신세타령도 나오니 이 요괴 잡이도 뒤가 싱겁게 끝나고 만다.

손오공이 요괴 귀 끌고 삼장법사에게 데려오니 상황 끝! 관세음보살이 요괴에게 붙여준 오능(悟能)이란 법명과는 별개로 여덟 가지 계행을 계속 지키라는 의미로 팔계라는 이름을 주니 본래 성씨가 저(猪:돼지)씨이니 저팔계(猪八戒)라! 드디어 서유기 삼총사 가운데 둘째를 맞았구나!

이제 저팔계를 맞는 대목이군요. 손오공이 영민한 재주와 칼칼한 성질 등으로 알려져 있다면 저팔계는 어떻게 알려져 있지요? 먹을 것과 여자라면 전혀 자제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도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팔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손오공보다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저팔계이기도 하지요. 아마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이 저팔계이기에, 어떤 때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갑갑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저팔계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저팔계는 이미 관세음보살이 중국으로 오는 길에 인도로 불경 가지러 오는 이를 위해 안배를 해 놓은 도우미이지요. 오능(悟能)이라는 법명도 주었고요. 능력을 깨닫는다는 뜻이 되나요? 아무튼 그런 도우미로 준비된 존재인데 그렇게 평탄하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서유기에 어디 쉽고 평탄하게 되는 일 하나 있던가요? 모든 것은 고생을 겪으며 얻어야 그 값이 나간다는 것이 서유기 저자의 기본 철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늘 일이 꼬이곤 하지요. 그리고 이 저팔계는 애당초 그리 쉽게 만날 존재가 아닌 듯 하기도 하구요.

저팔계가 대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도 쉽게 짐작하실 거 같네요. 돼지의 외모를 통해서 상상이 되는 것, 바로 욕망 또는 탐욕이라 부르는 영역이겠지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돼지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돼지에게는 꽤 미안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돼지가 매우 영리하고 또 깨끗하다는 설도 있구요. (나칠계씨 쪽을 안쳐다보려고 애쓰면서도 자꾸 힐끔 힐끔 눈치를 보게 되는 삼쾌선생)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 그에 따를 밖에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이미 서유기가 씌여지던 시절부터 있었던 거 같으니, 돼지의 본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여겨졌다면 다 이유기 있을 터이니까요.

고로장의 돼지 요괴를 사로잡다
8가지 계를 지키란 의미에서 팔계
손오공을 보좌하는 수행 도우미



그림 · 최주현

이 욕망, 탐욕이 어디 길이 잘 드는 것이던가요? 이미 보살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가기로 했지만, 그 사이 벌써 딴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려. 그딴 짓이라는 것이 정말 맹랑한 짓~. 고태공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꽃다운 처자의 신랑노름을 하고 있네요. 저팔계로서야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고 우길 만합니다. 힘쓰고 도술 써서 처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고 우길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저팔계의 외모군요. 완전히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용납이 된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존재를 어느 정도로 우리 속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러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런 정도의 선이라면 우리도 함께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 속으로 받아들어야 되는 경우,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해주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야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게 마련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들끼리의 울타리, 나와 다른 존재들을 차단하기 위한 벽…그런 것들을 무수히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벽들이 강고하게 자리잡아 마땅히 함께해야 할 존재들까지 그 벽 밖으로 내치려 하게 되면 큰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이구요. 그렇기에 가능하면 그런 울타리들과 벽을 허물어가면서 살려고 해 보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유능한 성주는 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왕래를 시키면서도 성을 잘 다스린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네 대문 닫아걸고, 통행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울타리와 벽을 쌓아가는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울타리와 담 가운데 엄청나게 튼튼하고 단단한 것이 외모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피부색을 넘어 하나의 인류라는 사실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던가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피부 색깔을 넘어, 그것에 전혀 마음 두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이지요. 저팔계는 저팔계 나름대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군요. 고태공 집안에서는 사위의 능력이나 기여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단지 그가 요괴라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군요. 그러니 결과는? 파탄이요, 결렬이죠. 그런데 이 요괴가 보통이 아닌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현장법사 모신 손오공 일행이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온 고승이라 하니, 당연한 수순으로 요괴퇴치를 부탁하게 되고, 또 당연하게 힘쓸 거리 없이 심심해하던 손오공이 맡고 나서고……. . 그러면 당연하게 요괴와 손오공의 한바탕 드잡이질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 저팔계와 손오공의 싸움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네요. 한바탕 싸움하는 도중에 서로의 신분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팔계가 관세음보살 부촉을 받고 현장법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로 싸움이 끝나고, 손오공이 저팔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좀 싱겁지만, 저팔계가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현장법사 모시고 떠나면서 속세에 끈을 남겨두려 하는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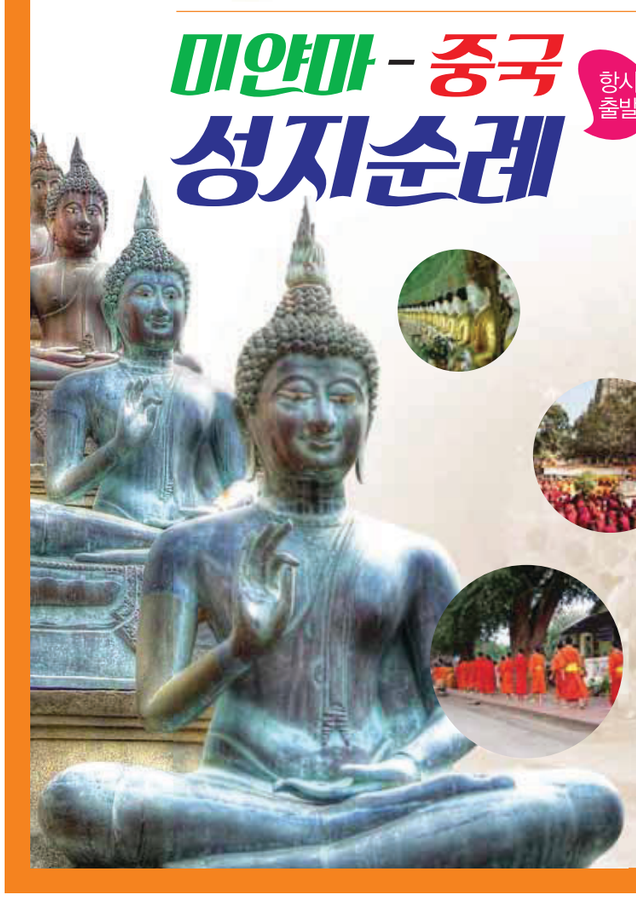
우선 저팔계는 지금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비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신 선술을 배워 하늘나라에서 벼슬까지 하던 인물, 즉 왕년에 한가락 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 하계로 추방되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추방될 때 잘못하여 돼지의 태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돼지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고 월궁항아에 대한 추행죄라는 것이 저팔계의 품성을 짐작하게 하지요. 또 돼지의 태 가운데 떨어진 것도 불교의 업설에 근거해서 보자면 역시 돼지와 친숙한 습성을 지녔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저팔계를 비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저팔계가 대변하고 있는 인간 심성의 한 측면, 즉 욕망이나 탐욕 그 자체를 죄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디부터 가진 것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아집에 빠져서 그 가진 것들이 죄업을 짓도록 만들 뿐 아닐까요? 우리의 뜻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요소들이 그 올바른 뜻을 위해 봉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대승의 큰 길은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함께 가고, 저것은 원래 나쁜 것이니까 버리고 가든가, 감옥에 가두어 놓자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부처되는 길의 도우미로 삼아서,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대승의 큰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제하기 힘든 것들은 적절히 격리시키는 방식이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쉬운 길을 가려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모든 것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 대승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앞질러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서유기의 마지막에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모두 경을 가지고 온 공을 인정받아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손오공은 '부처'의 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성불한 거예요! 그럼 저팔계와 사오정은? 미리 다 이야기하면 좀 싱거워지니 살짝 귀띔만 해 드리지요. 꽤! 꽤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욕망, 탐욕과 같이 우리가 나쁜 것으로 보기 쉬운 것들도, 깨달음의 길에 도우미가 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훌륭한 것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저팔계와 사오정도 확 부처 지위를 줘 버리고 싶더군요. 왜 꼭 손오공은 부처지위로 승격시키고 저팔계 사오정은 한 단계를 낮추었는지,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유기가 씌여지던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는 저팔계의 속 썩이는 이야기까지 기대해 보기로 할까요?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타인과의 '비교 욕망' 나에게는 해롭다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9〉

소유를 통해 불변자아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소유탐욕'이라 부른다면, 소유탐욕에도 크게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소유를 통해 자아감을 경험하려고 하면서도 소유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약한 소유탐욕'으로써 소위 '건전한 세속적 욕망'이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유를 통해 견실하고 안정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소유 자아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여 집요하게 소유물 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강한 소유탐욕'으로써,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악을 초래한다.

'누구보다 ~한 사람'이라는 비교
우월한 자신를 확인하려는 욕망
'비교 탐욕'에 스스로가 지배되면
무지를 외면하고 방치하게 된다

소유물로써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소유탐욕도,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 고착'의 속성을 지닌다. 소유탐욕에 몰두하는 사람은 소유를 위한 배타적 이기심에 몰두하기 마련이고(이기적 자기중심성), 아무리 차지해도 만족할 수가 없기에 끝없이 확대되는 소유충동에 몸을 맡기게 된다(무한 증폭). 또 탐욕적일수록 소유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소유하는 주체'와 '소유되는 객체'의 본래자리가 뒤바뀌어 주인이 노예가 되는 소외현상이 발생한다(노예적 의존성). 그리고 소유탐욕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소유물을 통한 자아확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성찰하지 못하여 무지가 굳건히 자리 잡는다(무지 고착).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비교를 통한 자아확인'이고, 여기서도 탐욕이 발생한다. 붓다가 극복대상으로 역설하는 '자만'의 충동과 경향성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은 개념적 비교를 행할 수 있는 생명체다. '나는 누구보다 ~한 사람이다'라는 비교판단을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 비교행위를 통해 자아를 규정하고 자아감을 확보한다. 자기 안에서 불변의 자아를 확보할 수 없는 인간은, 그래서 자기와 타인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대비의 자아감으로써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려한다. '나는 누구보다 ~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적 비교의 자아규정은 선명한 자아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보여주는 끊임없는 비교충동은 자아감 확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비교에서 발생하는 자아감은 두 유형이다. 비교우위에서 생겨나는 우월자아감이 한 유형이고, 비교열위에서 생겨나는 열등자아감이 다른 하나의 유형이다. 이 두 자아감은 모두 선명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판이하다. 우월자아감은 자존의 우월감을, 열등자아감은 자학의 열등감을 수반한다. 인간이 어떤 유형의 자아감을 선호할지는 명백하다. 우월자아감을 통해 불변자아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해소하려고 한다.

문제는 비교자아가 결코 절대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비교는 언제나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비교상대가 언제나 자기보다 하열한 것은 아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자기보다 우월한 상대는 항상 존재한다. 게다가 하열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렇다고 하열한 상대만을 골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들을 외면하고 싶어도 내면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향한다. 결국 비교의 우월자아감으로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도 성공할 수가 없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찾는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힌다. 만족과 행복의 근거가 타인에게 있을 때, 그 존재감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하다.

비교를 통해 우월한 자아감을 확보하여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비교탐욕'이라고 불러본다면, 비교탐욕도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월자아감의 절대적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한적 우월자아감을 누리려는 것이 한 유형이다.

재산, 외모, 성적, 직급 등을 기준 삼아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월자아감이다. 이런 유형의 욕망은 '약한 비교탐욕'으로써, 자기와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으며 일상에서 용인 가능하다. 또 하나의 비교탐욕이 있다. 우월자아의 절대적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우월자아감의 확보에 끝없이 집착하는 유형이다. 비교자아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강한 비교탐욕'으로써,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해하다.

강한 비교탐욕에서도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 고착'의 속성이 선명하다. 비교탐욕은 '비교를 통한 우월자아'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배타적 자기중심성이 강화된다(이기적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월자아의 근거가 되는 비교우위는, 크면 클수록 선명한 우월자아감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비교탐욕은 비교우위의 격차를 끝없이 확대하고자 하는 갈증에 불탄다(무한 증폭).

또 비교탐욕의 시선은 언제나 타인을 향한다. 타인과의 우월한 비교 격차만이 이 탐욕의 갈증을 달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만족이나 행복의 원천이 타인에 의존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과 행복의 근거가 타인에게 있을 때, 달리 말해 타인에 의존하여 자기 존재감이 수립될 때, 그 존재감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하다. 자족적 자존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교탐욕이 강할수록 노예적인 타자 의존성이 심화된다(노예적 의존성).

비교의 우월자아감으로써 불변자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교탐욕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무지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무지 고착).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열린 진리와 하나일수 있게

부처는 신(神)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도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커다란 스승이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은 주입식이 아닌 대화체로 되어있다. 주인인 신(神)과 그에 복종하고 따르는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거부한다.

중생이 곧 부처요. 사람이 곧 움직이는 진리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는 수직의 종교가 아닌 평등을 강조하는 수평의 종교인 것이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타력신앙(他力信仰)보다 스스로 정진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을 강조한다. 물론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다만 성경과 불경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불교는 신(神)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중심의 종교라는 사실이다. 내생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생을 중요시하는 오늘의 종교이다. 물론 불교의 경전내용이 중생들의 눈높이에 따라 방편설을 앞세우는 세제불교(世諦佛敎)도 있고, 진리 그 자체와 하나를 이루게 하는 진제불교(眞諦佛敎)도 있다. 이 또한 세제불교와 진제불교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러긴 하나, 세제불교와 진제불교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불교로 우뚝 서야한다.

사찰의 법회내용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경전중심으로 진리와 하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사찰 경제를 앞세워 마치 구걸하듯 권선문 따위로 복짓는 신앙을 강조해서는 안 될 터이다.

비구는 걸사(乞士)이다. 청빈은 수행자가 갖춰야할 기본 덕목이다. 그렇다면 승려의 주머니는 비어 있어야 당연하고 노후대비는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되어야 마땅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예로 삼재풀이에 대해 살펴보자. 국어사전에 박혀있듯 삼재풀이는 '삼재가 드는 해에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하여 무당이 드리는 치성'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해마다 크고 작은 사찰에서 신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며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삼재풀이 의식도 사라져야 할 그림자이다.

사찰경제가 어렵고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열린 자유(佛), 열린 평등(法), 열린 평화(僧)의 근본정신을 살릴수록 불교의 미래는 밝다. 중생교화의 방편에 짓눌려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 졸아들고 있는 현실이다.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에 조어장부(調御丈夫)가 있는데 이는 사람 중의 참사람, 사람 중의 으뜸인 스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사찰의 불상을 모신 건물을 대웅전(大雄殿)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웅전에서는 대웅(大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승려 스스로 대웅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대웅이 될 수 있게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몸과 마음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상식이 통할 수 있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린 불교, 열린 사찰, 열린 생활에서는 부끄러움을 키우지 않는다.

아직도 사찰의 주지실에 사주 · 관상 따위의 서적이 끼어있다면 아무리 궁색하게 변명해도 부끄러움을 키우는 일이다. 신도 생일을 족집게처럼 기억해 축하전화를 잊지 않는 승려가 있다면, 자상한 스님은 몰지언정 떳떳하고 당당한 수행승일리는 만무하다.

불교의 자비에는 섭수자비(攝受慈悲)와 절복의 자비(折伏慈悲)가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비가 섭수자비라면 때리는 자비가 절복자비인 것이다.

주지 진산식, 청빈과 거리 멀어
열린 자유 · 평등 · 평화 정신 살려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승려라면, 불제자라면 궁극의 목표는 깨달음에 있는 게 당연하다. 깨달음을 완성하는 해탈의 길, 열반의 락(樂)은 살아서 누리는 행복과 자유이다.

쫀쫀하게 졸아드는 생활보다 활기차게 열려있는 진리와 한 몸을 이루어야 날마다 좋은 날의 행복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승려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이다. 주지 직이 명예직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이다. 본사 주지 스님이 진산식이라 하여 거나하게 취임식을 치르는 모습도 청빈과는 꽤나 거리감이 있는 사라져야 할 그림자이다.

부처와 중생은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이다. 승려와 신도는 우월과 열등으로 양분될 수 없는 관계이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냄새가 나는 법이다.

사찰에서 만난 신도들은 합장으로 인사를 잘 하나, 거리에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 중 스님을 보고 합장하는 사람들은 왜 날로 줄어드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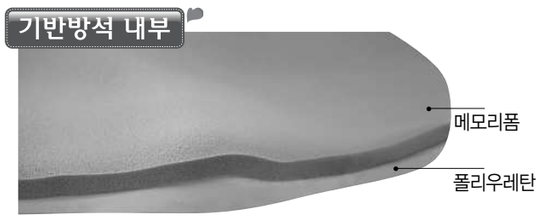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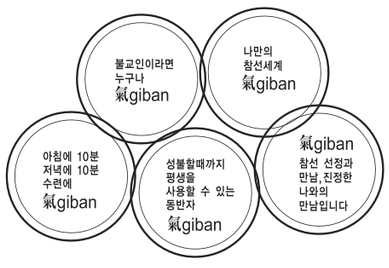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미얀마, 세계기부지수 1위… '보시문화' 때문

CAF · 美여론조사기관 GWP 공동 조사 결과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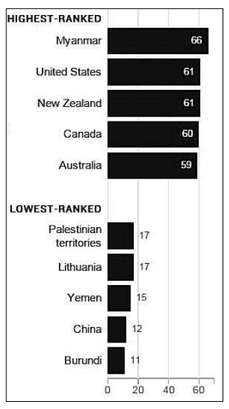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국가에 불교도의 나라 미얀마가 선정됐다. 그러나 미얀마는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된 군정 속에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가난한 나라' 란 인식이 자리잡아 이번 결과가 의외라는 평이다.

미국 시카고 라디오 방송 'WBEZ 91.5'는 12월 1일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자비로운 국가가 어디인지 결코 추측하지 못할 것' 이란 제목으로 "그곳은 바로 미얀마다. 만약 당신이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부유한 자가 자선을 많이 한다' 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결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국제구호단체 'London-based Charities Aid Foundation(이하 CAF)'가 조사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이하 WGI) 발표에 따른 것이다. CAF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GWP(The Gallup World Poll)' 과 공동으로 145개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내용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가장 마지막 달이 언제입니까? △자선기관에서 봉사를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등이다.

이를 평균 집계한 결과 1위 미얀마, 2위 미국과 뉴질랜드, 3위 캐나다, 4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가장 기부가 적은 국가 하위 5개국에는 팔레스타인, 리투아니아, 예멘, 중국, 부룬디 등이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최상위 5개국 안에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진국이며, 최하위 5개국은 개발도상국이 다수를 이뤘지만 8위 스리랑카, 11위 케냐, 12위 말타, 13위 바레인, 16위 과테말라, 17위 부탄, 18위 키르기스스탄, 19위 태국 등이 개발도상국이 다수 선정돼 눈길을 끈다.



CAF 통계 결과 **출처=NPR**

이에 대해 아담 피커링(Adam Pickering) CAF 국제정책매니저는 "G20 국가 중 단 5곳만이 상위 20위 안에 선정됐다"면서 "부유함이 곧 더 많은 자비와 관용을 일컫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WBEZ 91.5'는 미얀마가 1위를 기록한 이유로 '불교'를 지목했다. 'WBEZ 91.5'는 "미얀마의 명상 문화, 민족주의 등과 같은 국가적 성향이 높은 기부율을 기록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종교적인 기부가 주안점이다. 대부분이 불교도인 미얀마 국민들은 매일 스님들에게 재물과 음식 등 보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웨일스 남단에 위치한 카디프대학(Cardiff Univ.) 폴 풀러(Paul Fuller) 불교학 교수는 "미얀마인들의 이러한 특성은 '현생의 업이 후생으로 이어진다' 는 불교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이 기부할수록 다음 생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CAF와 GWP가 실시한 '세계기부지수(WGI)'에서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얀마는 불교도가 대다수기 때문에 종교적 기부 문화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WBEZ 91.5**

145개국 대상 통계 조사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위
20위 내 'G20국가' 5곳 그쳐
"가난함과 자선기부 무관해"

또한 미국 시카고 주 디칼브에 위치한 노던일리노이대학교(Northern Illinois Univ.) 동아시아예술학 부교수 캐서린 레이몬드(Catherine Raymond)는 "기부문화는 미얀마 역사를 담고있다"면서 "종교와 기부문화는 서로 얽혀왔다. 11세기 사찰 입구에 기록된 '기부' 관련한 현판들이 이를 가늠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서린은 "미얀마인들에게 사찰에 직접 식량을 가져가거나 아침에 자택 문 앞을 두드리는 동자승과 승려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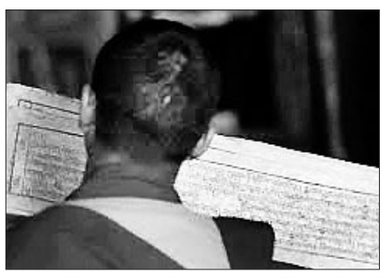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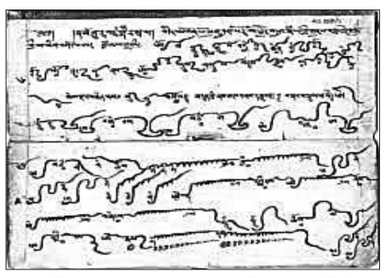
특히 'WBEZ 91.5'는 미얀마가 수십 년간 군정 독재 아래서 풍족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해왔음에도 불구, 기부 문화가 고착될 수 있었던 점과 이에 더해 기부율이 점점 증가된 점에 주목했다.

'WBEZ 91.5'는 "수십 년간 미얀마는 강압적인 군정으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부율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영리 인도주의단체 'American Jewish World Service' 시민권 활동가로서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는 제네 카페시(Jenna Capeci)는 "내부적 혼란이 종교적 기부 문화를 더욱 활성화 시켰다. 군사 정부와 집권당 등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미얀마인들은 더욱 종교에 의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얀마는 지난해 WGI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145개국가 중 64위로 기록됐다. **박아름 기자**

티베트서 13C 추정 '불교 고적' 대거 발견

폐허된 고대 티베트 사원서… 30여 점 출토
불교 악보 · 반야계 경전 등 희소성 뛰어나



폐허가 된 고대 티베트 사원지를 발굴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고대 티베트 불교 고적 300여 종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 중에는 곡선과 점 그리고 음절 문자로 기록된 티베트 불교의 고대 악보(사진 오른쪽)도 포함돼 있다.

티베트 악보를 비롯해 30여 종의 불교 고적이 새롭게 발견됐다.

'글로벌타임즈'는 "폐허로 남겨진 고대 티베트 사원을 조사하던 역사학자들이 티베트 악보를 비롯해 30여 종의 불교 고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고적은 13~18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악보는 그 희소성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악보는 일부 티베트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악보와 마찬가지로 곡선과 점 그리고 음절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타임즈'는 "곡선, 점 등으로 구성된 탓에 티베트 악보는 아직까지 해독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음절 문자로, 불교 의식에서 신을 맞이하고 귀신을 쫓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티베트 불교의식의 경문은 지속음을 포함한 조용한 중창으로 이루어진다. 이대 연주되는 악기는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이며 현악기를 쓰지 않아 매우 시끄럽다.

티베트 불교계는 고대부터 자신만의 악보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티베트 사원에서는 '앙이' 라고 부르는 곡선악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대의 악보와는 다르다. '앙이' 는 악보를 의미하는 티베트어로 음의 고저장단을 곡선으로 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티베트의 곡선악보는 동티베트 드카르 묻제스의 스데드제 마을에 있는 스데드제드곤첸(sde-dge-dgon-chen)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곡선악보' 와 유사하다. 이 사원에는 18세기에 설립된 '경판 보관원' 이 있는데, 이중에는 300여 장의 곡선악보 경판이 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고대 전적은 주로 반야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에 세계 최대 '얼음 불상' 들어선다

아롱콘 조각가, 국왕 88세 생일 기념해 제작

태국의 유명 휴양지 후아힌(Hua HIn)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불상이 들어선다.

'방콕포스트'는 12월 1일 "프라추아프 키리칸(Prachuap Khiri Khan)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얼음 조각가 아롱콘 팀차로엔(Alongkorn Timcharoen) 작가가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의 88번째 생일을 기념해 대형 얼음 불상을 조각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얼음 불상은 형형색색의 얼음으로 높이 599cm로 제작되며, 세계 각국에서 휴양지 후아힌을 찾아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후아힌 기차역 광장에 전시된다.

아롱콘 작가는 "불상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99개의 얼음 블록으로 제작될 것"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작을 밝히면서 태국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후아힌의 아난타락건강학교(Anantarak Health Training School) 측은 불상 제작에 사용될 얼음 블록 99개의 기부를 약속했다. 또 세계적인 얼음 조각가로 꼽히는 아롱콘 작가의 제작 과정을 지켜볼 요량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얼음 조각가들도 속속 모이고 있다.


태국 사라부리(Saraburi) 지역 청소년들에게 얼음 조각을 가르치고 있는 아롱콘 팀차로엔(Alongkorn Timcharoen) 조각가 모습.

한편, 아롱콘 작가는 일본 아사히카와(Asahikawa)와 중국 하얼빈(Harbin)에서 열린 '얼음 조각전' 등을 석권한 바 있다. 아롱콘 작가는 "지난해 여름 사라부리(Saraburi) 지역의 청소년들과 '고속철도' 를 주제로 공동 작업하며, 작가로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얼음 공예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스 캐나다, 中 입국 거부당한 이유는?

아나스타시아 린, 중국 인권 실태 및 종교 탄압 고발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시아 린(Anastasia Lin)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린은 12월 19일 중국 산야(Sanya)에서 열리는 미스월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미국 산업지 'Tech Times'는 11월 27일 "중국에서 태어난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시아 린(Anastasia Lin)이 미스월드 타이틀을 얻기 위해 중국에 가려고 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해 참가가 무산됐다"며 "린은 이에 앞서 수차례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은 린이 '입국 기피 대상' 이란 이유로 비자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법에 의해 중국 방문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입국의 입국 거부 조치는 이례적이다.

'Tech Times'에 따르면 린은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그가 평소 중국의 인권 문제나 정지적 억압 상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가 파룬궁(法輪功, 불교 · 도교 · 기공 등 혼합된 민간 수양 운동)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불교와 중국 요가 등을 수양하는 단체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 공화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의해 '이단 종교'로 취급돼 왔다.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시아 린(Anastasia Lin) **사진출처=Tech Times**

이밖에도 린은 '워싱턴포스트' 사설에 기고하거나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며 '중국 내 종교 박해' 등을 고발했으며, 곧 개봉하는 캐나다 영화 'The Bleeding Edge'에서 수감된 파룬궁 일원 역할을 맡았다.

이에 린은 자신의 심경을 개인 페이스북(Face book)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다. 린은 "중국 정부는 한 명의 '행동하는 학생'과 '미의 여왕'이 두려워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파룬궁은 불교와 도교 원리, 기공과 과학적 이론이 결합된 불가의 상승수련대법이다. 중국당국은 불교를 가장한 사교라는 이유로 파룬궁 지도부를 검거하고 수련자들을 구금하는 등 억압해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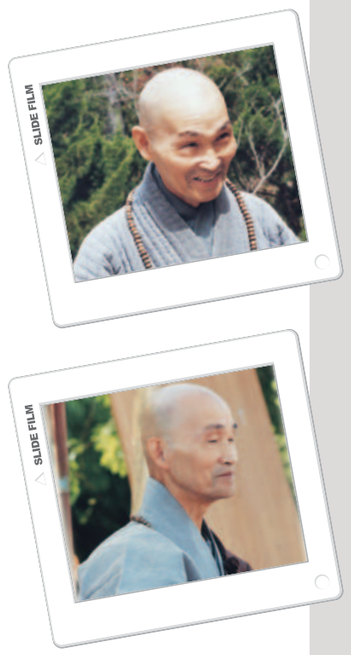


성자의 삶 | 사회문화원 | 356쪽 | 정가 39,000원

참 스승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의 거울이 되어 주신 분...
청화 큰스님의 행장行狀과 역정歷程, 그리고 귀한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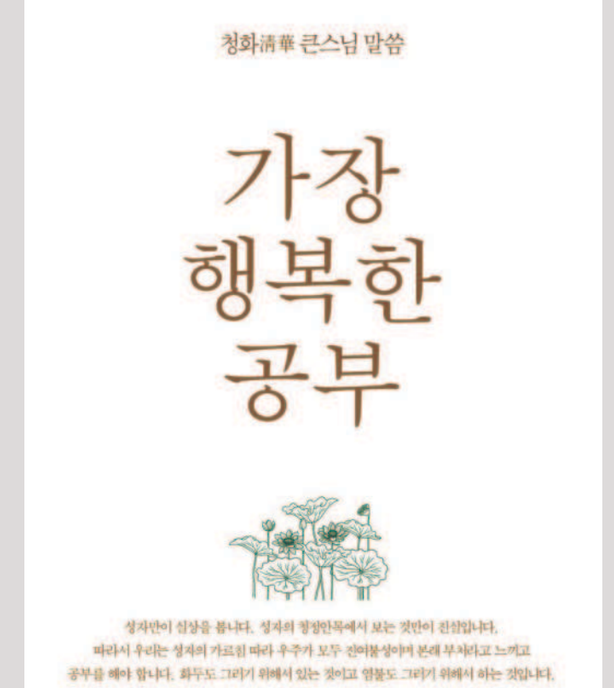
생전의 수행처에 대한 수행담과 행장을 통하여 큰 스님의 깨우침과 그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자의 삶



청화큰스님의 모습은 맑은 햇살과 투명한 바람을 닮았습니다.그래서 스님을 뵐 때면 행복했습니다.굳이 법문이 없으셔도 그 모습 그대로가 법문이신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수행이 형상화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법명 그대로 맑아서 빛나는 분이었습니다.그 분의 미소가 그랬고 어떠한 자리나 지위에도 걸리지 않는 삶이 그러했습니다. 스님의 정진 또한 한 치의 망념없이 순일한 것이었고 스님의 하심은 너무 맑아 눈이 부셨습니다.

– 법장(전 조계종 총무원장)



청화 큰스님 말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목 차

하 서 – 맑아서 빛나는 청화 큰스님 / 법장 · 5
서 문 – 우리 시대의 큰 스승 / 도일 · 6
간행사 – 우리 곁에 왔다 가신 성자 / 정혜숙 · 7
제1편 행장行狀
진리의 길 성자의 삶
거룩한 이, 태어나시다 · 13
출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다 · 20
좋은 벗(善友)들과 더불어 · 29
독거한처獨居閑處를 찾아 · 35
영생해탈의 길 · 41
위 없는 진리와 함께 · 52
정통불법을 펼치시다 · 57
하화중생下化衆生 · 60
성륜사 창건, 법 바퀴를 굴리시다 · 72
붕정만리鵬程萬里, 미주 포교에 오르시다 · 81
정토 세상을 위하여 · 92
사세辭世, 세연을 정리하시다 · 114
열반에 드시다 · 122
제2편 수행처 탐방
머물되 머무름없이
백암산 운문암 · 129
무안 혜운사 · 137
두륜산 양도암 · 145
두륜산 진불암·상원암 · 149
두륜산 남미륵암 · 157
광주 추강사 · 161
지리산 백장암 · 165
지리산 금강대 · 173
백장암 벽송사 · 177
벽송사 두지터 · 185
오산 사성암 · 189
용문사 염불선원 · 백련암 · 197
남해 보리암 · 205
보리암 부소대 · 213
진주 두방사 · 217
장흥 기억산 능엄사(금선사) · 221
부산 혜광사 · 225
강진 무위사 · 229
광명 성도사 · 233
월출산 상견성암 · 237
칠현산 칠장사 · 245
동리산 태안사 · 253
내장산 서래봉 벽련선원 · 263
장흥 탑산사 · 271
완도 범혜사 · 275
미국 삼보사·금강선원 · 279
지리산 칠불사 · 287
제주 자성원·표선토굴 · 295
도봉산 광륜사 · 303
배향산 무주암 · 311
설령산 성륜사 · 315
성륜사 조선당 · 339
간행기 – 우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달으신 청화 큰스님 / 정진백

구입문의 : 총판 운주사 02)3672-7181~5


의재 허백련의 1924년 '계산청취도'. 윤영돈 소장본.

"추운 겨울에는 박물관서 불교미술 감상을"

회화 · 사찰 · 불교민속 3색 전시전 눈길

연말 연시를 맞아 불교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의 특별전이 눈길을 끈다. 회화부터 사찰문화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전을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연다. 의재 허백련을 집중 재조명하고, 15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재 허백련(1897~1977)은 추사 김정희, 소치 허련, 미산 허형으로 이어지는 남종화의 맥을 계승한 이다. 평생 선비로서의 풍모를 잃지 않은 문인이었지만 효당 최봉술 스님을 비롯해 청남 오재봉 등과도 의형제를 맺는 등 두루 교류했다.

특히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도 단군 사상 계승 등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불교계와도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곡성 도림사의 현판이 그의 글씨로 남아있다.

추사 김정희와 초의 스님, 그리고 소치 허련의 교우를 흠모한 의재는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써준 글에서 유래해 자신의 당호를 '수류화개관' 이라 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가계와 생애 △사승(師承)과 교유(交遊) △예술세계 △의재 허백련의 제자들 총 4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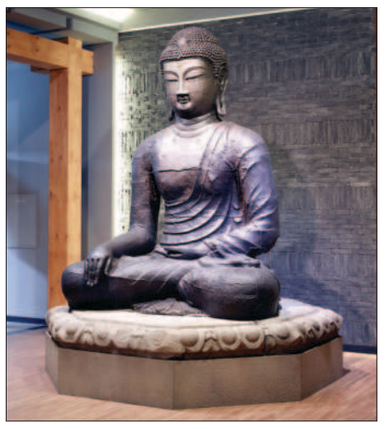
먼저 1부는 '가계와 생애' 로 열린다. 대표작은 '산수(1953)' 로 그의 나이 63세가 되던 1953년 정월에 그린 작품이다. 산수에서는 노(老)대가의 무르익은 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 글귀는 명나라 말기 중국의 서화가이자 이론가인 동기창 등이 역설한 '남북종화론' 과 원나라 하문언의 '화론'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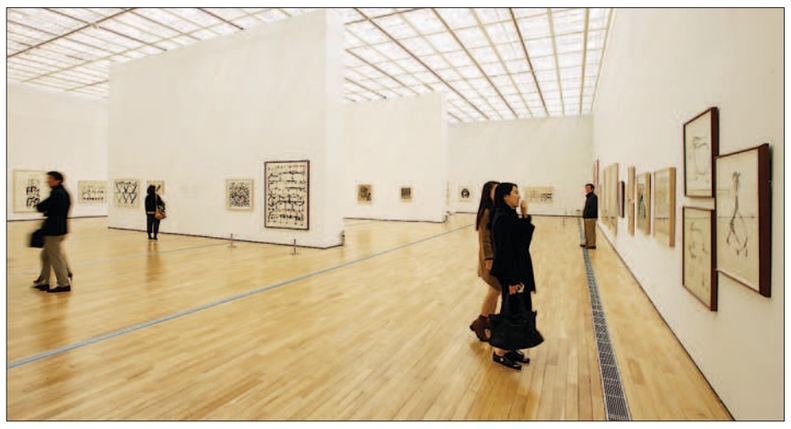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서간과 함께 써서 보내준 소동파의 시도 눈길을 끈다. 이 글씨를 소장했던 의재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당호를 '수류화개관' 으로 지은 계기가 됐다. 추사의 예서 중 가장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소동파의 시 '空山無人 水流花館(공산무인 수류화관)' 은 빈 산엔 사람 없어도 물 흐르고 꽃이 피네를 의미한다.

2부인 '사승과 교유' 에서는 의재의 학문과 서화 수련의 배경, 교유관계 등을 조명한다. 남종화의 대가로 거듭나기 전,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갈 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세계' 로 펼쳐지는 3부에서는 의재가 지향한 예술정신과 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제4부 '의재 허백련의 제자들' 은 연진회의 화우들과 제자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조현종 관장은 "광주의 전통화단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 전통의 의미와 가치,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62)570-7031


천왕사지 철불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서세옥 기증전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의재 허백련' 전
하남역사박물관 천왕사지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세옥 기증작' 전

이와 함께 경기 하남문화재단 하남역사박물관은 12월 10일까지 '고려가 사랑한 부처님의 나라, 천왕사지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남시 하사창동 일대로 알려진 천왕사(天王寺)의 고고학 조사 성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하남역사박물관은 지난 2009년부터 천왕사지에 대한 조사 · 발굴을 진행, 명문 기와 외에도 건물터와 목탑지 등을 확인했다.

특별전과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을 찾아보는 '그림 속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와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의 이동경로교육, 토기 유물 속 '천왕(天王)' 글자를 색칠해보는 체험활동 등도 진행된다. (031)796-7640

또 국립현대미술관은 산정 서세옥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한다. 1929년 태어난 서 화백은 수묵추상 분야를 개척한 이후 2014년 자신의 작품 100점을 미술관 측에 기증한 바 있다.

먼저 1월 3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1960년대 묵림회를 통해 추구했던 수묵추상 작품들과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작품 50점이 전시된다. 2부는 1990년대부터 최근 작품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12~3월 6일까지 열린다.

서 화백은 1916년 국전 추천작가로 등단한 후 한국현역화가 1백인전(1973), 한국현대미술초대전(1984), 미국태평양아세아박물관초대전(1984), 서울올림픽기념 국제현대미술전(1988) 등에 참가 역량을 과시했다. 서울대 미술대학장으로 봉직하며 제자를 길러왔다.

평소 "화두를 들어서 정신통일을 하며 수행을 하는 것이나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화가의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서 화백의 예술 세계를 접하는 기회는 소중하다. (02)3701-95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중일 불교예술 연중 프로젝트 '레인보우 보디' 시작

부산 감천문화마을 '빈집' 3일부터 기획전


우나영 作 '레인보우 보디'

부산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는 12월 3일 기획전시 'Rainbow Body' 를 개막한 데 이어 연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빈집 레지던시는 감천문화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공간 구성에 승효상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기획전은 김인철 건축가의 공간인 '색즉시공' 에 입주한 우나영 작가를 비롯해 한국 · 미국 · 중국 3개국 총 6명이 함께한다.

이번 전시회 주제인 '레인보우 보디' 는 티베트 불교철학에서 유래한 단어로 육체를 떠나 한줄기 빛이 되기 직전의 깨달음의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아주 오랜 시간의 자아성찰과 자아직시를 하면 '레인보우 바디' 상태에 도달하며 이후 7일 정도의 시간 동안 무지개 빛에서 완벽한 흰 빛으로 녹아 든다고 말한다.

이들은 회화 · 영상 · 사진 · 설치예술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각자 살아온 문화와 환경에서 각각의 깨달음 'Rainbow body' 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을 표현해 낸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실과 정체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한 · 중 · 일 작가 6명 참여해
티베트 불교 수행과정에 착안

먼저 우나영은 천이나 스팽글 등 비전통적인 재료들과 유화를 접목, 바느질 작업을 통해 여성 노동의 정치학과 성 정체성, 그리고 복잡 다양한 심리와 긴장 · 혼란 등을 표현했다.

장희진은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대중문화, 선전 등의 영상과 자료들을 비디오 작업으로 재편집해 소비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남학현은 서양화 · 수묵화 · 채색화 등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명확한 존재를 작품을 통해 가시화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앤드류 아난다는 백인 중심사회 속에서 유색인종의 정체성 및 정치학의 위기를, 에반 브라운스틴은 주변 사람과 세상의 상호관계 속에서 얻은 영감을 작품에 담아냈다.

사진 ·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샤오통지앙은 중국의 현실과 딜레마를 바라보는 시선과 급격한 사회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개인 및 집단의식을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빈집 레지던시 입주 작가 우나영은 "감천문화마을의 '문화' 가 생활예술이나 미술공예를 넘어 현대미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과 미국 교류, 한지로 해요"

영담 스님, 국회에서 '한지의 울림' 전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국제교류전이 열린다. 바로 '한지의 울림' 전이다. '한지' 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국회 의원회관 전시실에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일반에 공개된다.

한지조형, 한지공예, 한지의상 등이 선보이는 이번 기획전에는 한지공예전문가 영담 스님을 비롯해 이우복 · 방조영자 · 케티이오 · 한규암 · 박은수 · 이석용 · 장석순 · 정영순 · 김은정 등 작가 10명이 참여한다.

이중 영담 스님은 대표적인 한지 전문가이자 닥섬유 예술활동가로 최근 미국 뉴욕과 이태리 밀라노에서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2007년 국내 첫 한지미술관으로 등록한 청도 영담한지미술관장을 맡고 있으며 1천여 점에 달하는 한지 공예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전에 '백남준을 생각하며', '저혼', '조화' 등의 작품을 출품하는 영담 스님은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맞아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을 내게 됐다. 한지 공예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지를 만드는 영담 스님

이태미 이사장은 "한국인의 생활과 정신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린 '한지' 를 이용한 작품들이 소개될 것"이라며 "이번 국제교류 전시회가 한지공예의 국제적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제주의 '바람' 을 캔버스에 담다

이종송 작가, 17일까지 역삼동 갤러리엘르서 초대전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느낀 그 경이로움을 제주도에서도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풍경 속에서 자유를 표현하고 싶었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화두로 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히말라야와 티베트 등의 풍경을 그려왔던 이종송 건국대 교수는 개인전 개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종송 교수는 〈남자의 여행〉 사찰 기행집을 내기도 한 불자 작가로 차마고도 등의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해 왔다. 이종송 교수는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갤러리 앨르에서 개인전을 연다.

"자연 속에서 '화엄' 을 느낍니다. 온갖 만물과 인간이 얽혀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고요함 속에 빠지면 이 심상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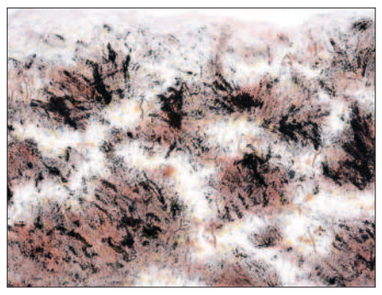

이종송 교수는 사찰벽화를 활용한 흙벽화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인전을 위해 주로 제주도에서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제주도는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할 수 있는 친밀한 곳이었습니다. 전시 주제를 '바람' 으로 하였는데 바람이 일으키는 사물의 흔들림과 움직임 등을 그렸습니다. 큰 산의 험한 곳을 그동안 유랑자와 고행하는 이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제주도는 마치 포근한 선방에서 좌선에 든 느낌이었습니다."

이종송 작가 작품의 특징은 사찰벽화 기법이 응용됐다는 것이다. 작가는 그동안 '움직이는 산' 등의 연작을 통해 전통 흙벽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무위사 등의 사찰 벽화 작업,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 작품 재현 등 오랜 시간 불화 복원 작업을 해왔던 작가의 이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벽화의 이미지 복원 연구' 로 논문을 낼만큼 벽화복제미술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직접 황토와 석회를 가공한 소석회로 질감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위에 천연안료를 이용해 산의 풍경과 느낌을 담아내는 것이다.

히말라야 이어 제주 풍경 담아
사색과 명상의 장소로 제주를 조명
흙벽화기법으로 독창적 영역 개척
사찰벽화의 현대적 해석 돋보여


이종송 作 'Mountain in motion—wind'

이번 전시전에는 이 교수의 이런 화풍이 고스란히 담긴 20여 점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최혜정 씨와 축하공연 및 작가와의 만남도 연다.

"인간의 존재는 대자연의 앞에서는 미미합니다. 흙벽에 그린 그림 또한 사실은 흙이라는 자연요소 속에 담긴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림을 보며 자연과의 공존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종송 작가의 작품은 자연을 노래하는 한편의 서사시이자 오케스트라가 되고 있다.

한편, 이종송 화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제 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건국대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790-2138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라의 불교문화, 강원도에

국립춘천博, 8일부터 '신라의 황금문화' 특별전

국립춘천박물관은 개관 13주년을 맞이해 12월 8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신라의 황금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에 전시되었던 유물과 강원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불상들을 함께 전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87호 금관총 출토 금관을 비롯하여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된 다수의 국보와 보물들이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시된다. 또한 강원지역의 영동, 영서지역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어 강원지역의 신라문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033)260-1500

노덕현 기자


2015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전 모습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검소한 발우공양의 참 의미 되살릴 때

사찰음식에 대한 한 견해

겨울을 맞아 전국 사찰들이 김장을 담그느라 분주하다. 교계 언론에 실린 한 사찰의 김장 담그는 풍경을 보면서 필자는 사찰음식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기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는 탁발 공양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발을 하라고 한 이유는 〈보우경〉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생명 있는 존재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둘째, 차례로 평등하게
셋째, 나태심을 없애기 위해서
넷째, 만족함을 알기 위해서
다섯째, 나누어 베풀기 위해
여섯째, 탐착하지 않기 위해
일곱째, 스스로의 양을 알기 위해서
여덟째, 원만하고 선한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홉째, 선근(善根)을 원만하게 심기 위해
열번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수행자가 공양을 하는 까닭은 최소한의 양식을 고맙게 받아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발에 대해 설하시면서 강조한 것은 잉여(剩餘)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이 담긴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뒤 점차 탁발 문화는 사라지게 되었다. 왕실과 부유층이 사원경제를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사찰을 만들고 왕실과 귀족들이 거대한 토지와 재물을 기증함으로써 불교는 탁발하지 않아도 식생활을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출발한 선종(禪宗)은 이런 관습을 거부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장회해(720~814)이다. 백장은 청규를 지어 공동노동을 의무화하고 사찰토지의 경작에 솔선수범했다. 백장 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말은 수행자들에게 준엄한 죽비가 되었다.

따라서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검소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사찰음식 문화가 대중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찰음식과 전통음식의 차이를, 사찰음식과 채식음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화려한 외양에 번다하기 짝이 없는 조리법을 보고 있으면 사찰음식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스님들이 탁발하는 모습. 탁발문화는 대승불교에서 축소되었지만 공양정신은 청규로 인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찰음식의 최고 특징은 검박함
화려한 외양, 번다한 조리법 지양
발우공양에 담긴 가르침 계승돼야


사찰에서 불자들이 김장을 담그는 모습.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이 공양을 받을 때마다 읊는 오관게의 첫 구절이다.

마음의 눈 크게 바라보노라면 우리가 받는 공양물들이 육신을 지탱하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것만 같다. 쌀 한 톨에도 우주가 깃들어 있을진대 혼탁한 심신에 깃든 쌀 한 톨이 어느 자리로 돌아갈지 묘연할 따름이다.

사찰음식이 지닌 특성, 이를테면, 수행음식, 자연음식, 저장음식, 발효음식 친환경 건강음식으로써의 전통은 마땅히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우공양의 정신이 잘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붓다 재세 당시 탁발에 대한 계율은 〈사분율〉에 잘 나타나 있다.

탁발한 음식은 정오가 되기 전 돌아오는 길에 다 먹어야 한다. 채 먹기 전에 정오가 되면 그날 식사는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양 받은 음식이 너무 많은 때는 남겨도 상관없다.

다만, 남긴 음식은 전부 버려야만 했다.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다. 음식을 저장했다가 다음날 또 먹게 되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 두고두고 먹으려 하는 습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저장된 음식물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처님 재세 당시와 달리 중국 선불교에 와서 음식의 저장을 허락한 이유는 생산불교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북아는 사계가 분명하여서 탁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준 걸식할 때의 마음가짐만큼은 수행자가 지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걸식하는 법을 배우라. 어떻게 해야 비구의 걸식법을 배우는 것인가. 이것에 의지하여 비구들은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얻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얻지 못한 것에도 또한 (마음이) 변하지 말라. 가령 밥을 얻었을 때에는 생각하면서 먹고,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다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얻으려고 할 뿐, 옛 아픔을 없애려고 다시 새롭게 짓지 말며 기력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와 같은 비구의 행을 걸식이라고 한다."

– 〈증아함경〉에서 인용.

유응오 작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실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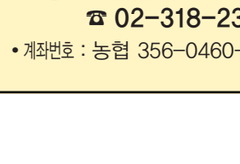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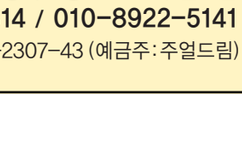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 금강체인팔찌 B형 115,000원


10㎜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 금강저팔찌 115,000원

1 3mm 2 4mm 3 5mm 4 6mm 5 7mm 6 8mm 7 10mm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10㎜ 만자 팔찌 130,000원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26~2015.1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2	법명해설사전	조계종포교원	(주)조계종출판사
3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4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8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9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10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금강경〉 모티브한 일상생활 속 소참법문집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흔적없는 소리
글/사진 정관 스님
해조음 펴냄
1만 5천원

〈금강경〉은 우리 나라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된 대표적인 불교경전이다. 〈금강반야경〉·〈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전의 범어 원전 사본은 티베트·중국·한국·일본에 전하고 있으며, 한역본은 402년에 요진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 외에 7종이 있다. 선종에서도 중국 선종의 제5조인 홍인(弘忍) 이래 특히 중요시되었고, 제6조 혜능(慧能)은 이 경문을 듣고 발심해 출가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삼국시대의 불교유입 초기에 전래됐으며, 고려 중기에 지눌 스님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을 위해서 반드시 이 경을 읽게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이 경은 공한 지혜로써 그 근본을 삼고,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았다. 공의 사상을 설명하면서도 경전 중에서 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쓰여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대승과 소승이라는 두 관념의 대립이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경전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경의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 인도의 무착(無着)은 18주위로 과판(科判)했고, 천친(天親)은 37단의(三十七斷疑)로, 중국 양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는 32분(三十二分)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바로 이 소명태자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흔적 없는 소리〉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대구 향림사 주지 정관 스님〈사진〉의 일상생활 속 소참법문집이다.

스님은 머리말에서 "소리는 아무 형체가 없지만 생각을 형상화하고 소통의 형태로서 표현된다. 생사가 본래 없듯이 우리 삶의 본질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묘한 것, 바로 '진공묘유(眞空妙有)' 의 비어있는 세계를 바로 보는 것"이라며 "매 순간 마음이 닫고 있는 본래 그 자리, 마음의 비어 있는 공(空)의 세계에 가 닿기를 발원한다"며 책 제목을 '흔적 없는 소리' 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한다. 덧붙여 스님은 "금강경은 결국 모습이 없는 가운데 실체를 깨닫는 데 있다고 볼 때 소리는 흔적이 없는 것이다. 밖에서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유무(有無)를 떠난 공(空)의 세계를 바로 보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도량임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한다.

에세이 천수경에 이어 이번에 펴낸 이야기 금강경 속에는 금강경 총 32분(分)을 스님 특유의 감성이 녹아 있는 시적 언어로 승화한 시 32편과 함께 32가지 비유적 이야기를 끄집어내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애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다가올 연말 탐독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에 안성마춤인 책이다. 특히 이번에 펴낸 금강경으로 세상읽기 〈흔적 없는 소리〉에는 평소 사진 찍기를 즐겨하는 스님의 수준 높은 작품 사진도 함께 수록해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금강경〉을 들여다보면 32분 중 핵심사상을 담은 것은 제3·4·5·7·10·18·23·26·32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제3의 〈대승정종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번잡한 차별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곧 진리의 길'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차별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극복돼야 할 장애 요소로 네가지 상을 꼽는 다고 저자는 밝힌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되 내가 저들을 제도하였다는 관념이 없어야 함은 물론,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의 4상이 없는 수행자가 진정 옳은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는 신라시대 고승인 자장율사의 태백산 정암사에 얽힌 일화도 소개한다.

이어 저자는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려면 지극한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오직 기도라는 도구만이 이 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참회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작용은 오직 유일하게 인간의 기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도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용기"라고 설명한다.

제4의 〈묘행무주분〉에서는 집착함이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제5의 〈여리실견분〉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시적 언어로 참뜻을 승화시켰다. **"나는 보고자 하나 나는 볼 수가 없네/눈으로 보지도 말고 생각으로 보지 말라하네/거기 있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다고/모두 허망한 것이라고/보이지 않는 것을/보는 자가 되라 하네/그리하면 마침내 볼 수 있을 것이라고/지금까지 눈을 부릅뜨고 보아왔던 것은/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허상/진실을 보려는가/그럼 바로 보시게/다음으로 미루지 말고/바로 지금 보시게나/그리하면 보일 것이네"**



금강경 총 32分에 선시, 일화 등 담아 시적언어, 비유적 이야기 이해 도와 저자의 계절별 작품사진도 수록

이 분에서는 32상을 갖춘 부처님의 육신이 영원한 진리의 몸인 법신(法身)이 아님을 밝히고, 참된 불신은 무상(無相)이라고 설한다. 특히,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고 한 유명한 사구게(四句偈)가 수록되어 있어 더욱 중요시된다.

제7의 〈무득무설분〉을 해설하면, 최고의 지혜를 이룬 자리에서는 언어 표현이 구태여 거추장 스러운 것이며, 또한 그 자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거나 획득했다는 개념조차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무득무실분〉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도 따로 얻은 바가 없고 어떠한 진리도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래 그 자리에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 정관 스님은 "이는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가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중생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이라고 전한다.

제10의 〈장엄정토분〉에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외적인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應無所住而生其心)' 을 가르친다고 저자는 밝힌다. 이는 혜능 및 여러 고승들을 깨닫게 한 유명한 구절이다. 저자는 또한 이 분에서 조국 이스라엘은 잃었지만 민족정신만은 잃지 않은 일화도 곁들인다.

제18의 〈일체동관분〉에서는 부처가 모든 중생의 차별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음과 과거·현재·미래의 마음은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제23의 〈정심행선분〉은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자는 본디 마음이 투명하고 깨끗한 법임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법평등' 이 진리의 세계는 차별 없이 평등하므로 높고 낮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며, 없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높이 있다고 모양낼 일도 아니며, 낮다고 비굴할 것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제26의 〈법신비상분〉에서는 여래를 형체에 얽매어 보지 말 것과 "만약 형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결코 여래를 보지 못한다."는 사구게를 설하고 있다. 마지막 제32의 〈응화비진분〉에서는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이 꿈·환영·물거품·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우뢰와 같음을 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를 쓴 이는 800여 인에 이른다고 하며, 현재 인도본 5종, 중국 122종, 한국 14종, 일본 61종의 저서명이 전한다.

저자 금담 정관 스님은?
불국사 성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영동 반야사 주지, 대구 운흥사 주지, 대구 동화사 기획국장, 청도 용천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향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여유〉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마음을 주는 손〉과 시집으로 〈눈이 오던 날〉 〈꽃비〉 〈날마다 좋은날〉 등이 있다.

"인문학적 소양,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죠?"

인문학 습관

윤소정 지음 | 다산 초당 펴냄 | 1만 5천원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도 듣지만, 그럼에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이 책의 저자 인재양성소 인큐(이하 인큐)의 윤소정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만 시간 동안 직접 실험을 행한 청년교육자이다. 인생을 개조하는 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교 자퇴 후 200개가 넘는 인문학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돌렸으며, 그것은 그대로 국내 최고의 실용 인문학 교육기관, '인큐' 의 커리큘럼이 되었다. 작은 스터디룸에서 시작된 이 교육 프로젝트는 1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강의 만족 평가가 98.5퍼센트에 달하는 '신 개념 인생학교' 로 발전하였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문학 공부 = 책읽기' 라는 공식에 얽매여 있다. 하지만 저자는 공자와 소크라테스 책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언정 나의 상사, 면접관, 남자친구의 마음조차 사로잡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력히 말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배운 것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 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인큐에서는 실제로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킨 수강생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저자는 고전을 읽고 강연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며, 인문학은 결국 '습관의 문제' 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2011년 구글의 부사장은 앞으로 6천 명의 직원을 채용하되, 그중 4~5천 명은 인문학도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저자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상반기부터 한국의 채용 시장에 변화가 올 것임을 예측하였고, 실제로 '국민은행' 이 지금까지 읽었던 인문학 책 목록 등을 요구하며 채용 시장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때 저자는 '왜 기업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인재를 뽑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는 '30일 만에 끝내는 인문학' '4주 안에 끝내는 인문고전 읽기 소모임'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친구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 를 역시나 벼락치기로 끝내려는 모습을 보며 저자는 '한국형 인문교육' 이 다시 정립되어야 함을 통감했다. 한국 학생들에게 '인문학 기초 근력' 을 키워줄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 책은 '깨뜨리기 습관' , '역지사지 습관' 부터 '모방 습관' 까지, 자신의 인생을 개조시킬 수 있는 9단계 인문학 솔루션을 제공하며, 각 장 마지막 부분마다 이미 인큐에서 검증된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 그리고 실제 트레이닝 후기들을 소개한다.

예를들면 "우유부단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힘들어요." 답은 1일 1글쓰기 트레이닝으로 선택과 집중 능력을 키운다이다. 또한 "아빠가 너무 미워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라는 고민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미워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고전 읽기 전 인문학 근력부터" 쉽게 따라 하는 9단계 인문 솔루션 내 업 만드는 인문학 트레이닝북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인생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인문학 트레이닝북' 이다. 예를 들어 인큐의 수강생 J양의 경우, 취업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보내는 안부 문자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저자는 이럴 때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장사 프로젝트' 에 도전해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페이스북에 몽땅 태그하고, 자신의 모습을 동네에 온전히 드러내며 꽃 장사에 도전,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완판' 을 해냈다. 그 외에도 생각이 많아 행동으로 잘 안 이어지는 친구에게는 '그만 요법' 을 전수하여, 망상들이 자신을 덮쳐올 때 "그만!" 하고 외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등, 이 책에는 많은 '변화 사례' 가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쉽게 윤회를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도를 보인 원효성사의 논서!

- 종교의 마지막 논서 -

원효의 무량수경종요

정목스님 번역·해설 | 신국판 | 양장 | 흑백 | 384쪽 | 20,000원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컬라 | 280쪽 | 14,000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역해 | 신국판 양장 | 2도 | 348쪽 | 20,000원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힘을 체험케 하는 묘한 논서
현세에 안심을 얻고 정토를 감득해 묘관찰지를 증득하는 법

『무량수경종요』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을 원효성사의 깊고 넓은 지혜로 해설한 보배로운 저술이다. 염불수행법, 보리심, 정정취, 부처님의 지혜 등, 신행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은 염불로 지혜를 성취하여 오탁악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범부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성사의 가르침을 우러러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자비광명의 은혜를 입어 안심과 희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종요』는 '종교의 마지막 논서'이다.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과 실상, 범부와 성인의 세계관, 철학과 종교의 관계, 성자의 지혜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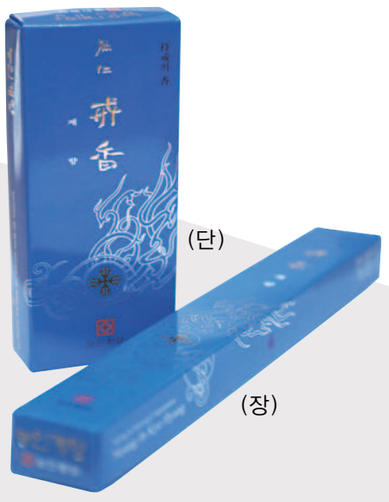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단)

(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책 속의 밑줄 긋기

"괴로워하는 것도 남 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모두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즉, 남 탓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은 타인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심직설〉 中에서

상대방이 나를 욕 하면 함께 화를 내며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어요?' 하면서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 내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일으켰구나' 하고 살피는 것과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살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은 휩쓸려 따라다닙니다. 〈진심직설〉 中에서

Books

"무심, 마음 가운데 아무 것도 없는 것"

진심직설

정우 스님 지음 | 모과나무 펴냄 | 2만 5천원



〈진심직설〉은 〈수심결〉과 함께 보조지눌 스님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선불교의 기본 바탕인 우리 본래의 마음, 즉 진심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한다. 여타의 선어록이나 선서는 선사들의 깨달음의 순간이나 가르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진심직설〉은 마음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자세히 전부를 다룬다. 그래서 다른 선어록과 다르며 선서의 백미(白眉)라 불린다.

선승인 구미 금강사 회주 정우 스님은 지눌 선사가 말하는 '참마음'에 대해 일상의 언어로 상세히 강설해 750여 년 전의 역사서가 아닌 현재 살아숨쉬는 〈진심직설〉을 내놓았다. 이 책은 마음이란 무엇이고, 그 바탕과 작용은 어떠하며, 어떻게 다스리고 닦을 것인가, 그리고 완성의 경지까지 일관되게 서술한다.

이렇듯 마음에 관해 생각하는 모든 면을 문답법 형식으로 저술한 〈진심직설〉은 마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질문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지눌 선사의 독특한 저술법이다.

먼저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무엇을 '참마음'이라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참마음의 본 바탕과 그 작용에 대해서 살핀 다음, 참마음은 사람마다 갖추는데 범부와 성인으로 나뉘는 것은 미혹한 번뇌 망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뇌 망상을 쉬는 마음다스리는 법 열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마음다스리는 법은 가고 오며 앉고 누워서도 가능한 공부라며, 이 공부와 더불어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함께 닦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참마음을 깨쳐 얻는 공덕에 대해 자세히 열거했으며, 참마음이 성숙해 걸림이 없는 것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에는 중생들은 업을 따라 윤회하지만 참마음을 깨치면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마음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한 것을 정우 스님은 다시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강설했다.

〈진심직설〉, 지눌 선사 대표적 저술
마음 정의와 작용, 완성 경지 서술
마음관련 모든것 문답식 전개 특징

지눌 선사가 살던 고려말의 불교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안으로는 선종과 교종이 극심히 대립해 싸웠고, 밖으로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승려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불교는 타락했다. 지눌 선사는 화엄론에 기초해 선과 교가 둘이 아님을 확인하고 "부처가 입으로 말한 것이 교요, 조사가 마음에 전한 것이 선"이라며 선교회통(禪敎會通)과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했다. 그리고 타락한 고려불교를 정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에 평생을 진력했다. 이러한 지눌 선사의 정혜쌍수와 선교일치 사상이 〈진심직설〉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선과 교가 극심히 대립하고 있을 때 선교일치의 관점에서 마음 공부를 정리했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참마음을 깨치고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대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더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관찰하고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눌 선사는 선정만 닦으려는 수행자들에게 "만약 남을 이롭게 하는 행이 없다면 곧 고요함만 취하려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른가"하며 이타행의 보살행을 강조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다스리기는 마음을 살피기, 알아차리기를 통해 망심을 내려놓는 마음 공부와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을 권한다. 지눌 선사가 〈진심직설〉서 제안하는 '망심을 쉬는 공부' 열 가지는 현대인을 위한 '마음 다스리는 법'이 된다. 이 가운데 자기한테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면 '참마음'을 깨칠 수 있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동암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은 철우태주(1895-1979) 선사를 은사로 1960년에 출가해 법을 이었다. 당대 대강백인 청암사 우룡 스님, 강고봉 스님, 통도사 호경 스님, 상주 남장사 혼해 스님으로부터 사집, 사교, 대교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국장,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거쳐 조계종 중앙종회 11대, 12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지금은 구미 금강사 회주 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범어사, 불국사,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청암사 수도암, 칠불암, 정혜사, 망월사, 통도사, 태안사, 화엄사, 벽송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안거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강설집 〈선가귀감〉이 있다.

장막에 가려진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동향 파헤쳐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

오경후 지음 | 문현 펴냄 | 2만8천원



"조선의 불교는 탄압, 수탈과 착취로 규정되었고 인식되었다. 실록속의 왕과 신료의 말 한마디로 불교는 이단의 종교가 됐고, 승려는 천하에 쓸모없는 불한당이 되었다. 그리고 사찰은 나라 경제를 좀먹는 소굴이었으며, 풍기문란의 온상이었다."

불교사학자 오경후 박사(동국대 불교학술원)가 최근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연구〉라는 책을 출간했다. 현재 한국불교의 현주소가 앞서 언급한 조선불교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오 박사의 저서는 출간직후 불교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오 박사는 "역사서술이 전하는 바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막에 가려진 진실을 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 책을 크게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으로 구성되었다.

전란과 더불어 조선이 반환점을 돌기 시작한 선조와 조선후기 대표적인 불교탄압의 군주인 현종의 불교정책을 통해 불교가 지닌 종교적 가치와 불교계의 기여를 살폈다.

또한 불교탄압에 대한 백곡 처능의 대응론도 다뤘다. 백곡은 〈간폐석교소〉라는 상소문에서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이 지닌 모순을 질타했고, 승려에 대한 혹독한 부역노동을 완화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불교계의 동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됐다. 불교 탄압에 대한 대응론과 승려의 부역동원, 그리고 사찰의 수적 증감 등 세 부분이다. 종교적 가치와 불교의 국가사회적 기여는 탄압의 원인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저자 오경후 박사는 동국대 대학원서 〈조선후기 승전과 사지편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주일 기자

신라천년 도읍지는 삼신산 중 하나인 지리산에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 신라 궁궐이 있었다

정암 지음 | 자유문고 펴냄 | 1만 5천원



"신라 천년의 도읍지는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각종 옛 기록과 비문, 지형 등을 토대로 지리산 일대가 신라의 수도였으며, 화엄사가 황룡사임을 고증해내는 등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상고사와 고대사는 미개척 분야이다. 수많은 학설들이, 추론들이, 상상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간의 간극은 전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마디로 우리 고대 역사는 미궁 속에 빠져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고사나 고대사를 시원하게 밝혀줄 기록의 부재, 거기에 덧씌워진 중국 중심의 기록과 관점, 게다가 역사학계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식민사관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록과 흔적의 조각들을 맞춰가다 보면, 우리 민족의 찬란하고 위대했던 역사와 마주서게 된다. 이 책도 그런 시도 중의 하나이다. 왜곡되거나, 혹은 놓쳐버린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옛 기록과 지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검증해나간다.

지리산, 이 책의 주 무대이다. 저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국 기록, 비문, 지리산 주변의 산세 등을 토대로, 지리산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중심임을 고증해나간다. 즉 지리산 주변이 고조선의 수도였으며, 나아가 천년 신라의 수도였음을,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이 지리산을 지칭하고 있음을, 황룡사가 지리산 화엄사임을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주장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주를 신라 도읍지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정작 국사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에는 선인들이 산다는 삼신산에 신라 도읍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열전〉에 최치원이 중국서 귀국할 때 중국인 고운(顧雲)이 지어준 송별시가 실려 있는데, '신라 도읍지는 신선세계인 삼신산에 있으며 삼신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즉 금오산 곁에 계림이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삼신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자라 형상의 금오산, 닭이 홰를 치고 있는 형상의 계림, 여성의 생식기가 활짝 벌어진 형상의 여근곡(女根谷) 등이 지리산의 서남단, 구례군 일대에 선명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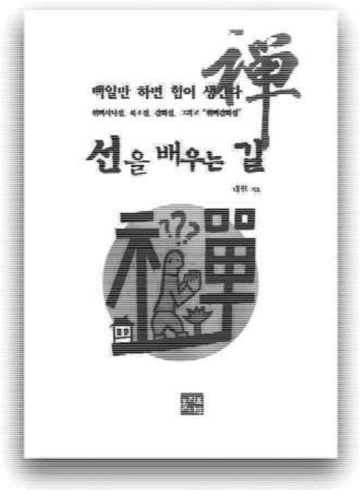
한편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고조선의 도읍지인 아사달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고 본다. 즉 신라 진성여왕이 당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글에 '해 뜨는 우이에 살면서 희중(羲仲)의 벼슬에 있는 것이 신의 본분이 아니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상서(尙書)의, 요임금이 즉위하여 맨 처음 해 뜨는 신성구역인 우이에 희중을 파견해 살게 했다는 기록과 이곳이 바로 고조선 도읍지라는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을 연결 지어 고조선의 도읍지 아사달과 신라 도읍지가 같은 곳이라고 추론한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색다른 시도
왜곡되거나 놓친 역사 진실 좇아

또한 구약성서 창세기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는 구절에서 동방은 우이를 가리키고, 이곳을 해 뜨는 지역인 양곡(暘谷)이라고도 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고조선과 신라의 도읍지가 있었던 신성구역임을 밝힌다. 한편 고려시대 몽고군에 의해 소실되어 폐사된 황룡사와 황룡사탑에 관련해서, 화엄사에 소장된 〈화엄사 사적〉과 서산대사가 지은 비문을 통해 지리산 화엄사가 황룡사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처럼 이 책은 추상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명확한 주제를 정해, 그 근거를 토대로 베일에 가려진 한국사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선을 배우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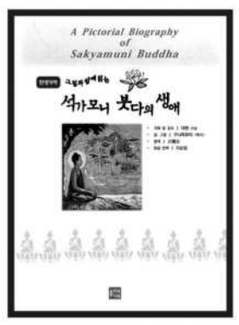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림과 함께 읽는 한영대역판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표면은 유교, 심상은 불교… 왕실 안녕 기원

20. 전통의 유산, 왕실불교와 국왕

조선은 이념과 정책, 의례 등의 공적 영역에서 유교 국가를 지향하였고 불교는 주류질서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왕실의 숭불과 불교 후원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되었고 국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왕실과 유학자 관료 사이에서 불교신앙 및 후원을 둘러싼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불교가 국왕의 장수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역대 국왕과 왕비 등의 사후 명복을 빌고 추숭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왕실 구성원의 다수가 비빈과 모후, 공주 등 국왕을 둘러싼 여성이었던 것도 불교신앙의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

왕실불교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500년은 배불의 시대였지만 왕자는 일관적으로 배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태종, 연산군 등을 제외하면 차라리 숭불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1930년대 말에 포광 김영수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국가의 공적 영역과 왕실불교 양자를 대표하는 국왕의 특수한 성격을 인식한 지적이었다.

조선시대 국왕은 유교적 질서의 정점에 서있는 존재였고 공식적으로는 '숭유억불'을 언명하고 실천하였지만, 국왕과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며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불교에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례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대부 계층에서 불교신앙과 재회가 배제되었고 점차 유교식으로 대체되었다.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은 불교 제의와 내세관이 유교식 제사와 조상 및 사후 관념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민의 신앙과 내세 관념은 물론 왕실불교의 전통은 강고히 유지되었다.

특히 조선전기에는 왕실에서 역대 선왕들의 '조종의 유훈'을 내세워 불교신앙과 의례를 공공연히 행하였고 고기를 올리지 않는 불교식 제의를 고수하다가 숭불행위라는 관료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왕실불교는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공론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왕실의 대표적 불교의례인 수륙재는 조선 초기에 국상제로 거행되었고 선왕이나 왕실과 관련된 능침사와 원당 사찰에 많은 특혜가 부여되었다.

조선 초에는 고려로부터 이어진 불교전통의 유산이 뿌리 깊이 남아있었다. 조선 초부터 강한 배불론이 제기되고 억불책이 시행되었으며 유교식 상장례가 권장되었지만 부모의 왕생과 내세의 복락을 기원하는 불교식 사후 관념과 신앙을 일거에 없앨 수는 없었다.

부녀자의 산사 출입을 금하고 승려의 도성출입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지만 개인 차원의 종교적 행위를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교국가의 틀이 잡히고 억불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던 성종대에도 "불사의 풍속이 여전히 상존하여 사대부의 집도 상을 당하면 재회를 예설하고 칠일재를 설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정도였다. 즉 15세기까지 부모의 묘 옆에 암자를 지어 재궁으로 삼거나 불단을 설치하여 명복을 비는 관행, 그리고 사십구재 등의 관습이 상류층에서도 이어졌던 것이다.

조선을 개창한 태조는 유교를 국교로 표명하였지만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고려 말 공민왕대에 국사와 왕사를 지낸 태고 보우나 나옹 혜근의 비에는 이성계가 문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태조는 즉위 후 조계종의 무학 자초를 왕사로, 천태종의 조구를 국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신덕왕후 강 씨를 위해 서울에 흥천사를 창건하고 궁궐의 내불당을 존속시켰으며 대규모 법회와 사경, 대장경 인쇄를 행하였다. 조선의 국왕이었지만 문묘에서 공자를 제사지내는 석전에는 가지 않고 문수 법회에 참가했을 정도로 불교를 깊이 신앙하였다. 태조는 불교를 조상 때부터 믿어왔다고 하며 왕실과 국가에 대한 불교의 외호를 숭신하였다. 그는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죄업을 씻어내고자 〈법화경〉을 금으로 사경하였고 고려 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한 법회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강력한 억불정책을 단행한 태종은 자신의 능에 사찰을 짓지 말라고 선언하고 국가 차원의 불사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수륙재 등 왕실의 불교행사는 금하지 않았고 특히 부친인 태조 및 생모와 관련된 불교의례와 불사는 대부분 용인하였다. 그는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 자초의 비를 건립하였고 태조 사후 사십구재와 법회를 행하였으며 태조의 재궁 개경사와 원찰인 흥덕사를 짓기도 하였다.

세종도 재위 후반에는 불교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역대 제왕 가운데 불교를 숭신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나는 심하게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는 이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조종의 유훈을 따르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세종은 자신이 혁파했던 내불당을 다시 설치하고 불상을 봉안할 때 불교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1437년에는 흥천사 사리각을 금은으로 단청하여 중수하고 낙성 경찬회 때는 '보살계 제자 조선 국왕'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대비의 추천 법회 때는 무학 자초의 제자 함허 기화가 종실을 상대로 법을 설하게 하였고, 세종의 장례도 사십구재와 소상 전후의 불사 등 불교식 의례로 치러졌다.

세종의 숭불에는 여러 개인적 심경 변화도 있었겠지만 승려가 된 친형 효령대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효령대군은 당시 국왕 및 왕실과 불교계 사이의 주된 연결 통로였다. 그는 흥천사 불사, 한강에서의 수륙재 설행 등 왕실 불사에 깊이 관여하였고 세조대까지 왕실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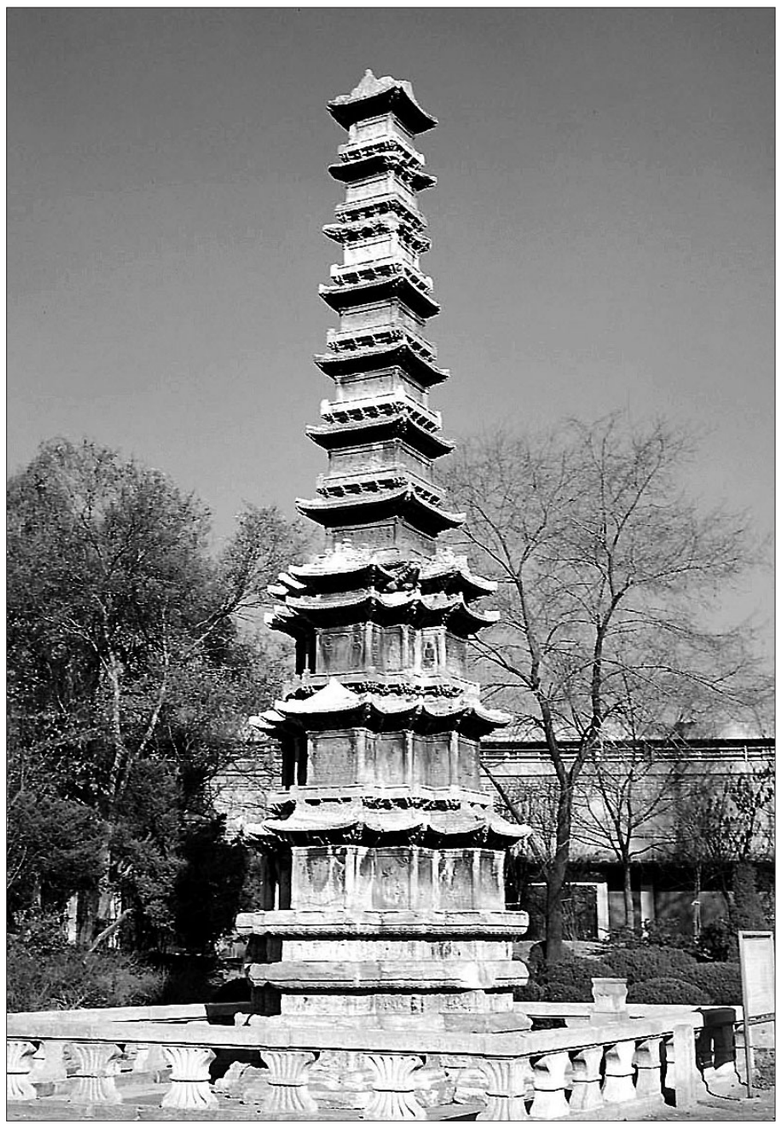
세종의 왕자인 안평대군도 금불상을 주조하여 흥천사에 기부하는 등 당시 왕실 및 종실의 숭불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이는 불교가 왕실과 국가를 외호하고 번영을 기원한다는 고려 이래의 전통적 유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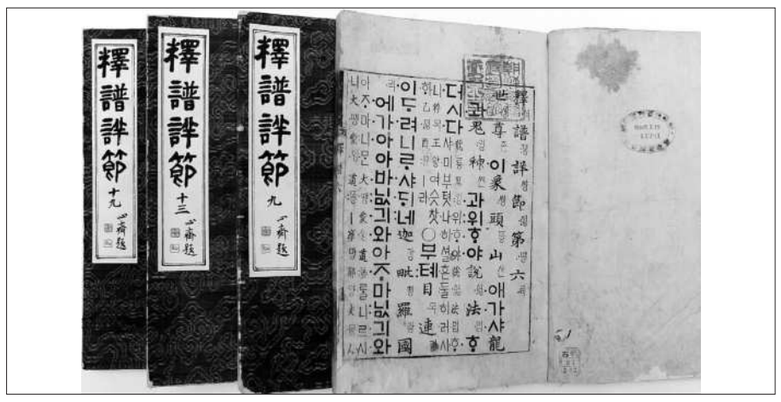
조선 전기 왕실의 숭불은 대표적 숭불군주였던 세조대에 이르러 정점을 이룬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불교를 신앙하였지만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즉위한 후에는 더욱 더 불교에 의지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각지의 사찰에 행차하여 중건 불사를 하고 각종 면제 혜택을 주었는데, 양주 회암사, 여주 신륵사, 합천 해인사,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금강산 표훈사, 양양 낙산사 등 다양한 지역의 사찰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궁중 정악으로 석가모니의 영산회 광경을 묘사한 영산회상을 만들어 연주하기도 했다.

유교 국가 조선, '숭유억불' 기조지만
왕실 일반인 신앙 관념은 불교
'숭불군주' 세조, 〈석보상절〉 편찬해
한양 가운데 원각사 창건 사리 봉안
불교식 상장례 의식 · 49재도 지속돼

세조는 속리산 복천사의 발원문에서 자신을 '불제자'로 칭하였고, 무엇보다 서울 도심 안의 흥복사 터에 원각사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높이 12미터의 화려한 10층 석탑을 세우고 회암사의 진신사리 일부를 봉안하였다. 원각사의 비문은 김수온이 지었고 추기는 서거정, 글씨는 강희맹이 썼는데 이들은 당대 최고의 문사들이었다. 세조대에는 신미, 수미, 학조, 학열 등의 고승들이 활동하였고, 선종판사 수미가 불사를 위한 대규모 모금이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했을 정도로 조선왕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흥불의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세조는 1461년에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다수의 불서를 간행하고 한글로 언해하였다. 불서의 번역과 간행에는 효령대군과 신미,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 등 승려와 관료가 함께 참여하였다.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직후 당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 직접 편술한 부처의 일대기였다. 간경도감의 설립과 불서 간행, 한글 번역은 불교의 대중교화와 한글 보급, 불교기록유산의 전승이라는 면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간경도감은 성종 초에 혁파되었지만 왕실의 후원으로 각종 불서의 간행이 이어졌고, 16세기 이후에는 왕실이나 국가 차원의 불서 간행은 크게 준 대신 사찰에서 간행해 내는 사간판 불서가 급증하였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며 불교를 배척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부분이었고,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던 불교 신앙을 전부 부정하지는 못했다. 실제 조선 전기 군주였던 세조는 높은 불심을 보여줬다. 세조가 세운 원각사 10층석탑(사진 위)과 한글 창제 이후 세조가 편찬한 〈석보상절〉(사진 아래).

세조대 이후에도 왕실은 대비나 왕비를 중심으로 불교신앙과 불사 후원을 계속해 나갔다. 억불정책이 시행된 성종대에도 세조비 정희 왕후의 후원으로 대규모 사찰 중창이 이루어졌고 선왕 및 왕실관련 사찰은 특별히 보호되었다. 내불당은 물론 양종 사찰과 원각사, 왕실 수륙재를 거행하는 북한산의 진관사, 장의사도 사세를 유지하였으며, 세조의 능침사인 봉선사와 원당인 용문 만덕사 등에는 잡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법제상의 폐불이 단행된 연산군과 중종대에도 왕실의 숭불 행위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명종대에는 선교양종을 재건한 문정왕후에 의해 도성 내에 비구니 사찰 인수사가 세워졌고 태종의 어진을 모신 장단 화장사나 왕실의 원당에는 왕릉에 건립되는 홍문이 세워져 사류의 출입이 금해졌다. 명종 사후에는 왕비의 후원으로 금강산에서 명복을 빌기 위한 무차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대회를 주관한 이는 선교양종의 판사를 역임했던 청허 휴정이었다.

조선전기에 행해진 대표적 불교행사로는 연등회와 수륙재를 들 수 있다. 연등회는 고려 말부터 4월 초파일에 전국적으로 행해졌는데, 태종대에 공식적인 설행이 금지되었지만 왕실과 민간에서 그 명맥을 오래도록 이어갔다. 물과 육지의 모든 중생과 혼령, 귀신의 고통을 구제하고 선왕과 선후의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한 수륙재는 왕실의 주된 불교의례였고 조선 초에는 국상제로도 개설되었다. 연산군과 중종대에는 왕실의 추천재와 기신재가 혁파되면서 수륙재에 합쳐져 행해졌다. 수륙재는 민간에서도 거행하였지만 주로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원당 등에서 대규모로 열렸던 것이다.

불교가 동아시아 세계에 미친 종교적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업과 윤회로 대표되는 내세관과 정토왕생 신앙이었다. 조선시대에도 현세와 내세의 복을 기원하는 불교신앙은 없어지지 않았다. 즉 관음신앙, 지장 및 시왕 신앙,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정토신앙 등 현세의 안정과 내세의 명복을 비는 신앙 행위가 대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 또 진언과 다라니를 위주로 하는 밀교식 의례도 왕실과 민간에서 중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례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대부 등 주류계층에서 불교식 의례가 점차 배제되었고 유교의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하지만 15세기까지도 전통적인 불교식 제의와 법회가 사적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국 후부터 화장이 금지되고 유교식 상제례가 적극 권장되었지만, 16세기 이전에는 사대부를 제외하고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는 사후의 명복과 정토왕생을 추념하고 기원하는 불교식 내세관과 신앙이 고려시대 이래 강고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세적 특성이 강한 유교적 관념과 제의로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유교식 상제례가 일반화된 조선후기에도 사십구재와 같은 불교재의가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전통의 유산이 갖는 저력과 대중적 기반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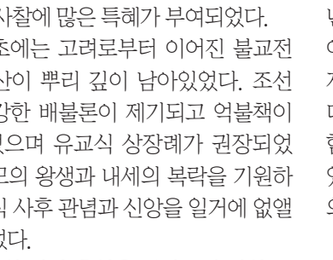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뜩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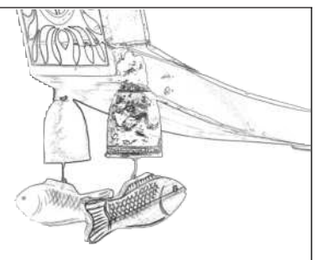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그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얽매이지 않아야 근심과 걱정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잡아함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자연산 상황버섯

면역력 증진
생명 연장력
뛰어난 항암력
(지리산 심마니)
010-8687-900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운이 나쁜데 어디 운을 고칠 부적 없습니까? 여기로 오세요.

인터넷: "치우천왕 정담" 검색
치우천왕 부적 5만원
농협 351-0527-5845-43
내 마음의절
010-4500-8234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천병,
신병,우울증,병명없이 아
프고 우환 고생하시는분.
스님, 보살 상담환영
금강사 010-5152-1222

공 고

* 공부, 수행하면서
노스님 시봉할 분
남녀불문, 45세이상,
월사례비 백만원
(숙식제공)
010-4905-0575

사찰 소임 원합니다

게송,법문,범패,불교의식
전문 / 함께 큰불사 이룰
수 있는 원력! / 땅이나 건
물 저렴하게 보시하실 분.
큰 인연 연락주세요.
곡차, 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0-2553-8827

비구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고찰인 산내암자에서 참선 정진하며 기도도 병행하며 함께 여생을 사원에서 공생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보살님**과 **공양주**와 자기기도 (지장기도)할 **비구니스님**을 구합니다.
경북 예천 내원암 (연락바람)
054-653-1180
010-6353-1180

포교원 양도 양수

권리없고 건물주가 협조함
부전스님,공양주할분쓸분
법인설립 (은행잔액 증명)
융통자금 상담
010-5381-1419

특수한 기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 치 포 핼 스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0-3825-3181

관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봐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수있다
  암,질병,산소문제,재판,가족,교통사고운을 알 수 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해남 황토 고구마

산지 직송
1BOX 10kg 25,000원
(택배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3602-04-065595 예금주 : 황향숙

010-3349-8802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 사찰 관리하실 분 65세 이상 1명.
▶ 사찰 과수원 관리에 도움 주실 분 (나이제한 없음)

(충북 단양)
010-5960-208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 상동역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땅속 혈과 맥을 잡아내는
족집게 도술풍수!!!

太極山水穴脈地理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한다!

- ◆명당은 반드시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다!
- ◆혈과맥 짚어내는 비술 득통(풍수계 최초)
- ◆혈맥터는 반드시 발복흥성 되는 생기복덕처다!

▶ 터감정 명혈점지 알선상담 ◀

절터 · 사업장 · 아파트 · 주택지 · 묘지 · 납골 · 수목장 등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 **태극산수혈맥지리**는 자연과학과 장심통수련으로 백발백중 감정·점지 할 수 있는 획기적 풍수지리다 : **비술전수자모집**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81 절로암 참설당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 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 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되 어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 본생경 -

사 찰 안 내

▶부산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총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2평, 요사채 25평, 산신각
- 뒤는 산, 남향 주차
- 가액 : 스님 사정상 몽땅 3억 5천 (몸만오시면 됩니다)

직통 010-2595-7752

▶ 바다 근처 예쁜 사찰들◀
- 위치 : 동해, 남해, 거제도 바닷가
- 총부지 : 동해 약 600평, 남해 500평, 거제도 약 400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용신각(용왕당), 요사채 등등
- 가 액 : 동해 2억 5천, 남해 2억 5천, 거제도 3억 5천
- 조망권 : 바닷가 200m이내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전망
- 전, 월세도 가능함 (거제도)

직통 051-863-6622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 2로 17번길 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수도권 ◎ 위치:경기
◎ 대지:200평 ◎ 부지:70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40평
◎ 요사:40평 ◎ 신도시,산 및 차량진입
◎ 양도:9억원 ◎ 양도:14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전망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 명산인식장산과 보문산 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m
-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2층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최적지전통한옥

(밀양 얼음골)
- 총부지 6,200평, 전통 한옥 2채 (45평 30평) 및 한옥보일러실, 해발 400M 전망 최고의 명당
-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인접
- 현재 팬션 운영중
- 가액 : 33억

주인직 010-6563-3122
010-7100-62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강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28평, 1층 방3
- 주방거실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 상단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법종, 소불 108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5천 월세 3천에 70만원

010-8611-756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급" 불교사 양도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대로변
- 평수 : 10평
- 보증금 : 천오백만원
- 월세 : 45만원

※개인 사정으로 급 양도합니다. 시설금 육백에 모두 다 드리고

- 몸만 나갑니다.

010-6770-7598

사찰(급)안내

- 소납이 급히 공사찰 소임관계로 부득이 양도 하고저 하오니 뜻 있는 스님들께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750만원
- 평수 : 35평

051-959-5925
010-3742-59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대 형 포 교 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큰방+종무실+종무실 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전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45평, 법당, 방 3
- 원목탁자, 삼존불, 탱화3점, 에어컨2대
- 냉장고, 세탁기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8년간 운영(절을 지어 이사하게 됨)

02)762-0108
02)433-010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 / 장성읍에서 12㎞ /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불타 보헤미안 여행사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TEL 02)733-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암 자 안 내

- 위치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대지 전 합 1,380평
- 건 약 50평, 태양광 온수
- 사진 전송가능
- 상담후 저렴하게 드립니다
- 가액 : 1억 3,000만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

010-7161-2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종교용지 대지 포함 약 500평, 전 1,480평
- 가액 : 5억 2천

011-9731-1415
033)762-2494

포교원(삼존불)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2층 약 27평
- 가능역에서 약 5분거리 위치좋음
- 가액: 1,000만원, 월 60 합 1,500만원(조절가능)

010-3247-5577

암 자(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읍 근처 한적한곳
- 잘 보존된 기와 한옥 1동
- 부속건물 2동 상수도 입식주방, 수세식 화장실
- 대중교통 편리지역
- 가액 : 4,500만원

010-8899-8899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포 교 원(급)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찰 구합니다

- 창건주 승계 원합니다
- 부동산 중매인 사절

010-4415-0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4호선 미아역 5분거리
- 약 30평
- 가액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9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량진역에서 10분 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4개, 다실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비품대 2,500만원

010-3574-1766

수양관(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98평, 건물 40평 텃밭(국유지) 약30평
- 대학병원 5분, 역전 10분거리
- 가액 : 2억 7천만원(전세가능)

010-5407-8034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 관음법당, 해수관음상 5층 석탑, 석등
- 방생도량으로 최적
- 완전 바닷가, 전망 좋음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8,000만원(절충가능)

061-337-3357
010-5370-5073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역 앞) 대문앞 차도(버스)
- 대지 약 112평, 건(2동) 약 30평
- 법당2, 방2, 거실, 공양간, 마당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100만원

010-4840-3939

오후 1시 이후에 전화 하십시오.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4호선 미아역 5분거리
- 약 30평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 평수 :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51-60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군 읍 하곡리
- 대지 1,000평, 건평 1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삼성각,공양간) 총120평
- 천하명당자리
- 가액 5억 7천만원

010-4519-0363
010-8181-06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1〉 모든 순간이 새로운 기회다

마음은 불변의 하늘, 감정은 '구름' 일 뿐

마음챙김(mindfulness)은 '의식하기(awareness)'를 의미한다. '의식하기'가 어떻게 고통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별 지침을 제공한다. 신체적 통증을 바꾸고 저항하려 할 때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오히려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통증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 마침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지식과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음챙김명상의 효과

꼭 밤만 되면 더 아프다. 고요함 속에는 통증을 증폭시키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진통제를 최대 허용치로 털어 넣어도, 통증은 곧 앙갚음이라도 하듯 더 무섭게 되돌아온다. 무언가 해서 통증을 없애고 싶다. 아니 통증을 없앨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 봐도 소용이 없다. 움직이면 움직여서 아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프다. 통증을 무시하면 무시해서 아프다. 하지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통증만은 아니다.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다 보면 당신의 마음도 고통 받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당신이 통증, 질병,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당신은 차츰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 다시 한 번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질병과 통증을 피할 길이 없다 해도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가 가능하고, 진정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련 방법의 밑바탕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학센터 존 카밧진(Jon Kabar-Zinn)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에 뿌리를 둔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통증 관리(MBPM, Mindfulndess-Based Pain Management)'다. MBPM 프로그램 자체는 책의 공동저자인 비디아말라 버치가 두 번의 심각한 사고에 따른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해 낸 것이다. 원래는 육체적 통증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법으로도 그 효과가 함께 입증되었다. 실제로 핵심적인 마음챙김 명상 기법이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완화에 약물이나 상담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 통증과 관련해서는 마음챙김이 통증에 처방되는 주요 진통제만큼 효과적일 수 있음이 임상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이 모르핀만큼 강력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이 통증을 겪고 있는 뇌의 패턴을 진정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변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 같은 강도에서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설사 통증이 다시 생기더라도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줄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많은 종합병원의 통증 클리닉에서 암, 암의 화학요법에 따르는 부작용, 심장 질환,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에서 생기는 괴로움에 환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챙김 명상을 처방하고 있다. 더욱이 마음챙김은 만성 통증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과민성, 불면증도 크게 줄여 준다는 것이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 외에도 연구자들은 마음챙김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들을 찾아나가고 있다.

통증이란 무엇인가?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통증 관리(MBPM)는 최근까지 서구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의 명상법을 이용한다. 명상은 보통 몸으로 흘러들어 오고 흘러 나가는 호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몸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픈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 아픔과의 싸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마음챙김은 당신에게 통증이란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가르쳐 준다. 이를 통해 당신은 통증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게 통증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통증이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통증이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는 심오한 깨달음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1차 통증(primary pain)과 2차 통증(secondary pain)이다. 이 두 가지는 원인이 아주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의 괴로움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1차 통증은 질병, 혹은 신체나 신경계에 입은 부상이나 손상으로 인해 생긴다. 이것은 몸에서 두뇌로 보내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정보라 이해할 수 있다. 2차 통증은 1차 통증을 바로 뒤따라오는 고통인데 훨씬 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2차 통증은 1차 통증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은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감각, 통증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마음은 통증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조절하는 볼륨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이 그저 통증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담긴 정보도 함께 처리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 묶음으로 전달된 서로 다른 감각들을 가닥가닥 나누어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몸에 더 이상의 통증이나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 당신의 마음은 괴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것을 돋보기로 확대한다. 이런 확대 현상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통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다. 그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통증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통증은 '감각(sensation)'이다. 즉 의식적으로 느껴지기 전에 뇌가 부여하는 하나의 해석이라는 의미다. 이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뇌는 몸에서 전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전달되는 정보도 함께 결합시킨다.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마음을 통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들이 괴로움의 강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통증을 감정이라 여겼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고통 저항할수록 더 악화
마음챙김으로 통증 탐험하며
매순간 감각 관찰 가능해
'받아들이기'는 '체념'과 달라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

괴로움은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우선 몸에서 느껴지는 실질적인 불쾌한 감각이 있다. 이것을 '1차 괴로움(primary suffering)'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부상, 진행 중인 질병, 혹은 신경계 자체의 변화로부터 뇌로 전달되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 위에 덧씌워지는 것이 바로 '2차 괴로움(secondary suffering)'으로 통증과 관련된 생각, 느낌, 감정, 기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불안, 스트레스, 걱정, 우울증, 절망감, 탈진 등이 포함된다.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통증과 괴로움은 이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이 합쳐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괴로움 속에 들어 있는 이 두 느낌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면 통증과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연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2차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은 자기 앞에 놓인 통증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괴로움이 차츰 잦아들면서 여름날 아침 안개처럼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통증의 감각은 마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당신의 괴로움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실제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괴로움은 실제로 존재하며 너무나 강력해 거기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통증의 밑바탕이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그 힘을 누그러뜨리고 통증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안, 두려움, 분노, 걱정, 우울증 같은 강력한 감정들은 통증의 지각을 강화한다. 다른 감정들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곤하고 압도된 느낌, 노든 것이 끝장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와 불안의 느낌 등이 모두 괴로움을 증폭시키고 당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2차 괴로움은 통증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온 힘을 다해 통증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일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은 통증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통증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스트레스, 탈진, 우울증 등은 저항할수록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반대로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통증이 줄어든다. 심지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안전한 느낌, 공간이 넓어진 느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적으로 조금씩 날것 그대로의 통증 감각에 대해 탐험을 시작할 수 있다. 마음챙김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대단히 극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이 여전한 가운데 때로는 꽉 조이는 느낌이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런 느낌들이 모두 완전히 불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서로 다른 감각들은 바다 위에 파도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시각각 특성과 강도가 바뀐다. 매 순간 이 서로 다른 감각들을 탐사함으로써 당신은 이것들이 하늘의 먹구름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감각이 일어나고, 뒤쪽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과 같고 각각의 생각, 느낌, 감정, 감각 등은 서로 다른 유형의 구름과 같다. 어떻게 보면 마음챙김은 당신으로 하여금 날씨에 휘말리지 않고 날씨를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늘, 즉 당신의 마음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마음챙김 받아들이기(mindful acceptance)는 운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내려놓고, 저항을 멈추어 힘겨운 몸부림을 중단하는 시간이다. 힘겨운 몸부림이 멈추고 나면 마음의 평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면 2차 괴로움이 차츰 줄어들고, 1차 괴로움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비디아말라 버치(Vidyama Burch)
15개국에 강사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적인 마음챙김 기관 '브레스워크(Breathworks)'의 창립자다. 저서로 〈통증, 질병과 함께 잘살기〉가 있다.

대니 펜맨(Danny Penman)
30년 넘게 열정적인 명상 활동을 펼쳐 온 명상 지도자 겸 탐사보도 기자로 BBC,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 '인디펜던트(Independent)'를 거쳐 현재 '데일리 메일(Daily Mail)'에서 특집 기사를 쓰고 있다. 저서로 〈8주나를 비우는 시간〉(공저)이 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52평 (텃밭 50평)
■ 2층 건물
■ 2층 법당 23평 삼존불,
1층 방2칸(큰방), 샤워장, 화장실
■ 요사채 : 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녀 화장실 별도
※ 해수관음. 다보탑 (천하명당)
■ 가액 : 4억 7천 중 (대출 1억 안고)
3억 7천
연락처 : 010-5121-33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사람을 찾습니다
■ 성별 : 여자
■ 나이 : 32세 갑자생 1984년생
이름은 미상이고 헤어질 때 경주 이씨라는 쪽지만 품에 넣었다 함.
헤어질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였음. 32년전, 아기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법수선원에 주석하시다 열반하신 성수 큰스님을 친견 하러온 비구니스님을 만나 사전에 협의하고 몇일 후 만나 아기를 맞겼다 함.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아가를 넘겨줄 때 품속 쪽지에 생일은 음력 2월 1일이고, 아빠는 이씨라고 써서 넣었답니다.
아시는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엄마 010-7553-8463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불교도의 지적교양 증진과 일반인의 폭넓은 불교이해 진작을 위해 불교특별강좌를 실시합니다.
인도철학과 불교
■ 기 간 : 2016년 1월 4일(월) ~ 2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 강 사 :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일본불교의 구조적 이해
■ 기 간 : 2016년 1월 7일(목) ~ 2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강의실
■ 강 사 : 원영상 (본원 연구위원. 일본 불교대학 박사)
■ 수강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교재비 포함)
■ 수강접수 : 2015년 12월 10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현대뜨레비앙 148
TEL : 02)762-5624 FAX : 02)762-5627 우편번호 13133

배려에서 우정이 피어난다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어요

I will try to be a good listener.

독일의 동화작가인 미하엘 엔데((Michael Ende, 1929~1995년)는 판타지 동화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모』는 같은 이름의 여자 주인공이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에게서 시간을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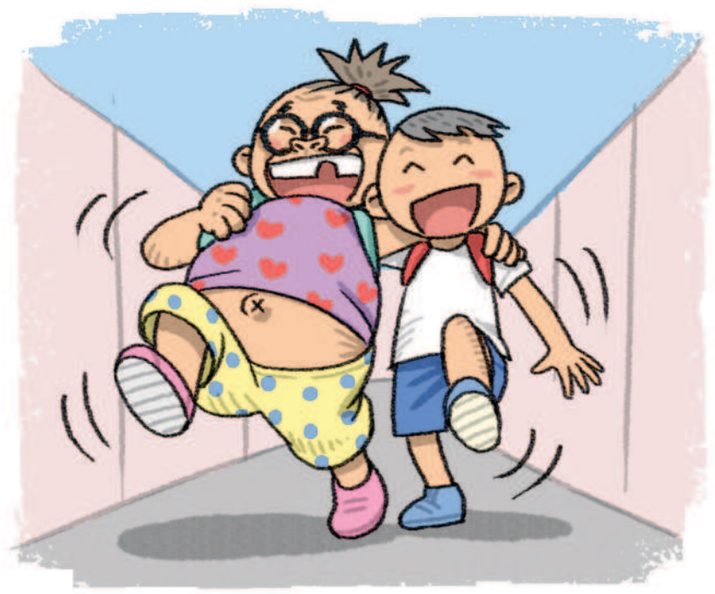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말라깽이 모모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모의 능력은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칠 때면 모모에게 달려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이에 사람들은 기쁨을 얻었고, 믿음을 찾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말하는 동안 귀만 열어두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며, 나아가 상대방의 기분까지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의 말을 잘 듣는 방법입니다.

* 여러분의 주변에는 모모처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김새나 차림새로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않겠어요

I will not bully or ignore other kids because of the way they are dressed or the way they look.

깍두기는 무를 모나게 썰어서 만든 김치입니다. 왕실에서는 송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도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이편에도 들어가고 저편에도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편을 갈라야 하는데 홀수여서 짝이 안 맞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놀이에 서툴거나 놀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깍두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따돌림 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 사이좋게 놀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놀이를 못하는 사람에게 '너, 빠져!' 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도 '너, 빠져!' 소리를 합니다. 서툰 사람이 우리 편에 있거나, 잘하는 사람이 상대편에 있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일단은 따돌리고 보는 것입니다. 놀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우리는 생김이나 차림새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따돌리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영국 출신의 가수 중에 '수잔 보일' 과 '폴 포츠' 가 있습니다. 둘 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곱지 않은 외모와 수줍은 성격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지만 재능을 발휘해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재주와 재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재능을 몰라보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일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왕따의 문제점과 이유에 대해 말해 보아요.
* 왕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나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먼저 화해하겠어요

If I fight with my friends, I will be the first to apologize.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년)은 후기인상파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특히 사과 정물을 많이 그려서 '사과의 화가' 라고 부릅니다.

세잔은 중학교 때에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인 에밀 졸라(Emile Zola, 1840~1903년)를 만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며 성장했고,어른이 되어서도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886년, 한 권의 소설때문에 둘의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졸라가 실패한 천재화가를 주인공으로한 소설 『걸작』을 발표했는데, 세잔은 졸라가 자기를 빗대어 소설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잔은 친구에게 조롱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작품에 간섭하던 졸라를 떠올랐습니다. 세잔은 졸라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졸라는 드레퓌스 사건(29.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어요 참조)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 뒤, 고향 마을에서 졸라의 흉상 제막식이 열리던 날, 지켜보던 세잔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잔과 졸라의 아름다운 30년 우정은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둘 사이에는 졸라가 소설을 발표하기 전부터 틈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세잔과 졸라 둘 중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아름다운 우정이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친구와 다툰 뒤에 쉽게 화해하지 못합니다.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쑥스러워서 먼저 말 못하고, 잘못이 없으면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입니다. 친구에게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 주세요.



* 세잔의 입장이 되어서 졸라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세요.
* 졸라의 입장이 되어서 세잔에게 먼저 말을 건네 보세요.
* 친구와 다투고 말을 안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화해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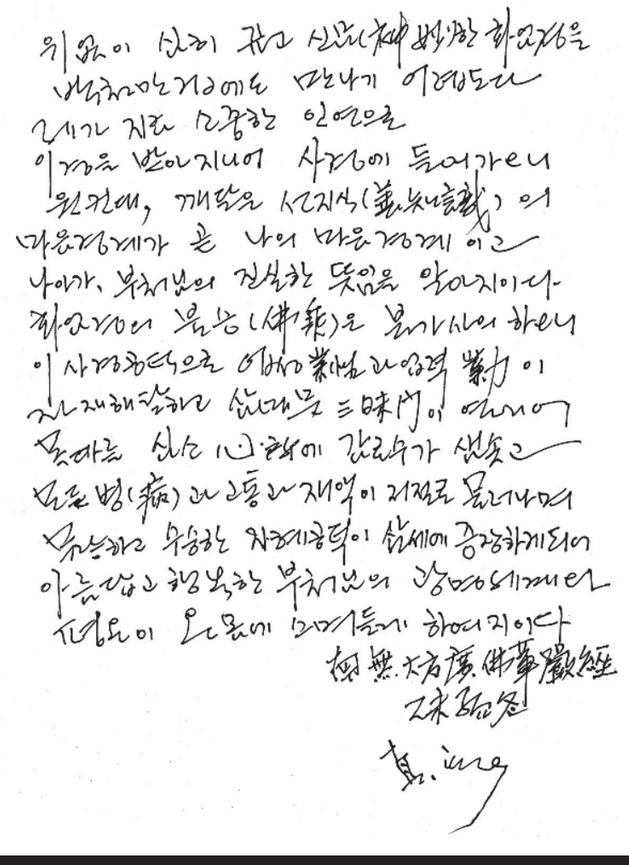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진귀 화두집 〈평온〉 출판

大方廣佛華嚴經 사경집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호스피스, 불교 복지 증진 매개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료와 간병, 복지, 그리고 종교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 서비스 개념으로 최근 완화의료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임종간호의 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그만큼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다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호스피스 환자, 시설, 간병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는 완치를 위한 치료활동이나 연명을 위한 약물 공급이 일체 중단되고 다만 생존하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환자는 향후의 여생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의료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엄격함이 적용된다. 또한 본인이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가 고통과 불안이 없이 조용히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병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모두 수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을 바라는 의약적 간병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일상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인도의 종교계에서 행려병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서비스는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암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종간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호스피스 서비스의 사회적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종교계가 호스피스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종교관이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를 비롯한 종교인의 개입이 필요하며 종교계에서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불교계에서도 원력 있는 승가와 재가가 참여하여 협회를 구성하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은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이는 곧 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라고 설하신 바 있다. 간병 공덕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또한 "간병하는 사람은 좋은 의사를 분별할 줄 알고 게으르지 않아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자며, 항상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잠이 적으며,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양하므로 병인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는 호스피스와 유사한 열반당이 운영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시설은 주로 스님들이 이용하였다. 앞으로는 재가불자도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시설과 같은 열반당의 운영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을 비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병공덕이 크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다.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동체대비심이 없으면 환자의 일상을 돌보는 간병활동 참여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현재 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로 해외 동포들이 담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지금은 누구나 호스피스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호스피스 간병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주요 사찰에서도 요양시설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불자들이 호스피스 간호 교육을 받고 간병 서비스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간병은 불교 의료복지 증진과 더불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데도 매우 이상적인 서비스 영역임을 불교계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발언대

노동운동가 조계사 피신 논란

지난 11월 15일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 불교계 안팎에 '보호냐 퇴거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불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대화의 장 제공은 종교의 참 모습"



조성택
고려대 교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찬반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계사가 한 위원장을 품은 것은 종교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조계사가 치외법권이냐" 혹은 "조계종이 정치에 휘말리느냐" 등 지적이 일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사법적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종교는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듯이.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이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어느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교계는 한 위원장에게 자신이 겪는 문제를 성찰하고,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해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그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의 근본보다는 곁가지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더불어 불교계의 이런 역할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교계는 이번 사태가 서로 대화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을 일은 아니지만 우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종교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 중 하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의 장이 꼭 마련됐으면 한다.

"조계사가 극렬투쟁의 성지인가?"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오늘 날 한국의 2천만 불교도들은 서울 조계사가 불법폭력시위대들과 종북좌익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 세력들의 은신처가 되거나, 그들 혁명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한다. 조계사는 절 이름 그 자체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간판이다.

그런데 걸핏하면 국가가 용인하지 않거나, 국가를 상대로 극렬투쟁을 벌이는 노조나 좌파운동권이 뛰어 들어 조계종 내지는 조계사를 불자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판이나 사회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조계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어 참배객도 많고 기도하는 신도들도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도 수없이 많다. 이러한 청정 도량에서 돈맛, 권력맛, 폭력맛, 피맛까지를 본 자들이 숨어 들어와 관음전 창문을 열고 주먹을 불끈 쥐며 이 대한민국을 한방이면 날릴 수 있다는 듯이 '민중들의 거리투쟁'을 외치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일인가. 노동자 농민 총궐기를 통해 체제를 뒤엎자는 불순세력이니, 통칭 사찰이 자비문중이라 하더라도 다 받아드리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민' '시민'은 있어도 '민중'은 없다. '민중'을 외치면 우리는 그들을 달리 보아야 한다.

원효 스님의 '화쟁'은 법(dharma)상의 문제다. 홍(紅)과 청(靑)처럼 이념과 색깔이 확연이 다른 것을 화해시켜 회색을 만들려 하는 것이 '화쟁'은 아니다.

SNS에 한창 떠돌고 있는 이외수 작가의 "대체 중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신도들의 시주로 쳐묵고 노는 중들 지놈들이 대체 뭐 간디 국법을 위반한, 영장이 발부된 현행범을 보호해 주다니. 이건 바로 범인 은익죄 아닌가(이하 략),"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이지만 '범인'을 붙잡고 있는 스님들 보는 눈이 이렇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 소개한 것이다. 흘려만 듣기엔 사회 공기가 너무 험함을 알아야 한다.

社說

동국대 구성원, 이제는 제자리로

극한까지 치달았던 동국대 사태가 재단 이사들의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로 매듭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같은 결정은 12월 3일 동국대 일산병원서 장시간에 걸쳐 열린 제297차 이사회서 전격 이뤄졌다.

동국대 이사회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단식과 농성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멈추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내건 일괄 사퇴이다.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일단 학교를 정상화시키려는 이사들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 불교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시기 적절하게 이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초강수를 선택하며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재빨리 대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해 법인 이사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의해 점차적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키로 했다.

학생들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게다가 최근 학생들을 살려야 한다며 뒤늦게 단식에 동참한 스님들까지 생겨나면서 동국대 사태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다. 물론 모든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농성중인 학생들의 반응도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원하는 눈높이를 낮추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학교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소통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그것이 상아탑, 그것도 종립학교의 지성인들이 취해야 할 부처님의 화쟁 정신인 것이다.

〈유심〉 종간을 아쉬워하며

편집국으로 보내 온 〈유심〉을 꺼내 보았다. 편집 후기 앞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최근 잡지를 후원하던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월간 〈유심〉은 12월호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한다"면서 "발행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도 고려했으나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을 의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풀어놨다. 또한 "〈유심〉은 문을 닫지만 문학은 영원할 것"이라는 명구도 남겼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만해 스님이 주도해 창간된 잡지로 당해 12월까지 총 3권이 발간됐다. 이후 2001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계간지로 복간하며 내노라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글이 실렸고, 2009년에는 격월간지로 전환됐다. 불교계와 한국 문단을 통틀어 이 같은 질을 유지하는 문학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심〉을 이끌어 온 홍사성 주간에 따르면 재정과 여러 이유가 원인이지만 편법발행을 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래도 아쉬운 결정임은 분명하다. 불교문인들이 "〈유심〉은 한국 문단의 격을 높였던 흔치 않던 교양지였다. 〈유심〉의 종간은 한국문단에도 큰 손실"(오세영 시인)이라며 "시 전문지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심〉마저 종간하니 아쉬움이 크다"(유자효 시인)고 말하고 있는 것에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유심〉으로 등단해 시인됐던 적지 않은 문인들은 이제 자신의 '모지(母誌)'를 잃은 것과 진배없다.

'시(詩)'의 한자를 풀어보면 '말(言)의 사원(寺)'이다. 시는 불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실제 선사들의 선문답은 응축된 시어와 같다. 발행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유심〉의 종간을 제고했으면 한다. '말의 사원'이 폐사됨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시민사회운동 30년… 수행

정법빠리사 운영책임 도반 이남재 씨



이남재 씨는 …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에 입문했다. 1982년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를 찾기 위해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민중불교운동연합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1994년부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1997~8년 일본 교토불교대학 유학 후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 · 민주주의불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 · 위드아시아 운영이사 · 서울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전두환 대통령을 타도하자!"

1982년 3월 2일, 동국대학교 어느 단상에서 한 학생이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어디선가 전경들이 몰려들어 학생을 끌어낸 뒤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밟았다. 해당 학생은 전경들의 무력에 하릴없이 연행됐다.

동국대학교에 갓 입학한 스무 살 청년 이남재는 등교 첫날 이 같은 상황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는 근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자 인도철학과를 선택했지만 첫날부터 큰 혼란에 빠졌다.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생각한 대학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위대한 지식' 이 아닌 '뼈아픈 현실' 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저 관념적인 내 공부만 할 것인가?'

청년 이남재는 한동안 고민했다. 그리고는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자 학생운동에 발을 담갔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지내며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고충을 접하기 위해 학교를 1년간 휴학했고, 복학 후에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서도 불교학생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통해 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특히 1985년 5월에는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에 함께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서며 정부의 눈엣가시가 돼 구치소 신세를 져야했다.

"제가 인도철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눈앞에서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휴학 · 구치소 생활 · 군복무 등을 다 겪다보니 대학교 졸업이 한참 늦어졌습니다(웃음)."

일본서 불교공부… 복지에 눈 떠

불교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에서 30여 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남재(53) 씨.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소임은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과 (사)위드아시아 운영이사,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추진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서울 월곡청소년센터 원장 등 단박에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소임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 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보살행에 빠지게 한 걸까?

이 씨는 1994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장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전반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일하기를 몇 년, 이 씨는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할 수 없었던 불교공부가 문득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본 교토불교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사회적 활동을 보며 적잖게 놀랐다.

"일본에서 1년 반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일본의 종파불교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보니 일본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계종은 94년 개혁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회적 활동보다는 집행부 정리에 힘을 쏟을 시기여서 일본불교의 이런 모습이 무척 감명 깊었어요."

이 씨는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복지를 공부하고, 허허벌판에 가까웠던 한국불교의 복지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제안을 받아 불교사회복지 현황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는 승합차 한 대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불교계 운영 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정리했다. 이런 그의 열정에 힘입어 1999년 한국불교복지의 현황을 망라한 〈한국불교사회복지총람〉이 발간될 수 있었다. 이후 점차 사회복지에 관심이 커진 이 씨는 서울 월곡청소년센터 원장직을 맡게 됐다.

"처음 월곡동에 가서 느낀 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만 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골목도 좁아서 한 사람밖에 못 지나다닐 정도였고, 인근에 공부방이 없어서 학업과 멀어지기 쉬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조손가정이 많아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 씨는 월곡청소년센터 원장 부임 후 센터를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무료급식을 위해 사찰을 찾아다니며 쌀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물론 결연후원사업을 펼쳐 아이들의 학비 걱정을 덜어주는 데도 힘썼다. 그 노력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운동하며 사회문제 관심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 초점
나보다 '남' 위한 삶 살아와
수행과 복지활동 양 날개 삼아
사회 선도하는 불교 거듭나야

국내외로 뻗어나간 복지원력

이 씨는 청소년센터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빈곤국가 아이들의 어려움에 늘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돕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는 월주 스님을 찾아가 외국 불교국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국내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도와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스님을 설득했다. 개신교계의 해외구호 활동을 비롯해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훼불행위 등 같은 불교도로서 도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월주 스님과 직접 불교국가를 돌면서 열악한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월주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라오스 오지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월서 스님도 함께 가셨는데 그제야 해외구호활동을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첫 시작은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소소했는데 지금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단체가 됐죠."

이 씨가 지구촌공생회에서 일하는 동안 라오스 · 미얀마 · 캄보디아 등에 지은 우물만 1000개에 달한다. 그는 이후 불교계 국제구호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구촌공생회를 그만두고, 현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인 연암 스님과 함께 (사)위드아시아를 설립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고, 당국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부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게 했다.

"해외구호사업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교사도 초급교육대학을 나온 그 마을주민이나 이웃마을주민이 맡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주고 끝나는 일회성 지원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자립을 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토록 해외구호사업에 매진하던 그는 어느 날 연암 스님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함께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간 어떤 사업도 주춤거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끌냈던 그에게도 이 제안은 부담이 됐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가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한몫했다. 바로 원효의 일심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 본래의 참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 가르침에 육바라밀만 잘 실천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원폭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오래 전 월주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제가 직접 현장에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원폭피해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합천에 원폭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합천평화의 집' 을 만들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원폭피해를 입으면 당대에 끝나지 않고 3~4대까지 유전적 질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씨는 이러한 원폭피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2012년 합천 비핵 ·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위드아시아와 합천평화의집이 주최한 이 행사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 핵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였고, 이는 곧 핵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펼쳤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그동안 법 제정을 요구해온 원폭피해자특별법이 올해 11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특별법추진연대회의 측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특별법 안건 순서가 뒤로 밀려 현재까지(12월 3일 기준)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소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복지로 세상 맑히는 게 꿈



이남재 씨가 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30주년 기념 토론회 및 기념법회에 동참한 이남재 씨.



2013년 9월 캄보디아 뿌레이끄랑 마을에서 열린 위드아시아 드림나래센터 개원식.


지난 11월부터 정법빠리사 모임을 통해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수행하는 모습.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건강 위기 극복 후 수행정진

이 씨가 불교계 다방면에서 활동한지 20여 년이 지났을 즈음, 갑작스레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004년 러시아에서 열린 고려인 이주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였다. 갑자기 무언가가 계속 아랫배를 쿡쿡 쑤시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병명은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혈액암의 일종). 생존확률이 50%라는 의사의 설명에 덜컥 겁이 났지만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대장을 절반 이상 잘라내는 대수술을 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항암제를 맞으면서 몸은 점차 야위었고, 어느덧 몸무게도 40kg대로 주저앉았다.

이 씨는 항암치료를 5회까지 받은 뒤 경북 문경으로 떠났다. 시골산속에서 작은 흙집을 짓고 요양했다. 참선과 기도, 수행정진의 시간이 계속됐다. 그렇게 4~5년가량 지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완치판정을 받았다. 수행 덕분이었는지 기도가 이뤄진 것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여생을 '덤'이라고 생각했다. 수행과 봉사를 양 날개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처음 병을 발견했을 때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것 또한 나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좌절하거나 우울하진 않았어요. 다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판정을 받았을 때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 씨는 이 같은 다짐 이후 그동안 수행을 뒤로한 채 사회활동에만 매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데 집중했다. 그런 연장선의 의미로 최근에는 도반들과 수행모임 '정법빠리사(Dhamma Parisa)'를 창립했다. 부처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수행 · 교육 · 자비행을 하며 새로운 전법시대를 열어가는 평등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정법빠리사에서 수행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며 중생심을 발보리심으로 바꾸는 힘을 키울 생각이다.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지만 정작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법빠리사는 수행을 중시하지만 개인적인 앎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발보리심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정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매주 도반들과 수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 '108 선지식 구도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각지의 선지식들을 만나 수승한 진리가 무엇인지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108명을 만나려면 18년이 넘게 걸리네요. 오래 살아야겠습니다(웃음)."

쉬운 교리 해석 · 청정승단 모범 절실

젊었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불교계에서 일했던 이 씨. 그는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은 불교계의 복지활동이 꽤 세분화돼 있습니다. 90년대의 초기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죠. 다만 불교 교리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리를 잘 녹여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여야 자연스레 지역 복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스님들이 올바른 청정승단의 모범을 보여 신뢰를 쌓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불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도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현 시대에 그걸 못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씨는 인터뷰 내내 불교가 우리 사회의 큰 빛이자 목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제자들이 내적 수행을 잘 다져야 한다고. 그는 불교가 현대인들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거듭나 경쟁이 격화된 시대에 상생 · 공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지와 마음치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량심과 자비희사 정신을 바탕으로 앞서 얘기한 두 축을 잘 세워야 불교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재가자들이라도 나서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불교계 문제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요?"

향기 나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법이다. 수행정진과 복지활동을 통해 세상을 맑히고 싶다는 이남재 씨의 원력이 비록 세상의 묵은 때를 단박에 씻겨낼 커다란 물줄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날이 오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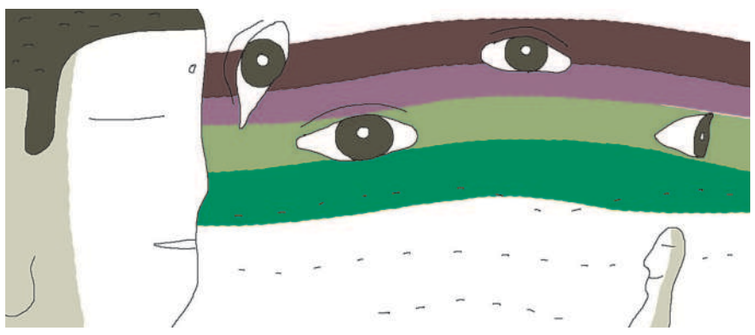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법일기

21세기 아나율 존자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불행하고 소외된 중생들도 불성이 있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히시며 그들을 어루만지러 이 세상에 오셨다. 손과 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필요한 이들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며 어둠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수화통역사가 곁에 없으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우리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그것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말과 소리를 잃어버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가족들


그림 · 박구원

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큰스님들의 법문도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요일 법회에서의 일이다. 부처님께 참회 발원을 위해 모인 청각장애인들은 법문 중에도 불교의 전문용어들을 접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워했다. 한 단어라도 더 배우고 알기 위하여 수화를 하는 나의 두 손길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감사함을 느꼈다.

오래 전의 일이다. 한 법회에서였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소리를 관하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살펴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회복지 실천가이십니다. 우리도 비록 육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법문을 하자 한 장애인 법우가 손을 들고 말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소리를 보시는 분이면 청각장애인들의 스승이시네요. 우리도 소리를 수화를 통하여 눈으로 읽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잘 이해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타종교에 비교하면 장애인 단체도 부족하고 전문학교도 없고,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다고 아쉬워하고 불평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교 포교사가 되어 도반들을 포교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 받기를 원했지만 오랜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며 비록 그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서 베풀어야 한다는 자세로 이들의 마음가짐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들도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이 베풀 수 있다는 자체를 너무도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불교계의 현실은 각박하다. 사찰 법회에는 제대로 된 수화통역사가 없을뿐더러, 법회 영상물에서 조차 수화안내가 없는 실정이다.

종단 내에서 장애인 전법단을 비롯한 많은 원력을 지닌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역특성상 계단이 많고 경사가 깊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라면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접근조차 힘들어 내왕이 드문 까닭에 사찰이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법회나 신행활동을 열겠다는 발상은 쉽게 떠오르기 어렵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천안제일(天眼第一)'로 일컬었던 아나율 존자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많은 사찰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법회 및 강의를 수화로 통역해준다면 청각장애인들은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찰을 참배하며 불교신행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들 중에 21세기 아나율 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대행 스님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 지원에서 온 신도님들이나 본원의 신도님들이나 다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더욱 더 반갑습니다. 언제는 뭐 아니었습니까마는 오늘 뵙고 보니까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인간의 생명도 바로 한데 뭉쳤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생물이 생긴 것도 역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기듯이, 우리 한 몸뚱이가 나오려면 양 부모의 뜻과 내 영혼의 뜻과 또 그 형체가 형성되면 작용해 줄 수 있는 그 업식, 그 의식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지은 대로 다 합쳐서 이 세상에 형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 수도 없고 또 최고의 동물로서 활동도 못할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떠나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두뇌로 해서 연구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구가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물질이 개발되고, 지금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죠.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뭐 고체니 기체니 액체니 이러한 말도 없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 또 레이저 광선이 개발이 됐죠? 물론 그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현명한 이름들이 많겠지마는, 그걸 방편으로 예를 든다 하더라도 손색은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레이저 광선입니다. 그 레이저 광선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세상이 다 쓰고 있습니까? 병원이라면 병원, 떠다니는 비행기 또는 하늘 꼭대기로 쏘는 거, 일거일동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화까지도. 그것뿐이 아니죠? 일체가 지금은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속성과로 그렇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그런 레이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요? 없어서는 안 되죠? 속에 병이 들어도 거기다 광선을 쬐야 하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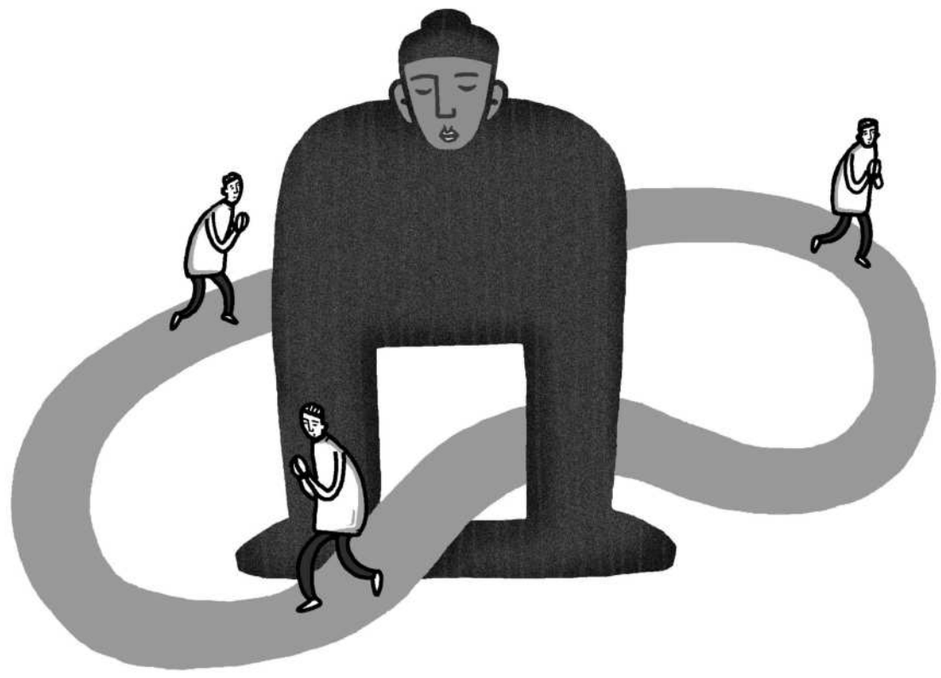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 재는 거라든가, 쏘는 거라든가 아주 일품으로 쓰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거…,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죠. 레이저 광선은 어디나 쓰여지는 겁니다. 멀리도 갈 수 있고 가깝게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한번 그걸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업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즉 말하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윤회성이나 또는 어떠한 거든지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녹일 수가 있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내가 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만 명이다 하면 숫자를 놓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거든지 나투어서 응신이 돼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둘이겠느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미래로 돌아갔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거니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찰나찰나에 지금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업보 그 자체를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깝든지 멀든지 그걸 불문에 부치고 끌어다 보려면 끌어다 보고, 놓고 보려면 놓고 보고, 갖다 먹을 수 있으면 갖다 먹고,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나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로켓도 올라가는 걸 멈추게 하려면 멈추고 없애려면 없애고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이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자유대권을 갖는데…. 이 천지, 우주 천지의 모든 대권의 소유자인데….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만큼 얘기를 하시고, 이만큼 가진 자에게는 이만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줘도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가 같이 도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방편으로 보여 주신 거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이 모두가 아픔을 껴안고 먹고 또는 먹히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판국에서 하치않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엄연합니다. 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꼭 칼을 들어야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뼈저린 아픔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좁게만 보지 마시고 넓게 한번 펼쳐서 봐 보십시오. 어떠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육체적 장애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입니다. 정신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도 병신이 되고, 이것이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쫓는 게 아니라 쫓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또 잡아먹히는 이러한 세상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사는 게 쓸데없이 생각이 되고요. 허!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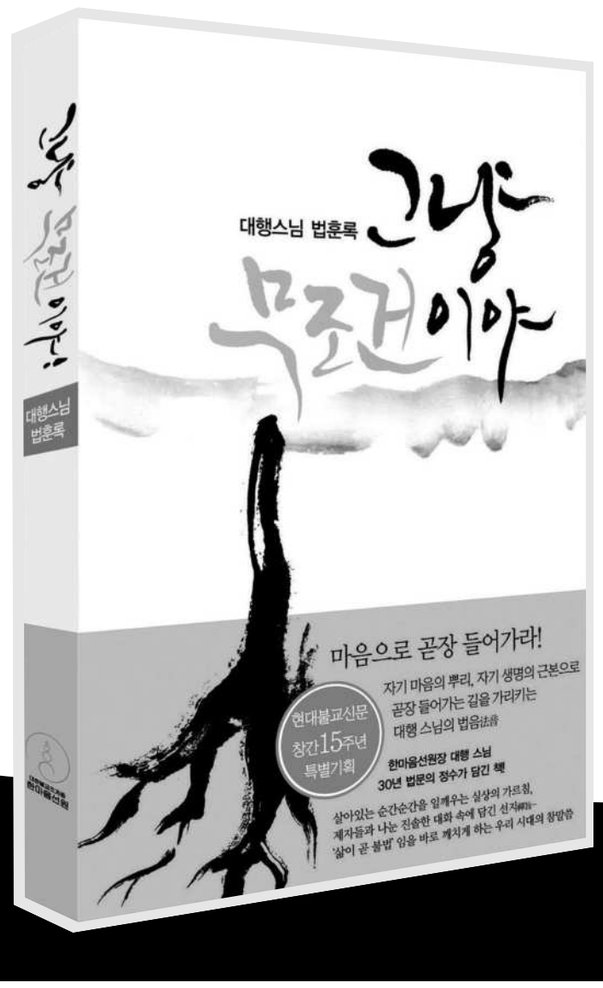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런데 요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모든 걸 아주 좁게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더 막막하단 말입니다. 어떤 땐 기가 막혀서 그저 나같이 바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는 그런 항아리 속에서 쫓고 쫓기지는 않겠죠.

이 불교에서 불법이다 불교다, 사찰에 가면은 그저 부처님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너부터 알라." 그랬습니다. 네 몸뚱이가 내 몸뚱이하고 다른 게 있느냐?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른 게 있느냐? 생명도 다른 게 없고 마음도 다른 게 없고 몸도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말하지마는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뭐 알라신교니, 원불교니 불교니, 이렇게 모두 방방곡곡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전부 기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 놓고 어쩌면 그렇게 상대로만 믿고 가요? 상대를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세세생생을 두고 항상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종노릇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너는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 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마라. 이 우주 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마힐 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네들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걸 보면 "좌선을 했다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 하고 충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또 "내 몸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느냐." 하기도 했고, 그것을 얼른 생각해서 내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모두 바깥으로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이 바깥의 중생들을 다 거둬야 자기 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나도 죽고 생활하는 게 그대로 불교고 그대로 참선!

☞ 29면에서 계속

이 낫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몸속의 중생들이, 그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그 모든 의식들이 병이 나아야 나도 낫는 거 아닙니까? 각자 여러분 말입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몸속의 그 생명의 모습, 의식들이 바로 나와 네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노라고. 모든 오장 육부의 생명들,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게 해 줘야죠. 내 마음먹는 대로 같이 뭉쳐서 같이 한마음을 내서, 들일 건 들이고 낼 건 내고 자유자재권을 형성시켜서 나가야 그것이 천백억화신으로 화(化)하죠. 나의 그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바로 같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믿질 못해서 의식들은 의식들대로 놀고, 즉 말하자면 위 공장은 위 공장대로 따로 놀고, 장 공장은 장 공장대로 따로 놀고, 방광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죄 따로 노는 겁니다. 죄 따로 노니까,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선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모두가. 그러니 내 마음을 따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용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대치를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잡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그렇게 역력하게 빛깔이 있고 잡을 수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킬 수 없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대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여건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할 때, 괜히 장난으로 하는 것 말고요. 이게 필요하다 할 때 그거는 틀림없이 레이저 광선이 쏴 들어가듯이,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한 찰나에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들, '옛날의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우주 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높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물에 가면 물로 하나가 되고, 공기로 가면 공기로 하나가 되고, 흙으로 가면 흙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계로 가면 영계로 하나가 되고, 산 사람으로 가면 산 사람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몸뚱이 속에 자기와 동료로서 같이 움죽거리는 그것도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예? 그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회초리가 가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한데 합쳐서 이렇게 뭉쳐 놓으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속의 그 수십억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데 어찌 그걸 꺾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프니까 아픈 것이 낫지 않으면 '에이, 주인공도 쓸데없어.'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맡기는 것이 안 되면 또 '에이그!', 그렇게 '에이그!' 하고 버릴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저 충주 시멘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부인이 백혈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구박이 자심하고 그래서 왔다고 울면서 그때 25만 원인가 정성을 들이면서 쌀 한 말에 초에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소저 할머니가 여관 하실 때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과로 아주 들어갔죠. 마음공부는 못 시킬망정 그 애로점을, 그 울고불고하는 거나 없애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나아서 갔습니다. 그 여관에서 며칠 있으면서 그냥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 보니까 이거 오진을 했다고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오진이라는데 왜 그런 돈을 없앴느냐 하면서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허허허. 그때 찾으러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이소저 할머니더러. "그 쌀하고 초하고, 꼭 그 보따리를 놔두십시오. 그 봉투도 건드리지 말고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것을 꼭 두라고 하십니까? 신도들 오는데 밥이라도 해 주지." "그냥 놔두십시오. 쓸데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아, 찾으러 왔답니다. 찾으러 왔으니 안 줄 장비(張飛)가 없죠? 하하하. 무슨 그거를 탐내고 그러는 사람 같으면 "부처님 앞에 정성들이고 간 거를 왜 되찾으러 왔느냐?" 이러겠지만, "가지러 올 줄 알고 여기 놔두었다." 그러고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그 부인은 나았는데 반대로 본인이 암에 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거를, 그 업보라는 거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없애면 저게 생기고 저거를 없애면 이게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찾아가고는 염치가 없으니까 못 오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딱하다고, "하이고, 그렇게 그 부인도 어린애 못 낳는 것 어린애 낳게 해 주시고, 미친 것도 낫게 해 주시고, 또 백혈병도 낫게 해 주셨다는데 그것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기에 "아이, 내가 뭐 병원의 의사입니까?" 이럭하고선, 그래도 마음으로 안됐어서, 그저 간간이 감자물이라도 해 잡수라고 했는데 그 감자물이 낫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죽는 게 두렵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부처님이 있으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깐 주인공도 쓸데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올팡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나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떡합니까? 거기서만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그 해결을 하지, 마음으로 병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이 병난 거는 육신으로 대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 나가는 거죠?

이 물질적인 문제도 또 없어서는 안 되지. 일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염파가 걸러 걸러 돌아가면서 이것이 확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찰나에 쏜살같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가 이렇게 섰다면…, 이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그냥 동시에 쫙 전력이 나가듯이, 마음에서 한 번 생각하면은 이 두뇌로 해서 사대(四大)로 그냥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따라 주니까, 그냥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래서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적절히 모시고 다니는 거죠.

이 모두가 옛날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어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착 나서더니만 그냥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 준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 이럭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주인공!' '아이고, 스님! 주인공!' 급하니깐요.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하느라고 그 열다섯 명이 칼을 들었는지 뭐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청이처럼 우두커니 쳐다보고 섰으니까, 오더니만 아래위로 딱 전부 뒤지더니 돈 만 원이 나오니까 돈 만 원만 가지고선 "에이, 여기 이 새끼는 속에 시계도 차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볼 것 없어." 그러고선 아, 그대로 가더랍니다. 발길질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야,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런 거로구나!' 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그 악하게 마음이 됐던 것을 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경전을 달달 외우고, 학술적인 지식적인 뭐를 가지고 거기에 그냥 딱 죄여서 머리가 굳어 가지고는 옴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살아오면서 그것이 관습이 돼서 아주 인이 박혔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약아서 요건 요렇다, 요건 못한다 한다, 이럭하면 잘되겠고 이럭하면 못되겠고, 이것이 아주 뚜렷하니까 거기에 딱 틀이 박혀서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무식하고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거짓 아니야?' 거짓이고 잘못이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는데.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래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래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름을 믿으라나 허공을 믿으라나? 아이, 이러니까 살펴볼 것도 없지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선하던 사람은 좌선만 해야 하는 줄 알고, 또 좌선하면 무슨 큰 불법을 깨닫는 도리나 얻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자체, 이렇게 우리가 나고 죽고 생활하는 게 그대로 불교고 그대로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공안(公案)이고 그대로 여여함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생활 속에서, 내가 가고 오는 데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라 하는 거, 이 '공(空)' 자가 들어간 거는 뭐냐?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게 한 가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그저 요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조것 보면 또 달라지고, 요것 들으면 달라지고 조것 들으면 달라지고 이게 그냥, 아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 그 도리를 그대로 여여한 줄 알고, 그대로 참선인 줄 알고, 그대로 불교인 줄 알고, 살림살이하는 게 종교인 줄 알고 돌아가야만 이게 진실히 믿어지고, '죽는 것도 네가 죽게 하는 거고 살게 하는 것도, 형성시키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다.'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데 어디다가 생사를 붙일 겁니까? 그 생과 사의 가운데에 마음이, 움죽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당당하게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 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마라.
이 우주 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위 법문은 1992년 1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